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 유 희

2014년 6월 일

안 창 일 교수지도  
박 사 학 위 논 문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 유 희



정유희의 문학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14년 6월 일

위 원 장      안      창      일      (인)

---

위      원      이      순      목      (인)

---

위      원      안      귀      여      루      (인)

---

위      원      고      영      건      (인)

---

위      원      양      은      주      (인)

---



## 국문 초록

성범죄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재발방지 모형, 여성주의 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점 기반의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성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법원에서 부과 받은 수강(치료이수)명령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프로그램과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40시간 기준 7회기로 구성하였다.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단기 효과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33명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34명의 치료 전, 후의 자기보고형 심리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인 낮은 자존감,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정서조절의 결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장기 효과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128명(평균 재범 추적 기간 554.09일)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145명(평균 재범 추적 기간 667.93일), 수강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146명(평균 재범 추적 기간 610.78일)의 재범여부를 비교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았다.

사전, 사후 평가를 비교한 결과 첫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우울감, 외로움, 충동성 수준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둘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은 정서조절곤란 수준,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되고 성을 매개로 한 대처 수준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개입이 성범죄자의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 및 대인관계에서 어울림 정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공감,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자존감 변인에서는 유의한 개입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치료의 장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범분석을 실시한 결과,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성폭력 재범, 폭력 재범, 전체 재범 영



역에서 재범자의 수, 재범횟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분석에서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수감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보다 재범 억제 효과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에서 재발방지 모형 등 기존의 접근보다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은 성범죄자가 부정적 기분들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치료적 개입을 받지 않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보다 미래의 재범을 감소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 기반의 좋은 삶 모형 접근은 성범죄자가 친사회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국 재범 억제라는 큰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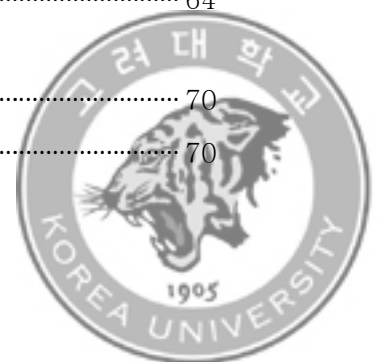
---

주요어 : 성범죄, 성범죄자, 수강(치료이수)명령, 좋은 삶 모형, 치료 효과, 재범 방지



# 목 차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5
1.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	5
2. 성범죄자 재범 위험 요인들 .....	11
3. 성범죄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 모형 .....	14
4.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흐름 .....	16
5.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삶 모형의 적용 .....	24
6.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	30
7.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	33
III. 연구 목적 및 가설 .....	36
IV. ‘좋은 삶 모형’을 기반으로 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39
1.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 .....	40
2.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진행 내용 .....	41
V. 연구 1. 치료의 단기 효과 .....	50
1. 연구 대상 .....	50
2. 평가 도구 .....	51
3. 자료 분석 .....	55
4. 연구 결과 .....	56
5. 논의 .....	64
VI. 연구 2. 치료의 장기 효과 .....	70
1. 연구 대상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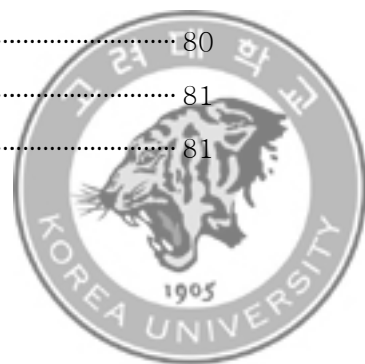
2. 자료 분석 .....	72
3. 연구 결과 .....	73
5. 논의 .....	84
 VII. 종합 논의 .....	 89
 참고 문헌 .....	 97
 ABSTRACT .....	 122
 부 록 .....	 124





## 표 목 차

<표 1> RNR 치료 요소들과 연결된 GLM 구성 개념 .....	29
<표 2> 기본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	45
<표 3> 확장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	49
<표 4> 사설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주제 .....	51
<표 5> 인구통계학적/범죄경력 관련 변인 동질성 검증 결과 .....	57
<표 6> 사전 검사 동질성 검증 결과 .....	58
<표 7>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 : 자존감 .....	59
<표 8>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 : 공감, 충동성 .....	61
<표 9>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 : 자존감, 외로움, 우울감 .....	61
<표 10>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 : 정서조절 .....	62
<표 11>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 : 인지적 왜곡 .....	63
<표 12> 기존 프로그램의 예시 .....	70
<표 13> GLM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73
<표 14> GLM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처분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	74
<표 15>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	75
<표 16> 집단별 성범죄 재범자의 수 .....	75
<표 17> 집단별 성범죄 재범 횟수 .....	76
<표 18> 성폭력 재범자들의 범죄경력 및 프로그램 이행 태도 .....	77
<표 19> 성폭력 재범 생존함수 분석 결과 .....	78
<표 20> 집단별 폭력범죄 재범자의 수 .....	79
<표 21> 집단별 폭력범죄 재범 횟수 .....	79
<표 22> 폭력 재범 생존함수 분석 결과 .....	80
<표 23> 집단별 전체 범죄 재범자의 수 .....	81
<표 24> 집단별 전체 범죄 재범 횟수 .....	81



<표 25> 전체 범죄 재범 생존함수 분석 결과 .....	82
<표 26> 범죄 관련 변인의 재범 예측치에 대한 Cox 회귀분석 결과 .....	83
<표 27> 프로그램 관련 변인의 재범 예측치에 대한 Cox 회귀분석 결과 .....	84



## 그림 목차

[그림 1] SRM에서 설명하는 성폭력 발생 과정 10단계 .....	18
[그림 2]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모형 .....	40
[그림 3] 프로그램 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	71
[그림 4] 동종 재범에 대한 집단별 생존곡선 .....	78
[그림 5] 폭력 재범에 대한 집단별 생존곡선 .....	80
[그림 6] 전체 범죄 재범에 대한 집단별 생존곡선 .....	82



# I. 서론

2000년대 이래 성범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성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여야 한다’, ‘감시체제가 필요하다’는 처벌적 견해들이 조성되었고, 정부는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강화하였다.

인터넷의 발달,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성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성범죄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 최근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는 등으로 사건이 보고되는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언론매체에서 다소 자극적인 소재로 성범죄를 다루게 되면서 성범죄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으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은 10%에 머물고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하루 평균 63건이 발생하며, 1시간당 2.6명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성범죄 비율이 공식 자료에 비해 6~10배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Koss, Gidycz, & Wisniewski, 1987), Abel과 동료들(Abel, Gunningham-Rathner, Rouleau, & Murphy, 1987)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롭다. 이미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비밀 보장 조건 하에서 성범죄 횟수를 조사하였는데, 232명의 아동 성학대범들은 55,250건의 아동 성추행을 시도했고, 그 중 38,727건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6명의 강간범들은 882명의 피해자들을 보고했고, 142명의 노출증 환자들은 71,696 사례에서 노출을 했다고 보고했다(김덕일, 송원영, 2010; Marshall, Marshall, Serran, & Fernandez, 2006).

성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노력은 두 말 할 것 없이 중요할 뿐 아니라, 원인 제공자들의 가해행위를 중단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Marshall, Marshall, Serran과 O'Brian에 의하면(2011), 캐나다에서 성범죄자 1명이 재범을 했을 때



수사, 재판, 교도소 수용 등으로 국가에서 1년 간 드는 비용이 약 60명의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으로, 재범률 및 피해자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치료를 통해 연간 약 140만 달러의 이득이 산출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재범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화학적 거세만을 할 경우 생물학적 성기능이 제어되어 강간은 방지 가능할 수 있으나 일탈된 성적 기호 등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변태 성욕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신상공개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재범 위험성의 고려 없이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공개할 경우 범죄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상공개 대상자가 많을수록 감시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주간동아, 2012). 따라서 성범죄를 방지하려면 법률적인 장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심리치료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미권에서는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성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위험성 평가 도구의 개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영역에서는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범죄 경로 모형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는 낮은 자존감(Marshall & Mazzucco, 1995), 인지적 왜곡(Burt, 1983; Hamiltion & Yee, 1990), 공감능력의 부족(Fernandez, Marshall, Lightbody, & O'Sullivan, 1999; 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 Marshall et al., 2006),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Marshall, Cripps, Anderson, & Cortoni, 1999; Ward, McCormack, & Hudson, 1997), 성적 강박 및 일탈된 성적 기호(Abel & Rouleau, 1986; Wilson & Yates, 2005) 정서조절 결함(Hanson & Morton-Bourgon, 2005; Hanson, Harris, Scott, & Helmus, 2007) 등이 있다.

치료 분야에서 재발방지 모형(Relapse Prevention Model, Marques, Day, & Nelson, 1992), Andrews와 Bonta(1998)가 제안한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RNR) 등이 대표적인 이론이며, 인지행동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다(Aos, Miller, & Drake, 2006; Hanson, Gordon, Harris, Marques, Quinsy, & Seto, 2002; Lösel & Schmucker, 2005).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들의 결함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강점을 강조하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삶 모형(Good Lives Model)'을 적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재발방지 모형은 범죄를 유발하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인지행동치료 형식으로 위험한 상황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을 수정하거나 절제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며,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은 개인의 재범위험성 수준, 범죄와 연관된 욕구, 변화에 대한 동기나 학습양식 등을 고려해서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교정심리치료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치료 프로그램은 기존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치료 형식을 취하지만 범죄자의 취약요인이나 위험요인을 강조하기보다 그들의 강점과 긍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재발방지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범죄행위를 지지하는 사고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하였다. 첫째,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건을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고 방어적 혹은 적대적인 반응을 빈번하게 표출한다. 둘째,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사건에 대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판결문에 기록된 범죄사실과 대상자의 진술을 일치시키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지막 문제점은 범죄 발생 기제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개입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즉,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라는 식으로 재범방지 계획을 세울 뿐 친사회적인 대처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윤정숙, 이수정, 2012).

좋은 삶 모형의 성범죄자 치료는 기존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첫째, 개입의 초점은 범죄사실보다 대인관계나 정서조절의 문제점 등 범행에 영향을 미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있다. 대상자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회피 목표(avoidance goals)가 아니라 접근 목표(approach goals) 즉, 범죄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을 권장한다(Yates, Prescott, & Ward, 2010).

둘째, 치료자와 대상자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윤정숙, Marshall, Knight, Sim-Knight, & 이수정, 2012). 재발방지적 접근은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요구한다. 그런데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기억의 왜곡이나 인지적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치료자가 판결문에 의존하여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안정하도록 하는



접근은 특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대상자와 마찰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삶 모형에서는 치료자가 대상자에게 위협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와 연관된 생활양식에 대해 확고하지만 직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를 종합하면, 좋은 삶 모형은 치료자와 대상자의 신뢰 관계 속에서 개인의 범죄 유발 요인들을 탐색하며, 개인이 접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친사회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범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임상심리학 문헌들(예, 수용 전념 치료, 동기강화적인 면담)에서 긍정심리학적 접근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 재범률을 추적하여 치료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좋은 삶 모형에 대한 긍정적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Hanson et al., 2002; Lösel & Schmucker, 2005; Marshall et al., 2011).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성범죄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3년 6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할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 치료적 개입이 강화되었다. 최근까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주관 하에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발 방지와 위험성-육구-반응성 모형 접근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윤정숙, 이수정, 2012), 좋은 삶 모형의 접근은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이다. 따라서 국내의 기존 모형들을 보완한 좋은 삶 모형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 효과를 검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성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적 개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심리 치료적 개입을 선택함에 있어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좋은 삶 모형의 개입이 성범죄 유발요인들과 관련된 심리 영역들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친사회적인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인 심리치료 개입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성범죄에 대한 정의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적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도 성범죄에 포함된다(이수정, 2006). 성범죄는 피해자의 특성 및 가해자의 접촉 유형에 따라 성범죄를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 강간범(rapist)라고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 아동 성학대범(child molester)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는 접촉형과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는 비접촉형 성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 등은 전자에 해당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몰래카메라’), 공연음란(일명 ‘버버리맨’) 등은 후자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범죄의 유형, 형벌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 있다.

### 1.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함과 성적인 욕구는 성범죄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Howitt, 1991a).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으며(Hall & Barongan, 1997). 초기 애착 관계 형성이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공감능력, 특히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공감능력이 떨어지며,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 상황 등에 대해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정, 2006; Carich, NewBauer, & Stone, 2001). 이와 같은 특성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성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Marshall, Marshall, Serran과 O'Brien(2009)은 낮은 자존감이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일탈된 성적 기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은 공감능력의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Marshall, 1993; Cassidy & Shaver, 1999; Rich, 2006).

## 1)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많은 연구들에서 성범죄자의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다(Marshall, 1997; Marshall, Barbaree, & Fernandez, 1995; Marshall, Champagne, Brown, & Miller, 1997; Marshall, Champagne, Sturgeon, & Bryce, 1997; Marshall, Cripps, Anderson, & Cortoni, 1999; Marshall & Mazzucco, 1995). 낮은 자존감은 성범죄자의 사회·정서적 기능의 어려움들 즉, 정서적 외로움, 부적당감,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왜곡 등과 관련이 있으며(Ward & Beech, 2006), 치료에 참여하는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인으로 고려된다(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09).

자존감(self-esteem)의 결핍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Spencer, Josephs과 Steele(1993)은 자존감이 탄력회복성(resiliency)을 강화시키고 결핍되면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자존감은 귀인편향 즉,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는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Blane & Crocker, 1993),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우울(Pelham, 1993), 불안(Heatherton & Ambady, 1993) 등 역기능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존감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과 안정 애착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Bartholomew & Perlman, 1994).



자존감은 Bandura(1977, 1978)가 언급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두 측면으로 구별하였다. 1)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 2) 그런 변화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신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시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의 행동을 기꺼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시도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Tice & Baumeister, 1990). 즉,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필수 촉발요인인 셈이다.

Marshall 등(2009)이 아동 성추행범과 강간범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아동 성추행범의 경우 자존감 점수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강간범의 경우 양봉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들 중 약 1/3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나머지는 아동 성추행범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전자에 속하는 강간범들에 대해 자존감이 높다고 해석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자기 회의(self-doubt)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잘못된 시도의 결과로 보았다. 성범죄자들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을 ‘허세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비현실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강간범들은 자존감 수치가 낮은 집단(대부분 30세 이상)에 비해 좀 더 어린 연령(통상 18~24세)으로 나타났으며, 걸만 번지르르한 자기 과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성범죄자들의 낮은 자존감은 그들이 삶 전반에서 안정적 특징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성 가해행위로 체포되고 기소되고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가해자의 장점 혹은 좋은 점들은 배제된 채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성범죄자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거나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식의 관점이 형성되며,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09).

낮은 자존감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치료적 개입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치심(shame)은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기인하며,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고 행동을 수정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Tangney & Dearing, 2002).

## 2) 인지적 왜곡



‘인지적 왜곡’이라는 개념은 성범죄자들이 흔히 보이는 변명 혹은 무죄를 주장하는 태도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그들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나 형사사법체계를 비난하거나 술에 취한(혹은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혹은 강제성, 폭력, 성적인 침입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가해 행위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거나 피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왜곡된 사고들은 강간범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Marshall & Hambley, 1996). Burt(1980)는 ‘강간신화(rape myth)’라는 개념을 통해 강간에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들을 설명하였다. 성범죄자들은 자연스럽게 강간통념을 학습하게 되고,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탓하거나 ‘그녀는 싫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는 모습을 흔히 드러낸다(Holmes & Holmes, 2002).

그런데 성범죄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 현상을 그들의 의도적인 거짓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Marshall 등이 언급한대로 ‘자신을 덜 비난받게 만듦으로써 원래부터 낮았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작용’으로 사건을 부인, 축소, 합리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범죄자들의 인지적 왜곡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며, 치료자는 이를 그들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Dean, Mann, Milner, & Maruna, 2007; Maruna & Mann, 2006).

### 3) 공감능력의 부족

Ickes(1997)는 ‘공감적 정확도(empathic accuracy)’라는 개념을 통해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고려한 복합적 개념으로 공감을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정확도’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지적 상태를 추론하는 정도를 말한다. 공감은 유익한 행동(예, 공감, 이타주의)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들(예, 공격성, 이기적인 욕심)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행동



양상들의 기초가 된다(Batson, 1991; Eisenberg & Miller, 1987; Hoffman, 1987).

공감적 반응을 표현하는 여부는 개인의 '상황적인 참조 틀(situational frame of reference)'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Batson, 1987; Davis & Kraus, 1997; Fultz, Schaller, & Cialdini, 1988; Strayer, 1993). 통상 우리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악당으로 비취지는 사람에게 공감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특정적인 공감'은 성범죄자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공감적 반응을 하지만 자신의 피해자에게는 공감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Farr, Brown, & Beckett, 2004; Fisher, 1997; Fisher, Beech, & Browne, 1999; Webster & Beech, 2000; Whittaker, Brown, Beckett, & Gerhold, 2006).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람-특정적인 공감 결핍 현상은 앞서 설명한 낮은 자존감 및 인지적 왜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nderson과 Dodgson(2002)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명백한 공감능력의 결핍은 이미 낮은 그들의 자존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전략들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Fernandez와 Marshall 등은 성범죄자들의 자기 사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수치심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며, 그 결과 공감 결핍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Fernandez et al., 1999; Fernandez & Marshall, 2003). Webster와 Beech(2000)의 연구에서도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결핍은 일반적인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왜곡의 양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공감능력은 효율적인 대인관계 기술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assidy & Shaver, 1999; Marshall, 1993; Rich, 2006),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들 및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rlin & Cassidy, 1999; Shaver & Hazan, 1989), 성범죄자들은 친밀감 부족, 고립감의 정도가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rittain 1970; MacClloch Snowden, Wood, & Mills, 1983; Dietz, Blackwell, Daley, & Bentley, 1982; Boss, 1949). Deitz 등(1982)에 의하면, 낮은 공감능력은 성적 가해 행위를 표출할 수 있음을 예측하며, Bates와 Metcalf(2007)는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접근하는 행위가 낮은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 4)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애착 및 친밀감의 문제



성범죄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의 결핍, 외로움을 경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단절감이 스트레스를 촉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유발 시 성을 대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윤정숙, 이수정, 2012; Cortoni, Heil, & Marshall, 1996; Cortoni & Marshall, 1995).

Ward, Hudson, Marshall, 그리고 Siegert(1995)는 성범죄자의 애착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성범죄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애착 유형에서 더 큰 변산성을 보였으며 불안정 애착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ard, Hudson과 Marshall(1996)은 3가지 불안정 애착 유형과 성폭력 행위와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무시형(dismissive type)에 해당되는 사람은 타인에게 적대감을 더 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몰두형(preoccupied type)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길 원하고 애착 관계에 성적 매력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과의 성적 접촉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체형(disorganized type)은 애착 관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강렬한 부정적 감정들을 통제하는 전략들 중 하나로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범죄자의 불안정 애착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종종 파트너의 행동, 감정, 욕구들을 보는 관점에서 심각한 오지각들(예, 인지적 왜곡)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오해시킬 수 있으며(Hoglund & Nicholas, 1995; Lewis, 1992), 분노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Tangney, 1995).

## 5) 성적 강박 및 일탈된 성적 기호

성범죄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일탈적 성적 환상, 각성 및 흥미는 초기 발달 요인, 신경학적 요인, 관찰학습, 모델링, 강화, 성적 각성 혹은 성적 공격성과 관련된 일탈된 성적 자극과의 연합, 그리고 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윤정숙, 이수정, 2012; Abel & Rouleau, 1986; Hanson, 1999; Law & Marshall, 1990; Marshall, et al., 1999; Ward & Beech, 2006; Wilson & Yates, 2005).

그런데 일탈된 성적 각성 자체만으로 성폭력 행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성적 각성이



맥락적, 정서적, 신경학적, 인지적 요인들과 결합될 때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성적 각성과 연합되어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들에는 부정적 정서,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 비동의적(nonconsensual) 성 행위에 대한 성적 선호, 자기-조절 결핍, 과도한 알코올 남용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rbaree, Marshall, Yates, & Lightfoot, 1983; Blader & Marshall, 1989; Johnston, Hudson, & Ward, 1997; Marshall & Barbaree, 1988; Marshall & Darke, 1982; Marshall et al., 1999; McKibben, Proulx, & Lusignan, 1994; Pithers, Beal, Armstrong, & Petty, 1989; Proulx, McKibben, & Lusignan, 1996; Yates, 2003; Ward & Beech, 2006).

## 6) 정서조절의 결함

정서 조절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확인, 통제, 관리하고 정서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유능감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으로(Yates, Goguen, Nichoachuk, Williams, Long, Jeglic, & Martin, 2000; Ward, Yates, & Long, 2006), 정서 조절의 결함은 성폭력 재범 및 비 성적 재범을 예측하는 역동적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Hanson & Morton-Bourgon, 2005; Hanson, Harris, Scott, & Helmus, 2007).

Miner, Day와 Nafpaktits(198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기분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들의 불안감, 죄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들은 일탈적 성적 각성이나 환상과 연관이 있으며(Hanson & Bussière, 1998; McKibben, et al., 1994), 범죄가 발생되는 동안 긍정적·부정적 기분들이 다양한 단계의 성 가해 행위와 어울려 나타난다(Hall & Hirschman, 1991; Johnston & Ward, 1996; Pithers, 1990; Marshall et al., 1995; Ward, Loudon, Hudson, & Marshall, 1995; ). 성범죄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전제조건 모형(Finkelher, 1984)이나 순환 모형(Wolf, 1984)에서도 성범죄자들은 범행 전후에 분노감,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이 성적 일탈이나 인지적 왜곡 등과 결합되어 성가해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 2. 성범죄자 재범 위험 요인들



성범죄자에게 심리치료적 개입을 하는 이유는 재범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폭력 재범 위험 요인은 정적 위험 요인(static risk factor)과 역동적 위험 요인(dynamic risk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위험 요인이란 변화가 불가능한 과거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로 발생하는 위험 정도의 감소와 같은 사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Craig, Browne와 Stringer(2003a)는 발달적 측면, 일탈적 성적 측면, 범죄관련 측면, 임상적 측면에서의 정적 위험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발달적 측면에서는 청소년기 성 비행, 가정환경, 성 학대 피해경험의 유무, 일탈적 성적 측면에서는 남자 피해자, 성도착, 친족외의 피해자 여부, 범죄관련 측면에서는 범죄전과, 성범죄전과, 폭력전과, 수용 기간, 비접촉 성 가해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수, 임상적 측면으로는 연령, 지능, 결혼 상태, 치료 중단, PCL-R1)에 의한 정신병질(psychopath) 확정 등이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 WaKeling, Freedmantel, Beech와 Elliott(2011)는 영국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교정 장면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치료를 받은 3,773명의 성폭력 및 폭력 재범을 예측하는 정적 요인과 역동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강력한 재범 예측인자들은 석방 시 연령, 성범죄 횟수, 범죄 횟수 등의 정적 위험성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강도나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역동적 위험 요인은 개입을 통해 변화 가능한 재범위험 요소를 말하며, 안정적 요인(stable factor)과 급성 요인(acute factor)으로 세분된다. 안정적 요인이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변화 가능한 요인들(예, 성적 흥미 혹은 신념 체계)을 말하며, 급성 요인은 기분 변화 등 단기간에 변화 가능한 특성으로 더 즉각적인 재범 위험 요소들(예, 알코올 남용, 실직)을 포함한다.

Hanson과 Harris(2000, 2001)는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평균 4~5년 이후의 재범여부를 추적조사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역동적 위험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Thornton(2002)은 중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158명의 성범죄자들의 범죄 관련 자료와 심리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역동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적 흥미 및 성적 자기 조절(sexual interests/sexual self-regulation), 왜곡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내성

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Psychopathy Checklist-Rivsed: Hare, 1991)** 캐나다의 Dr. Hare가 정신병질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기법,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범죄자 및 상습범죄자의 재범예측과 높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distorted attitudes/attitudes tolerant of sexual offending), 사회·정서적 기능 및 친밀감 결핍(socio-affective functioning/intimacy deficits), 자기 관리 및 자기 조절 문제(self-management/self-regulation problems) 등 4가지 영역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적 흥미 및 성적 자기 조절 영역은 성적 흥미의 방향성과 강도와 관련되는데, 성적 몰두, 성적 자기조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편향된 성적 흥미는 성폭력 재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raig, Browne, Stringer, & Beech, 2005; Hanson & Bussière, 1998), Hanson과 Bussière(1998)의 연구에서 역동적 위험성 평가의 메타분석(meta analysis) 결과 특히 음경 측정으로 밝혀진 아동에 대한 성적 흥미( $r_+ = .32$ , 95% CI = .10~.24)가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둘째, 왜곡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내성 영역은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만드는 가해 행위에 대한 신념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신념은 여러 논문에서 지지되고 있으며(Hamilton & Yee, 1990; Malamuth, 1981; Rich, 2003) Hanson 등(2005)의 연구에서 부인 및 축소는 성폭력 재범률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반면 성범죄에 대한 내성, 즉 강간통념 등 일반적인 태도가 재범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사회·정서적 기능 및 친밀감 결핍 영역은 타인과 관계 맺기,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동기화된 정서와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서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가 가해행위의 촉발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낮은 자존감, 외로움, 외부 통제소재 요인은 아동 성범죄자를 다른 성범죄자와 구별지어주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Blane & Crocker, 1993; Heatherton & Ambady, 1993; Kernis et al., 1989; Pelham, 1993). Craig, Thornton, Beech, 그리고 Browne(2007)은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사회·정서적 기능의 최소 4가지 측면이 성폭력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1)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부적당감(inadequacy), 2) 아동에 대한 정서적 일치성, 3) 성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부족, 4) 공격적인 사고(aggressive thinking)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자기 관리 및 자기 조절 문제 영역은 계획하기, 문제해결, 재범을 유발하는 역기능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 있는데, 반사회적 행동과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충동성은 성폭력 재범의 촉발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PCL-R 2요인의 구성 요인들)이 성폭력 재범률 예측 인자로 밝혀졌다(Thornton, 2007).

---

2) PCL-R은 [요인 1 - 대인관계/정서]와 [요인 2 - 사회적 일탈]로 나뉘는데, [요인 2]는 ‘정서성’





Hanson과 Morton-Bourgon(2004)은 역동적 위험성 평가 도구들로 측정된 성인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한 95건의 논문들(가해 유형이 혼합된 형태 84건, 아동 성학대 8건, 강간 2건, 노출증 1건)에 대해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강력한 성범죄 재범 예측 변인은 성적 일탈성( $d = .30$ )과 반사회적 성향( $d = .23$ )으로 밝혀졌고, '성에 대한 태도', '친밀감 결핍'도 유의미한 재범예측 변인이었으나, '공감능력 부족', '성범죄를 부인 혹은 축소하는 태도', '치료에 대한 동기 부족' 변인은 재범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akeli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치료 프로그램의 사회·정서적 영역(예, 정서적 외로움, 낮은 자존감, 부적절한 대처기술 등) 관련 사전 심리평가 점수들이 역동적 위험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 3. 성범죄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 모형

Ward와 Hudson(1998)은 자기 조절 모형(self-regulation model)을 통해 성 가해 행위에 대한 4가지 경로 모형을 제안하였다.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은 복잡한 목표 지향적 행동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이다(Baumeister & Heatherton, 1996; Baumeister & Vohs, 2004). 이 이론은 행동을 지시하는 수많은 내적·외적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행동 계획 세우기, 감찰, 평가, 수정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자기 조절이 실패했거나 개인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경우의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한다.

성폭력에 대한 자기조절 모형(Revised self-regulation model, SRM)은 자기 조절 이론(Baumeister & Heatherington, 1996; Carver & Scheier, 1981, 1998)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성 가해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Ward et al., 1995, 2004; Ward & Hudson, 1998; Yates, 2005, 2007; Yates & Kingston, 2005). 이 모형은 재발 방지 모형에서 재범 과정을 설명하는 범주를 확장하여, 성범죄자의 특별한 동기 및 성폭력이 진

---

과 '반사회성' 단면으로 분류된다. '정서성'에는 후회 혹은 죄책감의 결여, 얕은 감정,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낌, 여러 번의 단기 혼인 관계 항목이 포함되며, '반사회성'은 행동 통제력 부족, 어릴 때 문제 행동, 청소년 비행, 조건부 가석방 혹은 유예의 취소, 다양한 범죄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되는 경로 방식에 대한 가설을 제안하였다.

Yates와 Ward(2008)는 성 가해 관련 목표들이 결합된 4개의 가해 경로들과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성범죄자들의 자기 조절 유형을 under-regulation, mis-regulation, intact self-regulation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under-regulation은 행동 통제에 실패하는 자기-조절 양식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탈 억제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유발한다. 둘째, mis-regulation은 행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잘못 판단하거나 역효과를 낳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고,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잃게 된다. 셋째, intact self-regulation은 자기 통제 면에서 보면 역기능적이지 않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효율적인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목표(예, 반사회적 도식 혹은 신념들)에 문제가 많아 개입이 필요하다(Baumeister & Heatherton, 1996; Carver & Scheier, 1990; Ward et al., 2006; Ward & Hudson, 1998; Yates & Kingston, 2005).

자기 조절 모형에서 성 가해 관련 목표들을 회피형과 접근형으로 구분하고 있다(Cochran & Tesser, 1996). 가해 관련 회피 목표들(Offense-related avoidance goals)은 성폭력 과정을 통해 개인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거나 막을 수 있을만한 행동들과 관련되며, 가해 관련 접근 목표들(Offense-related approach goals)은 가해가 진행되는 동안 원하는 상태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성 가해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동적 혹은 능동적인 전략을 사용하는데, 수동적 전략들(Passive strategies)이란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그 어떤 전략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반면, 능동적 전략들(Active strategies)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가해행위와 연합된 강렬한 기분 상태를 주체하지 못하여, 능동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들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Yates와 Ward(2008)는 앞서 설명한 3가지 자기 조절 양식, 가해 관련 목표들과 전략들을 조합하여 4가지 가해 경로(offense pathway)를 제안하였다; 1) 회피-수동적 경로, 2) 회피-능동적 경로, 3) 접근-자동적 경로, 4) 접근-명시적 경로.

첫째, 회피-수동적 경로(Avoidant-Passive Pathway)는 under-regulation과 관련된 경로로써, 개인은 성범죄를 막고 싶지만 자기조절능력이 빈약하여 가해 행위를 중단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행동 통제에 실패하게 된다.

둘째, 회피-능동적 경로(Avoidant-Active Pathway)는 mis-regulation과 관련된 것으로



로, 성범죄를 방지하길 원하지만, 충동이나 각성을 억압하려고 능동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유형이다. 기분을 다스리기 위해 약물 사용을 하거나 포르노그래피를 활용하는 식의 전략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이런 전략들은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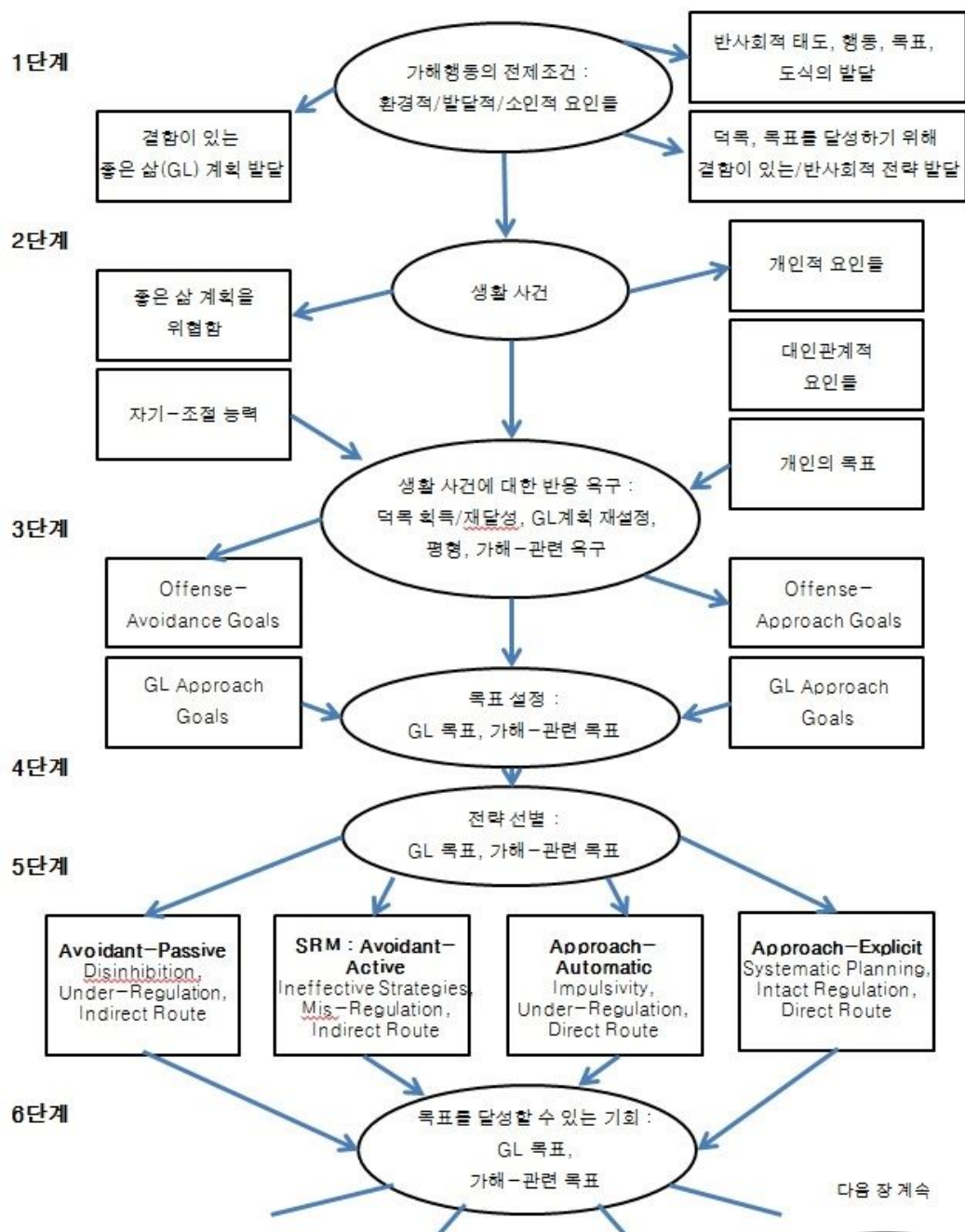
셋째, 접근-자동적 경로(Approach-Automatic Pathway)는 under-regulation과 관련된 경로이며, 개인은 범죄행위를 피하려하지 않고 가해행위에 대한 욕구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탈 억제되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순간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단서나 촉발요인에 의해 범행을 하기 쉬우며 충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설령 사전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하고 세련되지 못하다. 부정적 감정들이 생기면 이런 기분 상태들이 불만, 적대감, 보복심, 분노 등과 연결되며, 대상자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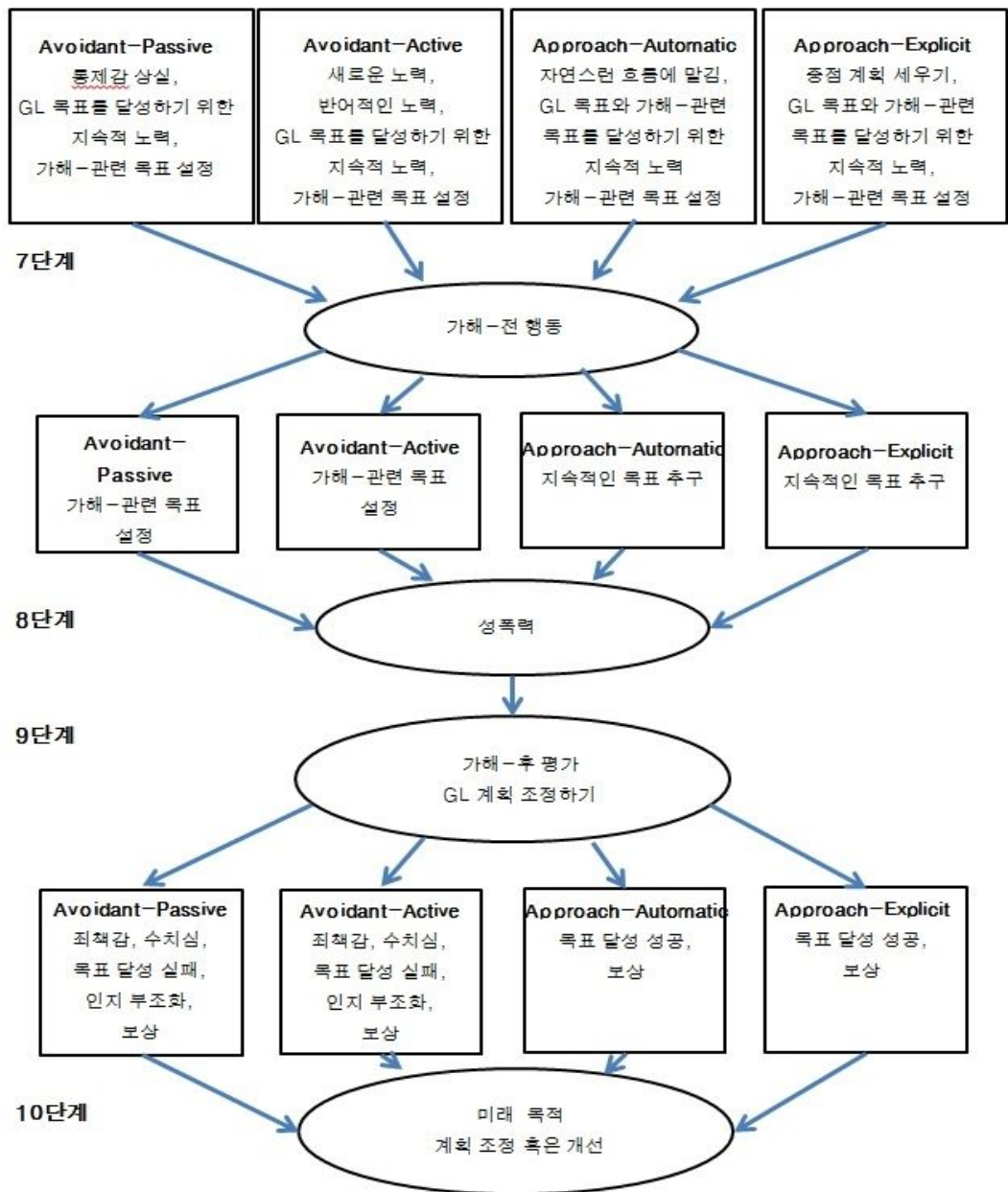
넷째, 접근-명시적 경로(Approach-Explicit Pathway)는 intact-regulation에 해당되는 경로이며, 이들 역시 범행을 원한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감찰, 평가, 수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즉, 성범죄는 반사회적 목표를 얻기 위한 명백하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시도의 결과이다. 이들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범행에 활용되는 전략들은 정교화 되어 있다. 가해 행위 중 인지 부조화와 탈 억제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들은 “전문가”인 것처럼 보인다(Ward & Hudson, 1998).

#### 4.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흐름

서구에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현대적 접근이 출현한 것은 1960년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행동주의 영향으로 성적 일탈성이 과거 성적 일탈 행동에 대해 보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범죄자 치료에서 일탈적인 성적 관심만 소거하면 바람직한 성적 행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Marshall(1971)은 일탈적 성적 행동이 소거된다고 해도 바람직한 성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성범죄자는 여전히 치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친사회적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윤정숙 등, 2012).







[그림 1] SRM에서 설명하는 성폭력 발생 과정 10단계(Yates & Ward, 2008)



1980년대에 이르러 약물남용 혹은 중독치료에서 활용하는 재발방지 모형(relapse prevention model)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한 모형이 개발되었고, 1990년대에는 Andrews와 Bonta(1998)가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형(risk-need-responsivity principle)을 교정심리치료의 원칙으로 주창하였고, 이후 오랫동안 위험성, 욕구, 반응성 원칙을 반영한 재발방지 모형의 접근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골격을 이뤘다.

성범죄자 치료에서의 좋은 삶 모형(good lives model)은 Ward와 Stewart(2003)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Ward와 동료들(Ward & Gannon, 2006; Ward & Marshall, 2004)의 노력으로 틀을 갖추게 되었다. 좋은 삶 모형은 가해자들이 균형 있고 친사회적인 자기 정체감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긍정심리학적 견해에서 기존의 모형들을 통합하고, 접근 목표(approach goals) 즉, 친사회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대상자의 내적·외적 조건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개입한다(Ward & Gannon, 2006; Ward & Marshall, 2004). 각 이론적 모형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 재발방지 모형

1980년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등장한 재발방지 모형(relapse prevention model, RP)이 성범죄자 심리치료에 접목되어 발전되었다. 재발방지 모형에서의 절제 상태는 성적인 학대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범죄와 관련 있는 사소한 결정이 범죄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재범의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대상자가 성범죄가 일어날만한 장소에 가거나 과거 일탈적 습관의 일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만취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소한 결정을 통해 재범 고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수 및 재범으로 발전하게 된다(송원영, 2006).

재발방지 모형의 개입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개방하고, 범행을 유발한 전조요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개별적인 재범 위험 상황, 사람, 감정, 사고 등을 확인하고,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앞으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Marques, Day, & Nelson, 1992). 이런 접근은 대상자들이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의 위험 요인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범행에 대한 기억의 왜곡 등으로 사건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인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을 경험하였거나 범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사건 설명에 거부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치료자는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범행 개방을 유도하며 필요에 따라 직면이나 해석과 같은 상담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치료자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거나 압박감 혹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재발방지 모형을 활용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엇갈리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재발방지 모형과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형을 접목한 영국의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인 The Thames Valley Sex Offender Groupwork Programme(TVSOGP)를 이수한 성범죄자 189명의 재범률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Bates, Falshaw, Corbett, Patel, & Friendship, 2004) 3.9년 후의 재범률이 5.5%로 나타났다. 이는 Beckett 등(1994)의 STEP 보고에서 치료를 이수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2년 후 5%, 6년 후 15%에 이른 수치와 비교할 때(Beech, Erickson, Friendship, & Ditchfield, 2001), 상당히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Margues, Nelson, Alarcon과 Day(2000)는 재발방지 모형을 적용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OTEP(Sex Offender Treatment and Evaluation Project)의 효과 연구에서, 비교집단으로 재발방지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무선헌당으로 선정한 후 재범률을 추적하였다. SOTEP는 1985년에 시작하여 1995년에 종료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완수한 사람들, 중도탈락자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위 세 집단의 재범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윤정숙, 이수정, 2012).

## 2)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Risk-Need-Responsivity, RNR)은 범죄학자 Andrews와 Bonta가 제안한 것으로(1998), 현재까지 교정 체계의 이론적 틀의 핵심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해자 재발·치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Polaschek, 2012). 이 모형은 재범 감소라는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재범 위험성, 대상자의 욕구,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정 처우



의 원칙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재발방지 모형, 좋은 삶 모형 등 치료 기법이 상이하더라도, 치료자는 RNR 원칙을 고려해서 개입의 강도, 기간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원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위험성(Risk) 원칙은 교정 치료에 있어서 그들의 위험성, 즉 ‘재범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치료 장면에서 개인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Andrews & Dowden, 2006; Friendship, Mann, & Beech, 2003), 개입을 통해 개인의 위험성 정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Andrews & Bonta, 1998).

둘째, 욕구(Need) 원칙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대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의 경우 성적 일탈성에 대한 만족, 스트레스에 대한 반사회적 대처, 지루함과 자극 추구경향에서 오는 일탈 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범죄 발생 욕구의 상당 부분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동적 위험요인과 연결되어 치료의 목표 영역이 된다.

셋째, 반응성(Responsivity) 원칙은 개입 시 대상자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매뉴얼에 제시되는 내용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다양한 반응을 야기 하며 어떤 치료자가 어떻게 개입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와 치료자 개인의 능력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Harkins & Beech, 2007). 성범죄자의 반응성 요인에는 개인의 학습 스타일, 학습 능력, 성별, 치료에 대한 동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등이 있으며, 이 중 치료에 대한 동기 부여가 중요한 반응성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Beech & Fisher, 2002; Tierney & McCabe, 2002). Hanson과 Bussière가 성범죄자의 재범과 관련된 61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1998). 그 결과 연령( $r_+ = -.13$ ), 동종범죄력( $r_+ = .19$ ), 성범죄를 제외한 과거 범죄력( $r_+ = .13$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r_+ = -.30$ ), 강간( $r_+ = .07$ ), 치료프로그램 탈락( $r_+ = .17$ ), 심각한 정신과적 장애( $r_+ = .25$ ) 등이 유의미한 재범 예측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위험성 원칙은 어떤 대상(Who)을 치료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욕구 원칙은 치료 장면에서 어떤 주제(What)를 다뤄야하는지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반응성 원칙은 대상자의 동기 부여 및 변화를 위해 어떻게(How)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려하는데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윤정숙 등, 2012).





### 3) 좋은 삶 모형

좋은 삶 모형(Good Live Model, GLM)은 범죄자들의 재활치료에 대한 최신 접근법으로(Laws & Ward, 2011; Ward, 2002; Ward & Stewart, 2003), 긍정심리학(Seligman, 2003) 및 동기강화이론(Miller & Rollnick, 2002) 등에 영향을 받았으며, 기본적으로 인지행동치료의 형식을 취한다. 이 모형에서 범죄행동은 좋은 삶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으로 가정하며, 범죄자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법 등을 알아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 태도, 자기 신념 등을 갖는다면 범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치료 개입 과정에서 단순히 위험요인을 관리하거나 결함을 없애기보다 내담자의 강점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개입을 통해 위험요인들을 관리한다.

좋은 삶 모형의 가정, 치료의 방향성 등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며, 여기서는 Ward, Yates, 그리고 Willis(2012)가 설명한 기존 모형들과의 차이점 및 강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좋은 삶 모형은 가해자의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재활 과정에 가치를 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는 대상자들이 변화 과정에 참여하는 동기를 증진시킨다.

둘째, 좋은 삶 모형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요인들 뿐 아니라 대상자의 총체적인 삶을 고려한다. 이 부분이 기존 모형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인데, 재발 방지 모형 등의 치료적 개입은 단순히 범죄 행위를 대체할 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 행위를 일과 여가 분야의 일상적인(그러나 대상자들이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활동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Andrews, Bonta, & Ubrmith., 2011). 이와 달리 좋은 삶 모형에서는 대상자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예, 즐거움, 혹은 쉽게 돈 벌기), 그것이 개인에게 중요한 이유를 탐색한다. 그런 다음 대상자들이 가해 행위 없이 그런 목표들을 획득할 수 있는 내적·외적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대처 활동을 찾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변화에 대한 동기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Mann, Webster, Schofield와 Marshall(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에게 회피 목표보다 접근 목표를 개발하도록 개입했을 경우, 이들의 치료 참여도가 더 높았고 프로그램 기간 중 숙제를 완수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셋째, 좋은 삶 모형에서는 대상자들의 범죄 유발 요인들, 일차적 덕목들, 그리고 내현



적 혹은 외현적인 좋은 삶 계획이 어떻게 관련을 짓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은 대상자들이 직업적, 교육적, 치료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좋은 삶 모형은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 인지 행동적 개입, 동기 강화 등을 포함하여 현재 존재하는 실천 원리들을 강화한 모형이다.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기존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재활 이론들을 통합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가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점 요인들까지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Lösel(2010)은 성범죄자들이 친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가지 보호 요인을 확인하였다; 1) 최소 한 명과 안정적인 정서적 관계, 2) 교육적 맥락에서 적절한 수용과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 3) 적절한 사회적 지원, 4) 적응적인 대처기술을 독려하는 환경, 5) 적절한 사회적 책임감 수준, 6) 적절한 인지적 능력(예, 미래 계획 세우기), 7) 순한 기질과 자아 탄력성, 8) 자기-확신감이나 적절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 9)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경향, 10)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험.

요약하면, 좋은 삶 모형은 강점 기반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이론적 모형들의 체계를 확장·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Law & Ward, 2011; Ward & Maruna, 2007; Yates, 2007; Yates & Ward, 2007). 재발 방지 모형에서 다루는 범죄 유발 요인 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일차적 덕목, 강점 등을 고려하는 개입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변화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삶 모형은 치료의 가정 및 과정에서 위험성, 욕구, 반응성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으며(Grannon, King, Miles, Lockerbie, & Willis, 2011; Simons, McCullar, & Tyler, 2006), 자기조절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의 개입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Lindsay, Ward, Morgan, & Wilson, 2007; Ward & Gannon, 2006).

#### 4) 성범죄자 치료 모형들의 적용

성범죄자 치료를 위해 어떤 이론적 모형을 사용했는지 간에 실질적 치료 방법은 인지 행동 치료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윤정숙 등, 2012; Hanson et al., 2002; Lösel & Schmucker, 2005). 인지 행동적 개입의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효



울적으로 해결할 때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즉, 대상자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Hanson, 1999; Hanson & Yates, 2004; Yates et al., 2003).

성범죄자 치료 방식에 따른 재범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방법들 중 인지 행동치료 방식이 재범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os, Miller, & Drake, 2006; Hanson et al., 2002; Lose1 & Schmucker, 2005), 정신분석, 통찰-지향적 치료, 행동치료는 재범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Aos, Miller, & Drake, 2006). 영국의 New South Wales 교정국에서 인지 행동 치료적 방식을 활용한 성인 남성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Static-99이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risk band analysis를 실시하였다(Woodrow & Bright, 2011). 치료를 받고 출소한 117명의 대상자들의 평균 3.75년 이후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관찰된 성범죄 재범률은 Static-99으로 예측된 재범률보다 더 낮았으며, 폭력 재범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Static-99에 의해 분류된 위험성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도 관찰된 성폭력 및 폭력 재범률은 예측된 재범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인지 행동치료 방식을 적용할 때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련 연구에 의하면(Beech & Fordham, 1997; Marshall, 2005; Serran, Fernandez, & Marshall, 2003; Simons, Tyler, & Lins, 2006), 1) 집단 치료, 2) 높은 치료 강도, 3) 치료 기간, 4) 통합적 접근, 5)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 6) 치료과정 참여를 격려하는 보상물 등이 유의미한 변인들로 밝혀졌다.

## 5.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삶 모형의 적용

좋은 삶 모형은 인지 행동 치료처럼 특수하고 실천 증거기반적인 개입에 기반을 두고 재활치료의 체계를 신중하게 제시하였다(Ward & Maruna, 2007; Yates & Ward, 2008). 이 모형은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적 태도나 기질을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개인에게 의미 있고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개



입한다.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 ‘재활(rehabilitation)’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Law & Ward, 2011; Lösel, 2010; Ward & Laws, 2010). 성공적인 재활이 되려면 발생 가능한 부정적 결과들을 감소시키고 관리하고 감찰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Ward와 Maruna(2007)에 의하면, 치료자는 대상자들이 더 나은 혹은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확인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그들의 내적(예, 태도, 신념, 지식, 기술 등)·외적(예, 사회적 자원, 친밀한 관계 형성, 교육/훈련, 직업, 여가 활동 등) 자원들을 갖추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여기서 좋은 삶이란 ‘어떤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well-being)을 목표로 삼고 이를 성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는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 1) 일반적 가정

좋은 삶 모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Ward & Syversen, 2009), 특히 인간성(human agency, 예, 자율성)을 강조하며, 성범죄자 치료적 개입에 긍정심리학적 입장을 취한다(Ward & Mann, 2004). 좋은 삶 모형에 의하면, 범죄자들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 상태, 개인의 성격, 경험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를 ‘일차적 덕목(primary human goods)’이라고 한다.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 인류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Ward와 동료들이 11가지 일차적 덕목을 제안하였다. : 1) 삶(건강하고 기능적인 삶), 2) 지식, 3) 여가활동, 4) 직업(숙달감 경험 등), 5) 주체성(자율성, 자기-주도성), 6) 내적 평화(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움), 7) 관계성(친밀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8) 지역사회, 9) 영성(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폭넓은 의미), 10) 행복감, 11) 창조성. 모든 사람들은 생의 일차적 덕목들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어떤 특정한 덕목에 우선권 혹은 비중을 두느냐는 개인의 특수한 가치 혹은 삶의 우선사항에 달려있다(Law & Ward, 2011).

도구적 혹은 이차적 덕목들(instrumental or secondary goods)은 일차적 덕목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이 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좋은 삶 모형에서 개인의 범죄 유발 욕구들은 이차적 덕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관계성 덕목을 달성하기 위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혹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여 ‘내적 평화’라는 일차적 덕목을 충족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도구적 혹은



이차적 덕목의 예시가 될 뿐 아니라 역동적 위험 요인들에 해당되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 유발 욕구들은 무해한 방식으로 일차적 덕목들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좋은 삶 모형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핵심 가치들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며, 개인의 좋은 삶 계획(good life plan, GLP)을 따라간다고 가정한다. 가해 행위들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일차적 덕목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좋은 삶 계획의 결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함들은 일차적 덕목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하는 활동이나 수단인 이차적 덕목에서의 문제들과도 연관되어 있다(Ward & Cannon, 2006; Ward & Maruna, 2007; Ward, Yates, & Long, 2006).

범죄 유발 욕구들은 좋은 삶 모형에서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차적 덕목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지향성, 역동적 위험 요인, 혹은 일반 범죄, 폭력 범죄, 성범죄 재범률과 관련된 역동적 위험 요인들은(Hanson & Morton-Bourgon, 2005)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게 함으로써 자율성 덕목을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성폭력, 폭력, 일반범죄의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빈약한 정서 조절 역시 내적 평화 덕목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좋은 삶 모형의 치료적 개입은 대상자들이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차적 덕목들을 획득하고, 좋은 삶 계획 결함들을 극복하며, 재범의 위험을 감소할 뿐 아니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 2) 좋은 삶 모형의 특징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 감소시키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이 목표가 매우 중요하고 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대상자들이 치료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특히 대상자들의 결점과 위험요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동기부여는 더욱 힘들다(Ward, Melser, & Yates, 2007; Yates, 2009).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동기가 매우 낮다. 재발방지 모형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부분 중 하나가 높은 프로그램 탈락률에 대한 문제인데(Mann, 2000; Ward & Maruna, 2007). 탈락률이 30~5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Browne, Foreman,



& Middleton, 1998; Moore, Bergman, & Knox, 1999; Ware & Bright, 2008). 치료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대상자들은 치료를 이수한 대상자들보다 재범률이 높으며(Hanson et al., 2002; Marques, Wiederanders, Day, Nelson, & van Ommeren, 2005),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도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son et al., 2002). Olver, Stockdale, 그리고 Wormith(2011)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탈락과 재범률의 예측 변인들에 대해 Meta-Analysis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연령( $r_w = -.10$ ), 범죄관련 변인들 중 과거 가해행위( $r_w = .14$ ), 반사회적 성격( $r_w = .14$ ), 심리학적 변인들 중 지능( $r_w = -.14$ ), 치료 관련 태도들과 행동 변인들 중 동기( $r_w = -.13$ )가 유의미한 변인들로 밝혀졌다. 치료를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재범위험성이 더 높으며, 모든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탈락은 이후의 재범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r_w = .08 \sim .23$ ). Marshall 등(2011)의 연구에서 좋은 삶 모형의 치료에 참여한 모든 성범죄자들 중 3.8%만이 치료를 거부했으며, 치료에 참여한 사람들 중 4.2%만이 탈락하는 등 치료를 완수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재발방지 모형 접근의 탈락률에 비해 명백하게 낮은 수치이며, 좋은 삶 모형이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정숙 등, 2012).

Ward 등(2007)에 의하면, 대상자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 범죄유발 요인들, 즉 범죄를 유발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요인들(예, 낮은 자존감, 심리적 불편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입이 대상자의 치료 참여 수준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특수한 범죄유발 요인들을 다루기 전에 치료적 동맹을 강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Ward & Stewart, 2003). 예를 들면, 대상자는 치료자와 자신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다루게 되면 치료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관심을 가져준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기꺼이 협력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Ward & Maruna, 2007).

좋은 삶 모형은 치료의 도입 단계에서 대상자들이 삶의 문제들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가해가 없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주제들로 치료의 틀을 형성함으로써(Yates, Prescott, & Ward, 2011; Yates et al., 2010), 대상자들의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를 증진시킨다. Simons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재발방지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좋은 삶 모형을 활용하였을 때 치료를 이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며, Gannon 등(2011)이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삶 모형 치료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상자들이 치료를 완료한 결과를 보였다.



좋은 삶 모형의 또 다른 특징은 재발방지 모형과 달리 접근적 목표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치료는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 관계에서 친밀감을 쌓는 것,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우는 것 등과 같은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회피적 목표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치료적 방향이 부정적이고, 목표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상당한 인지적 자원이 필요하며 이런 자원을 얻기가 쉽지 않다. 회피적 목표들이 실패,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상된 자기-조절, 더 높은 수준의 심리학적 불편감 등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Austin & Vancouver, 1996; Emmons, 1999; Wegner, 1994). 접근적 목표들은 획득 및 유지하기가 수월하고 긍정적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Carver & Scheier, 1990). 성범죄자 치료에서 접근적 목표에 초점을 둔 개입은 회피적 목표를 강조하는 개입에 비해 대상자의 치료 참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 1998; Mann et al., 2004).

그런데,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고 치료의 효과를 결정짓는데 치료자의 특성은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Beech & Frodham, 1997; Morgan, Luborsky, Crits-Christoph, Curtis, & Solomon, 1982).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친사회적 행동과 태도는 내담자에게 모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치료자는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치료 초기 단계의 대상자는 사건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밀어붙이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대상자의 자존감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윤정숙 등, 2012; DiClemente, 1991). Marshall과 동료들에 의하면(Marshall, Serran, Fernandez, Mulloy, Mann, & Thornton., 2003; Serran, Fernandez, Marshall, & Mann, 2003), 대립적인 치료 스타일은 태도 및 행동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감, 온정, 진실성, 지지, 격려, 지도성, 융통성 등의 치료자 특성이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좋은 삶 모형에서는 치료자가 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불러 넣으며, 대상자와 협력적인 관계에서 그가 좋은 삶을 가꾸기 위한 접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윤정숙 등, 2012; Fernandez, 2006).

### 3) 좋은 삶 모형의 적용

좋은 삶 모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서구의 경우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과 재발 방지



모형 등에 근간하여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좋은 삶 모형의 접근으로 대체 혹은 흡수되어 확장된 형식으로 발전하거나, 기존의 치료 주제들을 좋은 삶 모형에서 제시하는 개념들로 전환시켜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Willis, Prescott와 Yates(2013)는 기존의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혹은 재발방지 모형)에서 다루는 치료 주제들이 좋은 삶 모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표 1] RNR 치료 요소들과 연결된 GLM 구성 개념/일반적인 삶의 목표

RNR 치료 요소	GLM 구성개념 / 일반적인 삶의 목표
자서전	좋은 삶 계획(과거와 현재)
가해 과정	지식, 좋은 삶 계획(과거와 현재)
인지/문제해결	지식,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 내적 평가, 관계성과 우정
관계성/친밀감 결핍	관계성과 우정: 지역사회
성적 자기 조절	행복감, 내적 평화, 관계성과 우정
일반적인 자기 조절	내적 평화,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
정서 조절	내적 평화,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
재발 방지 계획	통합된 좋은 삶/자기 조절/위험 관리 계획(현재와 미래 지향적)

Marshall과 Marshall(2012)은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 인지 행동 치료, 치료자 변수를 강조하는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치료의 목표들은 자존감, 인지적 왜곡, 인생사 설명, 범죄의 경로, 일반적인 공감능력과 구체적인 공감능력, 대처와 기분 관리, 대인관계 기술, 성적 이슈들, 자기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개입 방식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사회 학습적 접근을 바탕으로 만든 기술-중심적(skill-oriented) 접근을 사용하며, 프로그램의 모든 목표들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기술들과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 주제를 다룰 때, 치료자는 대상자들에게 사교적이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자기-진술을 반복하며, 보상받을만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칭찬하는 언어적 행동을 하는 등 행동 표현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이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자기 도식(self-schemas)을 변화시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자기-도식의 향상은 나아가 정서적 자기-조절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고 한다.

Yates와 Ward(2008)는 기존의 모형들을 통합한 좋은 삶 모형의 개입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에 따른 평가, 자기 조절 경로(Self-Regulation Pathway), 일차적·이차적 덕목, 덕목들과 성폭력 행위와의 관련성, 개인별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입한다. 둘째, 대상자의 정적 혹은 역동적 위험 요인들의 수준에 따라 치료 강도를 정교화 한다. 예를 들면 재범 위험성이 중·상으로 평가된 대상자들은 위험성이 낮은 집단과 분리하여 개입한다. 셋째, 치료 과정은 대상자들이 치료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즉 대상자의 반응성 원칙을 고려하여 개입한다. 넷째, 치료적 접근은 좋은 삶 모형의 형식으로, 접근적 목표, 행복(well-being) 및 자기-조절 획득과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일탈된 성적 흥미, 친밀감 결핍, 일반적/성적 자기-조절 등 알려진 위험 요인들을 치료 목표로 삼는다. 다섯째, 성폭력 행위에 대한 자기 조절 경로 양식에 따라 다르게 개입한다. 여섯째,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중요한 덕목과 목표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국의 N-SOGP(the Northumbria Sex Offender Groupwork Program)는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을 좋은 삶 모형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N-SOGP는 12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으로, 두 단계에 걸쳐 총 180시간 동안 치료 개입을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모듈과 관련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상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공감, 문제 해결, 인지적 왜곡 등을 다룬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 재발 방지 모듈이었으나 최근 좋은 삶 모듈로 대체되었다. 이 모듈은 3단계로 나뉘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대상자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의 수레바퀴(wheel of life)’를 활용하여 좋은 삶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자들이 친사회적 방식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 기술들에 집중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료를 통해 획득한 변화들을 유지하고 미래의 목표와 주제들을 공식화하는 좋은 삶 계획을 설정한다(Harkins, Flak, Beech, & Woodhams, 2012).

## 6.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북미권 등 서구에서는 교정 단계에서부터 출소 후 지역사회까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입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개입 전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거쳐 치료의 강도 및 기간을 결정한다. 1980년 이후 재발 방지 모형과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을 근간으로 치료 주제를 설정하고 인지 행동 치료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식이 유지되어 오다 2000년대에 이르러 좋은 삶 모형의 접근을 지지하는 연구자들(Marshall, Ward, Yates 등)이 활동하는 북미권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강점 기반 접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Marshall 등이 캐나다 교정국 내 교도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은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하여 동기-강화적이고 성범죄자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11). 재발방지 모형과 달리, 과거 범행의 세부사항을 다루지 않으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 평균 5.4년의 재범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비 치료 집단의 동종 재범률이 16.8%에 이르는 반면, 치료집단의 재범률은 3.2%에 그쳤다. 8.4년 추적 조사에서 비 치료집단 23.8%, 치료집단 5.6%로, 집단 간 재범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Marshall et al. 2012). Hanson 등이 실시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강점을 기반으로 한 Marshall 등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치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Hanson et al., 2002; Lösel & Schmucker, 2005).

Barnett와 동료들(Barnett, Manderville-Norden, & Rakestrow, 2014)은 영국의 보호관찰소에서 전통적인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받은 성범죄자 집단과 좋은 삶 모형을 기반으로 둔 프로그램을 받은 성범죄자 집단의 치료 후 범죄 관련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자기 조절 영역에서 심리 측정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성범죄자들은 2007년 3월부터 2년 동안 CSOG(the Community Sex Offender Groupwork)와 TVSOP(the Thames Valley Sex Offender Groupwork)에서 재발방지 모형 혹은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연구진은 th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NOMS)에서 관리하고 있는 523명의 대상자(CSOG의 RP 집단 163명과 GLM 집단 105명, TVSOG의 RP 집단 158명과 GLM 집단 97명)에 대한 프로그램 사전/사후 심리측정 결과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자들의 사후평가에서 치료를 통한 변화의 정도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chi-square 분석 결과,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비록 치료 전 단계에서 재발방지 치료 집단보다 역기능적인 수준이 더 높았다 하더라도, 사후평가의 심리측정에서 비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치료된 프로파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Kia Marama 성폭력범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1989)은 성범죄자들만 수



용되어 있는 특수 교정시설 내에서 형기를 거의 마친 아동 성학대 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발 방지 모형과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좋은 삶 모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Willis와 Ward(2011)는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Kia Marama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한 아동 성학대범들이 일상생활에서 좋은 삶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2008년 6월에서 12월 사이 출소한 16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출소 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해당될 때 좋은 삶의 개념화를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일차적 덕목 중 성취감, 독립성, 관계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좋은 삶 평정 점수와 재사회화 점수(예,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 사회적 지지, 고용)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6개월 후 좋은 삶 평정 점수는 출소 3개월 후의 재사회화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r = .56, p < .05$ ), 출소 1개월 후의 재사회화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효과 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50, ns$ ). 즉, 대상자들이 일차적 덕목을 잘 실천하는 것이 출소 초기 재사회화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Willis, Ward와 Levenson(2014)은 북미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좋은 삶 모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ATSA)를 통해 27개 프로그램으로부터 연구 참가 신청서를 받았고, 이 중 북미에 속하지 않거나 청소년 혹은 지적 제한자 대상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총 13개의 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교도소(6개), 지역사회(5개), 사설기관(2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치료자 매뉴얼, 워크북,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등의 자료와 프로그램 진행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료자들은 회피 목표보다 접근 목표를 강조하고 있으며, 좋은 삶 모형을 자기 조절 모형, 재발 방지 모형을 통합한 형태로 개념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치료 모형에 비해 특히 대상자들의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좋은 삶 모형의 적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국가 정책과 법률적 제제로 나타났는데, 신상정보 공개 제도 등은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직업, 거주지를 얻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장애가 되어 재사회화를 막는다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미국에 비해 캐나다에서 통합된 좋은 삶 모형의 접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관리 정책이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7.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역사는 10년 남짓 되었다. 2000년대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흉악한 성범죄들이 수 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로 공감능력 또는 조망수용능력, 재범방지, 대인관계 또는 사회 기술 또는 사회적 효능감, 인지왜곡의 수정 또는 재구조화, 자기조절 또는 정서조절 등이 제시되었고, 앞에서 제시한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들 중 일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모형과 위험성-육구-반응성 모형을 고려한 형태로, 인지 행동 치료적 기법 이외 바디웍, 향기치료, 명상, 미술치료 등 다양한 접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민우회, 2003)  
: 자신/사건 이해, 성인식 점검, 계획성 인정, 피해자 공감, 분노조절, 의사소통, 재범방지
-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법무부, 2006)  
: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 공감, 대인관계, 자존감, 재발방지
-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법무부, 2008)  
: 법교육, 재발방지, 인지왜곡, 성교육, 대인관계, 분노/불안/우울, 약물남용, 오락과 여가, 피해자 이해와 공감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여성가족부, 2005, 2010 개정)  
: 희망의 고취/자존감, 성인식 수정/양성평등, 인지 재구조화/인지왜곡, 책임 인정하기/상처 공감, 재발방지
- 인간존중프로그램(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 공감, 대인관계, 자존감, 재발방지
- 성범죄 고위험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0)  
: 자존감, 성교육, 피해자 공감, 인지왜곡, 재발방지/술/분노/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진로 탐색
- 인간존중프로그램-지적제한자용(여성가족부, 2010)



- : 책임감, 인지수정, 성교육, 사회적 효능감 증진, 성적 각성 조절, 재범방지 기술, 사회적 지지 확대
- 성폭력 가해자의 가족통합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2008)
  - : 인지왜곡, 분노조절, 가족통합, 지역사회 복귀-사회기술, 지역사회복귀-직업탐색
- 성폭력 범죄자 초기분류를 통한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법무부, 2009)
  - : 성인식/성역할, 대인관계, 피해자 공감, 가족관계/가족의사소통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를 위한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법무부, 2009)
  - : 동기증진, 성교육, 인지적 왜곡, 조망수용능력 증진, 재범방지, 자기조절, 대인관계능력 증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정인지행동심리치료 및 향기치료(여성가족부, 2010)
  - : 변화 동기 부여, 인지 재구성, 공감능력, 성교육, 분노조절/스트레스, 사회기술, 재범방지, 자기조절(이환훈련을 통한)
- 새날/솔트 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0)
  - : 자기 이해,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원인 파악, 성폭력 원인 수정, 공감능력 향상, 재발방지/사회적응능력 향상, 개별상담, 자아존중감 확대, 의사소통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심각성, 양성평등교육

현재까지 치료를 이수한 성인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확인하여 치료 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범죄경력 등 공식 자료 접근의 제한 등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다. 송원영 등(2013)은 성폭력을 저지른 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 행동 치료를 실시하고, 기존 프로그램 집단 및 비수강 집단과의 재범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지 행동 치료는 인지적 왜곡의 발견 및 수정, 공감능력의 증진,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재발 위험요인 다루기로 구성되었다. 기존 프로그램 집단은 위탁된 사설기관들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그 중 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색슈얼리티 체험관 견학,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성지식 바로 알기, 성폭력의 개념정의, 피해자 감정 이해하기, 성폭력 사건 드러내기, 자기 안의 분노 조절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7년 후 재범을 추적한 결과, 전체 범죄에 대한 재범률에서 인지행동치료 집단 39.1%, 기존프로그램 집단(사설기관에 위탁한 경우) 53.7%, 비 수강 집단 62.0%의 재범률을 보여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동종 재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윤정숙 등(2012)은 2010년 이후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범죄자 20명을 심층면담 하여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치료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적 측면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 ‘분노 등의 감정조절’, ‘왜곡된 인지 수정’ 등이 자주 언급되었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참여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의 목적 및 가설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 내 처우(성범죄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 대상자, 반복되는 성범죄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등)를 받은 성인 성범죄자들을 위한 좋은 삶 모형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미 서구에서 좋은 삶 모형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재발방지모형, 여성주의 이론 등에 치중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심리치료 개입 시 성범죄자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법원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 개방 및 책임 인정에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좋은 삶 모형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이수정 등, 2012; Marshall et al., 2011), 치료적 동맹 관계 속에(Ward & Stewart, 2003; Ward & Maruna, 2007) 강점 기반의 접근을 통해 친사회적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Man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좋은 삶 모형을 활용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범죄자들이 범죄 유발 요인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친사회적인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재범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좋은 삶 모형을 근간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료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단기적 효과는 치료 직후에 나타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기보고식 검사에서의 점수 변화를 통해 측정한다. 기존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집단과의 사전-사후 검사를 분석하여 심리적 영역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재범을 하는지 추적하여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선행 연구 방식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적용한 치료 프



로그래의 장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삶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기존 프로그램 이수 집단, 그리고 비 수강 집단을 대상으로 처치 후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재범이 발생한 빈도, 생존함수를 비교할 것이다. 처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범죄 상황에 덜 빠지고 친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치료 이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처치집단 중 재범을 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재범을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범죄관련 변인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 1) 연구문제 1. 치료의 단기적 효과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하 'GLM 집단')과 기존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하 '일반수강 집단')은 사전-사후 평가의 비교에서 심리적 영역(자존감, 인지적 왜곡, 공감, 사회기술, 정서조절, 문제해결, 정서적 안정성 변인)에서 차이가 날 것인가?

가설 1. GLM 집단은 일반수강 집단에 비해 사전-사후 평가의 비교에서 심리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2. 치료의 장기적 효과

프로그램 이수 후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발생한 재범률을 비교했을 때, GLM 집단은 일반수강 집단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하 '비 수강 집단')과 차이가 날 것인가?





가설 2. GLM 집단이 일반수강 집단 및 비 수강 집단에 비해 동종재범, 폭력재범, 전체범죄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을 것이다.

#### 4) 연구문제 3. 재범 예측

프로그램 수료 이후 재범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과 인구통계학적, 범죄학적,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날 것인가?

가설 3.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을 한 성범죄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재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학적 특성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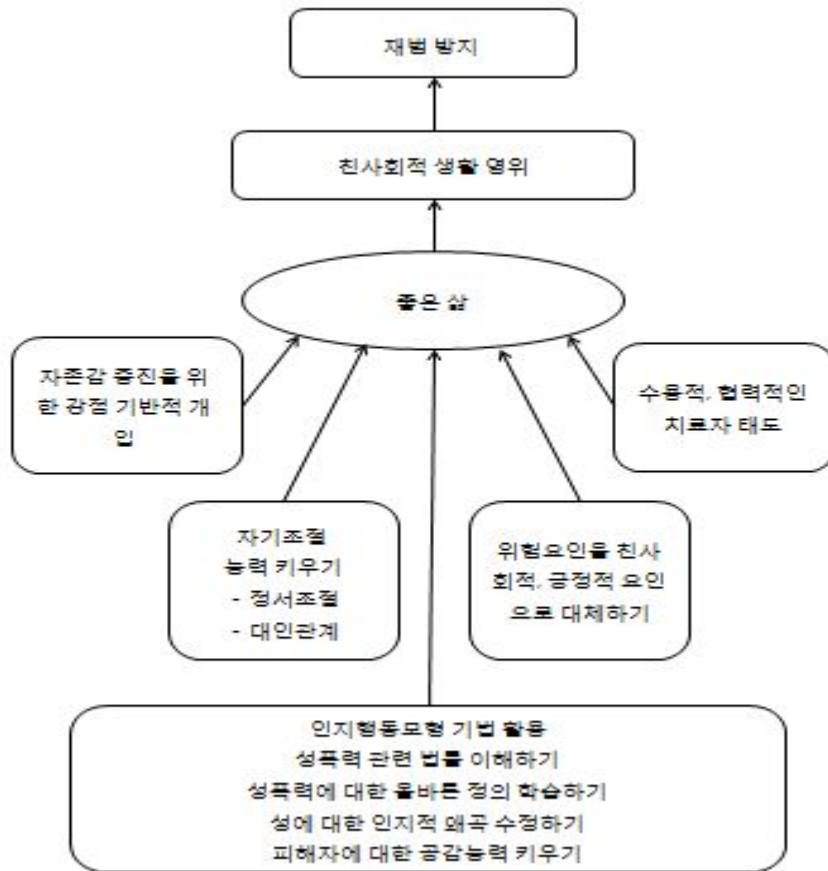
## IV. '좋은 삶 모형'을 기반으로 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성범죄자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다. Yates(2002, 2003)와 Hanson 등(2004)은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성범죄자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지 행동적 접근
- 교정 치료에 대한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 적용하기
- 인지적, 행동적, 사회-학습적 개입 활용하기
- 치료자가 성범죄자 치료에 능숙하고 유능해야 하며, 대상자들이 치료에 참여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적 기법 활용하기

좋은 삶 모형은 하나의 새로운 치료 이론이라기보다 교정 분야의 임상가들에게 치료를 뒷받침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는 통합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모형들보다 더 통합적인 체계이며, 인지 행동 치료적 기법과 같이 구체적인 개입을 고려하는 특수한 이론들을 보완하는 광범위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Ward & Maruna, 2007).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좋은 삶 모형을 근간으로 위험성-욕구-반응성 모형, 재발방지 모형 등을 통합한 형태로서,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을 통해 개입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강점 기반적 접근으로 치료자와 대상자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국내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소홀히 하였던 자기조절 영역을 추가·보강하였으며, 회피 목표를 접근 목표로 변경하여 위험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찾아보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개입하였다.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 치료 방식, 치료 주제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모형

## 1.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의료진,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치료진이 성범죄자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료의 기간이나 강도를 결정하는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판결 단계에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이수 시간을 부과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는 정확하게 부과된 시간만큼 치료 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욕구-



반응성 모형을 적용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시간에 따라 기본형 프로그램과 확장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각 폐쇄형과 개방형 집단 상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틀을 갖추었다.

본 프로그램은 치료 대상이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수를 결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수치심 등으로 범죄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하고 생업 곤란 등을 이유로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이질성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판결 단계에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이지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하여 징역형을 받아 수용 생활을 마친 후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엄격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범죄경력 등을 감안할 때 이 두 집단의 위험성, 욕구, 반응성의 수준이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2.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진행 내용

### 1) 기본 프로그램(폐쇄형)

기본 프로그램은 40시간 기준으로 주 1회씩 총 7회기로 운영하였다. 성범죄 유발과 관련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데, 좋은 삶 모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입하였다. 1~2회기에서 대상자들이 부정적 감정들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강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 치료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켰다. 5회기에서 사건 개방하는 시간을 갖기는 하였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사건을 유발한 개인의 즉시적 위험 요인 혹은 만성적 위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6회기와 7회기에 걸쳐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위험요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사회적 활동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회기 전반에 걸쳐 치료자는 강점 기반적 접근을 유지하였다.



각 회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는 수강명령(혹은 치료이수명령) **개시 교육**이 이뤄지며, 사전 심리평가를 실시하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개별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현재 직업상태, 가족관계, 대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건 개요,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양상, 사건 이후 힘든 점, 치료 프로그램에서 바라는 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집단 상담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향후 사건을 포함한 자기 개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집단 규칙을 설명**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별칭을 정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더 행복해진다면 미래의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대상자에게 영향을 끼쳤던 지식, 태도, 기술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건 이전의 생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준다. 그리고 **사건 이후 경험했던 부정적 감정들을 털어 놓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대상자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이는데, 진행자는 이를 지적하기보다 이들이 경험한 수치심, 우울감, 불안감 등에 공감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상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인생그래프 작성**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집단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개입한다. **좋은 삶을 위한 미래 계획**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도록 개입함으로써 대상자의 치료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

3회기는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성에 대한 상식을 점검**하고 성과 관련된 지식들을 어떻게 습득해 왔는지 살펴보면서 포르노그래피의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동의'의 개념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통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혹은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 행위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료화한다. 치료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동의 개념을 견고화하고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4회기는 인지 행동 치료의 기본 가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생각-감정-행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성범죄자들의 강간통념(rape myth), 사건에 대한 부인(denial), 축소(minimiz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등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성범죄자들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남녀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며 여자를 외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wells, 1979). 가부장적 문화와 개인적인 경험 등이 뒷받침되어 여성 혹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신념들을 갖게 되는데, ‘강간통념’을 확인하고 ‘동의(consent)’의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배려할 수 있는 성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개입한다.

5회기는 Finkelher의 전제조건모형(1984)과 Wolf의 순환모형(1984) 등을 소개하고, 대상자 스스로 사건을 유발한 즉시적 위험 요인과 만성적 위험 요인을 찾아보며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두 모형들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자면, 먼저 Finkelher의 전제조건모형은 성폭력이 발생하려면 4가지의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성폭력에 대한 동기’로 고립감, 아동에 대한 정서적 일치감, 일탈적인 성적 각성 등이 성폭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두 번째 조건은 내적 억제 요소들을 무력화시키는 단계로,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는 나처럼 할 것이다’ 등의 혼잣말로 가해 행위를 합리화한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단계는 외적 억제 요소들을 무시하는 과정으로, 내적 억제를 넘어선 성범죄자들은 성공적으로 범행을 하고 빠져 나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간범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대 한적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아동 성 학대범이 부모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아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마지막 조건은 피해자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선물을 주는 등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다음으로 Wolf는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성범죄자들은 자아상이 부정적이어서 자신이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거절 혹은 실패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거나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성적 공상을 통해 통제감을 가진다고 착각하게 되고, 일탈된 환상에 몰입하면서 ‘그/그녀도 즐길 것이다’ 등의 왜곡된 사고가 연합되어 범죄를 준비·실행하게 된다. 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화, 축소 등의 더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된다. 원래 부정적이었던 자아상



은 사건 이후 더욱 손상되어 범죄 고리가 순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대상자들이 Finkleher(1982)의 전제조건모형에 따라 자신의 사건을 구성해 보며, Wolf(1982)의 순환모형 등을 참고하여 즉시적·만성적 위험요인을 탐색하도록 개입한다. 대상자가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동안 다른 구성원들이 위험 요인 등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때 사건 내용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진행자는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사건을 유발한 개인의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추도록 독려한다. 대상자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해자라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 미래의 또 다른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6회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된 동영상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등장인물, 관계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 느낌을 가지는지 가늠해 본다. 그런 다음 자신의 피해자가 사건을 계기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의 편지를 작성해 보고, 이에 대한 답장을 쓴 다음 집단 내에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답장에는 이전의 편지를 읽고 느낀 감정, 피해자가 대상자들에게 들어야 할 말들(“너의 탓이 아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을 쓰도록 유도한다. 이 개입의 목표는 대상자의 조망 수용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7회기에는 **대상자들의 위험 요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생각이나 활동들**을 찾아본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본다.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행복(well-being)을 증진시키고 결국 재범을 방지하는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도록 개입한다. 사후 심리평가 및 종료 소감문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기본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회기	회기목표	회기내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면담을 통한 대상자의 현재 어려움, 취약 요인 등 파악하기</li> <li>• 간략한 프로그램 소개 및 대상자와 라포 형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시교육</li> <li>• 개별면담</li> </ul>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구조화하기</li> <li>• 부정적 감정을 털어놓고 현재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 소개하기</li> <li>• 사건 이후 부정적 감정 다루기</li> <li>• 인생그래프 작성, 자신 이해하기</li> <li>• 인생목표 설정하기</li> </ul>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교육을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함</li> <li>•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동의를의 개념을 명료화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 이해하기</li> <li>• 성에 대한 OX 퀴즈</li> <li>• 성관련 경험 탐색하기</li> <li>•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li> <li>• 건강한 성, '자발적 동의' 개념 이해하기</li> </ul>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감정-행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행동 치료 모형 소개</li> <li>• 인지적 왜곡 이해하기</li> <li>• 강간통념의 확인 및 수정하기</li> </ul>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을 유발한 즉시적·만성적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 요인들이 사건 발생 과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kelhor 전제조건모형과 Wolf 순환모형 이해하기</li> <li>• 성폭력 발생당시의 기대 검토하기</li> <li>• 개인의 위험요인들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기</li> </ul>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조망수용능력 키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사례 관련 동영상 시청 후 피해자들의 고통 인식하기</li> <li>• 피해자로부터 쓰는 편지, 이에 대한 답장쓰기 형식을 통해 조망수용능력 키우기</li> </ul>
7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분노조절, 음주조절, 위험한 환경 조절) 찾아보기</li> <li>• 가족/이성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li> <li>•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에 대해 격려하며, 긍정적 감정 채우기</li> </ul>





## 2) 확장 프로그램(개방형)

확장 프로그램은 40시간 이상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이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고, 개방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습하는 과정을 강화하였다. 기본 프로그램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확장 프로그램은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자원들 및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요소들을 단계별로 개입하였으나, 구성원들의 위험성, 학습능력, 직면한 어려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개방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참여 시기에 따라, 또는 자신의 진도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된다. 각각의 진행속도는 부과받은 시간, 집단 인원수, 참여시기, 개인의 프로그램 소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 구조화된 형식이고 대상자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기별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별로 회기를 구성하였다. 각 회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장 프로그램은 총 6개의 요소를 다루고 있다. 1회기는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자신감을 키우는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적 생의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감, 분노,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 범죄와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생의 수레바퀴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지금까지 어떤 덕목을 소홀히 하였는지 점검해 본 후 균형 있고 확장된 형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삶 계획을 세워본다. 이 때 'SMART 원칙(**S**pecific, **M**easurable, **A**ttainment, **R**ealistic, **T**ime-specific, 1998)'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도록 개입한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대상자들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내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범죄유발 요인, 취약요인을 탐색할 뿐 아니라 내·외적 장점(자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외모, 일, 지식, 휴식, 대인관계,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강점, 장점 등 긍정적 특성들을 확인한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구체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면 TV시청, 커피마시기, 독서, 산책하기, 샤워하기 등)을 찾아본다. 치료자는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특성을 기록한 카드를 매일 읽게 하거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소하지만 즐거운 활동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2회기는 대상자들은 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대인관계,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등에 영향을 미치고, 본 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요소들(감정조절, 대인관계, 건강한 성, 좋은 삶 계획세우기) 등이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개입한다.** 성폭력 행위는 도미노 현상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촉발 요인에는 재정, 부부 또는 연인, 학업, 고용, 여가, 건강, 사교성, 다른 습성, 마약과 알코올 등이 있다. 대상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촉발 요인들이 사건 전 특정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sexual abuse cycle'을 이해하도록 개입한다. 준비단계, 실행단계, 변명단계, 위장단계에 걸쳐 자신의 범행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사건 후에도 사건 전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평소 스트레스 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회기의 주제는 위험성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경우 더 높은 강도로 개입하였다.

3회기는 감정 조절 및 문제대처기술의 향상을 통해 성 가해 행위 및 삶의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 상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강화**시키는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이 중요하다. 치료자의 적절한 공감능력과 수용능력, 정서적 소통 능력, 대상자의 정서를 적절히 인정해주는 능력이 요구된다 (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11).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효과적인 단계별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해 본적이 없거나 단계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자체를 어려워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원하는 상황과 문제 상황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불쾌한 감정을 없애고 다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성범죄라는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과제 중심적 대처 양식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이 단계에서 심리학적 기술(예, 긴장 이완법), 인지적 기술(예, 부정적 사고에 도전하기, 부정적 사고 중단하기), 행동적 기술(예, 자기 주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기술, 분노 조절, 갈등 해결) 등을 활용한다.



4회기는 **친밀한 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만족스러운 친밀감이 주는 이점과 정서적 외로움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한 정서적 외로움, 애착양식의 기원, 의사소통 상의 문제, 질투, 파트너 없이 사는 것 등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이런 문제들을 기능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 성인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과의 성관계(예,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한 대상을 성폭행)를 통해 친밀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성관계는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친밀감은 적절한 성관계를 통해 강화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파트너와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결국 성적 만족, 관계의 만족,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대인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확인하고, 집단 토론, 역할극 등을 활용한다.

5회기는 기본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자발적 동의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성행위든 동의를 필요하고, 무력이나 강제성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자위행위, 구강성교, 성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성적인 사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한다. **커플이 서로 동등하게 대할 경우 성생활이 더욱 만족스러워 질 수 있음**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준다. 성적인 만족감은 모든 결정들이 공동으로 내려졌을 때, 파트너끼리 서로 공손히 대하였을 때 극대화되는 점을 이해하도록 개입한다.

6회기에서는 확장 프로그램 초반에 작성했던 생의 수레바퀴를 점검하고 **현재 위치를 재평가**한다. 치료에서 얻은 이익을 점검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삶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법들을 찾아본다.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문제 상황에서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상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하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자기 계발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확장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을 요약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확장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회기	회기목표	회기내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에 대한 동기 강화</li> <li>• 자신감 키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 집단응집력 키우기</li> <li>• 생의 수레바퀴, SMART 계획 세우기</li> <li>• 범죄를 계속하는 것과 멈추는 것에 대한 손익분석 찾아보기</li> <li>• 자서전 작성을 통해 개인의 긍정적 자산을 확인함</li> </ul>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협요인들이 사건 직전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하기</li> <li>• 재범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xual abuse cycle, 재범 에세이 작성을 통해 재범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함</li> </ul>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키우기</li> <li>• 문제 중심적 대처 기술 키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조절 코칭, 효율적인 분노 표현 방법 탐색하기</li> <li>•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식 습득하기</li> <li>• 타인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능력 증진시키기</li> <li>•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 피해자 - 가해자의 가상 대화 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li> </ul>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감과 외로움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기</li> <li>•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연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심리적 욕구 파악하고, 자신의 애착 유형을 확인함</li> <li>• 대화, 경청에 대한 기술 학습하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주고받는 연습</li> <li>• 데이트, 결혼 신화에 대해 토론 및 수정</li> </ul>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가 동등한 입장이고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성적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배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학습함</li> <li>• 성적 집착, 일탈된 성적 기호 등을 확인</li> <li>• 성적 관심 바꾸기</li> </ul>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점검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지지집단 등을 확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od Life Plan</li> <li>• 시간 설계하기(time management)</li> <li>• 도덕적 의사결정기술 익히기</li> <li>• 친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확인하기</li> <li>• 지지집단 찾아보기</li> </ul>



## V. 연구 1. 치료의 단기 효과

### 1. 연구 대상

#### 1) GLM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집단

연구 1의 대상은 성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혹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처분을 받고 수강명령 혹은 치료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경기 소재 5개 보호관찰소 관할 성인 남성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경기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프로그램 전후에 자기 보고형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독해의 어려움 등으로 비일관된 응답을 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3.42세(16~46세,  $SD=13.10$ )이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69.7%였고, 미혼인 경우가 60.6%에 이르렀다.

#### 2) 일반 성폭력 치료 이수 집단

비교집단으로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하지 않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들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사회 내 처우를 받고 2014년 4~5월 동안 서울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사설 기관에 위탁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로서, 무선 할당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불성실한 응답 자료 등을 제외하고 총 3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교집단의 평균 연령은 39.58세(18~52세,  $SD=13.08$ )였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가 64.7%, 미혼인 경우가 58.8%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사설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예시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사설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주제

구 분	회 기	주 제
○○ 상담 센터	1회기	오리엔테이션, 마음열기, 자기 사건 개방하기
	2회기	성과 사랑, 마음의 법칙에 따른 자신의 욕구 탐색, 건강한 성,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 활동, 성인식 점검
	3회기	성의 태도 점검, 성폭력 관련 영화감상 후 토론
	4회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성매매예방,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폭력관련 법률적 이해
	5회기	자원 찾기 및 자존감 회복하기, 성폭력과 관련하여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 2. 평가도구

### 1) 범죄관련 및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상자의 범죄경력, 범죄사실, 신고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범죄경력자료를 분석하였고, 보호관찰 신고서, 보호관찰 카드를 확인하여 학력이나 결혼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자기 보고형 검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한 사전 사후의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8가지 영역의 총 11개 자기 보고형 심리검사를 활용하였다. Grady, Broderson과 Abramson(2011)은 북미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치료 목표들을 살펴보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적합한 검사 도구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검사들은 Grady 등(2011)이 제안한 검사 도구 및 Marshall의 감수로 구성된 국립법무병원의 심리검사집을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치료에서 다루는 주제들인 자존감, 인지적 왜곡, 대인관계, 공감, 사회기술, 정서조절, 문제해결, 정서적 안정성 영역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기 보고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 (1) 단축형 자존감 척도

척도의 개발자인 Thornton 등(2004)이 성범죄자와 낮은 자존감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해 수치심이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자기 도식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단축형 자존감 척도(Short Self-Esteem Scale, 이하 SE)를 개발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ebster 등(2007)이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였다.

### (2) 강간통념척도

강간통념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수용도(Rape Myth Acceptance Scale, 이하 RMAS)를 이석재(1990)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에서 '매우 긍정'까지 Likert식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로 높은 편이며, 4개의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성폭력 피해의 책임 귀인 .82,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오해 .70,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77,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67로 나타났다.

### (3)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Power and Hostil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이하 PHAW)는 Check(1985)이 개발한 척도를 국립법무병원(2011)에서 번안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감, 권력에 대한 동기 등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적대감 및 권력에 대한 동기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으로 양호한 편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로 원문과 유사하였다.

#### (4) UCLA 외로움 척도

성범죄자들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이하 UCLA)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친근한 타인, 사회적 관계, 소속감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1로 이전 연구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 (5) 피해자 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Fernandez 등(1999)이 개발한 피해자 공감 척도(Victim Empathy Scale, 이하 VES)의 rape 버전을 활용하였다. 성폭력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망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며,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 (6) 사회적 자아-존중감 척도

Lawson, Marshall과 McGrath(1979)가 개발한 Social Self-Esteem Inventory(이하 SSEI)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사고 모임 등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들과 잘 어울리는지, 스스로 유능감을 얼마나 느끼는지와 관련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나와 완전히 일치한다'까지 6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로 나타났다.





## (7) 정서조절곤란 척도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이하 DERS)을 조용래(2007)가 한국판 표준화를 하였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9였다. 원 개발자들은 '정서조절'을 (1) 정서와 자각의 이해, (2) 정서의 수용, (3)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4)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려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곤란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8) Barratt 충동성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이하 BIS)를 이현수(1994)가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수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9로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검증되었다.

## (9) 성을 매개로 한 대처 척도

성을 매개로 한 대처척도(Coping Using Sex Inventory, 이하 CUSI)는 Marshall 등(2001)이 개발한 척도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1) 합의(합의하에 성인 여성과 성관계하는 생각이나 행동), (2) 강간(강제로 성인여성과 성관계하는 생각이나 행동), (3) 유간(어린이를 상대로 성관계하는 생각이나 행동) 등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과 관련된 생각 혹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 **(10)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검사를 활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들을 평가한다. 이영호와 송종용(1997)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11) Novaco 분노 척도**

Novaco(1994)가 개발한 분노 척도(Novaco Anger Scale, 이하 NAS)는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각성 영역에서 분노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Mills, Kroner와 Forth(1998)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에서 검사-재검사간 신뢰도는 .78~.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Novaco 분노 척도 part A의 신뢰도는 .95, Part B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part A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각성 영역에서 분노 정도를 평가한다. part B는 치료에 대한 불신(disrespectful treatment), 편파적임(unfairness), 좌절감(frustration), 쉽게 짜증내는 기질(annoying traits), 초조함(irritations) 등 총 6개 영역에서 분노 정도를 평가하며,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료 분석**

### **1) 절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첫 회기 때 자기 보고형 사전평가 및 개인면접을 실시하였고, 1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기본 프로그램(폐쇄형)은 매주 5~6시간씩 7~8주간 진행되었고, 확장프로그램(개방형)은 주 1회 4시간씩 진행되었다. 각 집단 참여자는 8~13명 내외로 구성하였고, 연구자가 주 진행자로, 보호



관찰관 1명이 보조진행자로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회기 때 약 2시간 정도 자기 보고형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 2) 자료 분석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집단(이하 GLM 집단)과 일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하 일반수강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결혼 상태와 같이 비연속 변인에 대해서는  $\chi^2$  검증을 실시하고 연령, 초범연령, 학력 등의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보고 검사 점수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치료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에서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를 빼서 각 변인간의 점수 차를 계산하였다. 치료적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차이 점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 간의 치료 효과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효과크기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PSS에서 제공되는 *partial*  $\eta^2$  값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전-사후를 비교하여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집단의 평균 차이가 부풀려져서 유의성을 갖게 되는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해당 점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의 경우 Bonferroni 보정법을 활용하여 보다 보수적인 유의수준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GLM 치료 이수 집단과 일반 치료 이수 집단의 동질성 검증

두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최종학력, 결혼 상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경력 관련 변인(초범연령, 동종범죄력, 폭력 범죄력)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이 대체로 동질한 집단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인구통계학적/범죄경력 관련 변인 동질성 검증 결과

인구통계학적 / 범죄경력 관련 변인	GLM 집단 (n=33)		일반수강 집단 (n=34)		$t / \chi^2$	p
	M	SD	M	SD		
연령	33.42	13.10	39.58	13.08	-1.90	.06
최종학력	7.27	2.04	7.85	2.17	-1.11	.27
결혼상태	1.45	.62	1.52	.76	-.36	.72
초범연령	25.34	10.74	27.21	7.48	-.96	.34
피해자 변인	1.61	.61	1.61	.70		
동종범죄여부	.18	.46	.18	.39	.00	1.00
폭력범죄여부	1.42	3.28	2.21	3.76	-.91	.37
총범죄여부	3.15	4.12	4.36	5.96	-.96	.34

다음으로 GLM 치료 집단과 일반 수강 집단의 자기보고식 검사 변인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간통념척도,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 피해자 공감 척도, 사회적 자아-존중감 척도, 성을 매개로 한 대처척도, Barrat 충동성 척도, Novaco 분노 척도에서는 각 변인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RMAS,  $t(65) = .06$ ,  $ns$ ; PWAH,  $t(65) = 1.47$ ,  $ns$ ; VES,  $t(65) = 1.45$ ,  $ns$ ; SSEI,  $t(65) = 1.71$ ,  $ns$ ; VES,  $t(65) = 1.84$ ,  $ns$ ; BIS,  $t(65) = .24$ ,  $ns$ ; DERS,  $t(65) = .82$ ,  $ns$ ; NSQ-A,  $t(65) = .52$ ,  $ns$ ; NSQ-B,  $t(65) = .20$ ,  $ns$ . 반면, 단축형 자존감 척도, Beck 우울 척도, UCLA 고독감 척도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SE,  $t(65) = -6.83$ ,  $p < .001$ ; UCLA,  $t(65) = 6.83$ ,  $p < .001$ ; BDI,  $t(65) = 2.58$ ,  $p < .05$ . 결과에 의하



면 프로그램 개입 단계에서 GLM 집단은 일반수강 집단에 비해 우울감, 고독감을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이며,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6] 사전 검사 동질성 검증 결과

척도	GLM 집단( <i>n</i> =33)	일반수강 집단( <i>n</i> =34)	<i>t</i>
	<i>M</i> ( <i>SD</i> )	<i>M</i> ( <i>SD</i> )	
SE	2.88(1.57)	5.65(1.74)	-6.83 ***
RMSA	54.09(26.73)	53.74(25.61)	.06
PHAW	13.15(5.09)	11.34(4.94)	1.47
UCLA	46.39(4.18)	33.44(10.21)	6.83 ***
VES	60.39(15.91)	53.12(16.35)	1.85
SSEI	118.88(18.09)	127.88(24.35)	-1.71
DERS	76.09(13.95)	73.65(10.14)	.82
BIS	41.39(5.86)	41.88(9.95)	-.24
CUSI	19.06(3.82)	20.56(4.77)	-1.42
BDI	15.33(7.92)	10.15(8.54)	2.58 *
NAS-A	74.70(15.04)	72.68(16.55)	.52
NAS-B	54.03(12.12)	53.41(13.35)	.20

주. SE=Short Self-Esteem Scale, RMSA=Rape Myth Acceptance Scale,  
 PHAW=Power and Hostil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UCLA=UCLA Loneliness Scale, VES=Victim Empathy Scale,  
 SSEI=Social Self Esteem Inventory, DERS=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BIS=Barratt Impulsiveness Scale, CUSI=Coping Using Sex Inventory,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NAS-A=Novasco Anger Scale-A,  
 NAS-B=Novasco Anger Scale-B

\**p* < .05, \*\*\**p* < .001



## 2)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요인분석

치료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 검사 점수를 빼서 각 변인간의 점수 차를 계산하였다. 치료적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차이 점수들 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은 다섯 개였으나(2.282, 1.531, 1.234, 1.137, 1.029), 스크리검사 상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경사차가 크지 않았고, 해당 소척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인과 높은 부하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요인의 수를 3개로 고정하고 재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 자존감

구분	요인 1 (부적응)	요인 2 (정서조절)	요인 3 (인지적 왜곡)
SE	-.789		
UCLA	.736		
BDI	.444		
BIS	.276		
VES	.250		
NAQ-A		.714	
DERS		.592	
NAQ-B		.522	
RMSA			-.755
SSEI			.675
CUSI			.562
PHAW			-.501

주. SE=Short Self-Esteem Scale, UCLA=UCLA Loneliness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IS=Barratt Impulsiveness Scale,  
VES=Victim Empathy Scale, NAS-A=Novasco Anger Scale-A,  
DERS=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NAS-B=Novasco Anger Scale-B, RMSA=Rape Myth Acceptance Scale,  
SSEI=Social Self Esteem Inventory, CUSI=Coping Using Sex Inventory,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전체의 20.74%, 요인 2는 13.91%, 요인 3은 11.21%를 설명하여, 세 요인이 전체의 45.88%를 설명하였다. 요인 간의 상관을 감안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에는 자존감, 외로움, 우울감, 충동성, 공감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적응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에는 정서조절, 분노 관련 척도들이 포함되어 '정서조절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에는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성을 매개로 한 대처방식과 관련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지적 왜곡'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본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른 3개의 범주에 대해 사전-사후의 평균 비교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GLM 치료 이수 집단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 (1) 부적응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부적응 요인에는 자아존중감, 우울감, 외로움, 충동성, 공감 관련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 동질성이 검증된 충동성과 공감 변인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자아존중감, 외로움, 우울감 변인의 경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공감 변인의 경우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F(1, 65) = .36, ns$ , 회기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65) = 25.36, p < .001$ . 두 집단 모두에서 공감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Barratt 충동성 척도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65) = 8.24, p < .05$ , 집단 주효과와 회기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65) = 40.05, p < .001$ . 따라서 GLM 프로그램이 충동성 변인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측정했던 단축형 자아 존중감 척도는 공변인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F(1, 65) = 1.28, ns$ , 그 영향을 제거한 후의 집단 간 차이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F(1, 65) = 1.00, ns$ . UCLA 외로움 척도는 공변인으로 유의하였으며,  $F(1, 65) = 50.68, p < .001$ , 그 영향을 제거하여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1, 65) = 30.30, p < .001$ . 따라서 GLM 프로그램 이수 후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수준이 유의한 수준에서 경감되었음을 시사한다. Beck 우울감 척도는 공변인으로 유의하였으며  $F(1, 65) = 101.07, p < .001$ , 그 영향을 제거한 후의 집단 간 차이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F(1, 65) = 54.13, p < .001$ . GLM 프로그램이 유의한 수준으로 우울감 수준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8]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 공감, 충동성

	GLM 집단( $n=33$ )		일반수강 집단( $n=34$ )		집단 $F$	회기 $F$	집단× 회기 $F$	집단× 회기 $partial$ $\eta^2$
	사전	사후	사전	사후				
VES	52.67 (14.54)	60.39 (15.91)	47.03 (18.36)	53.12 (16.35)	2.96	25.36***	.36	.01
BIS	41.39 (5.86)	33.72 (9.05)	41.88 (9.95)	39.00 (9.99)	2.06	40.05***	8.24*	.11

주. VES=Victim Empathy Scale, BIS=Barratt Impulsiveness Scale  
( )안은 표준편차. \* $p < .05$ , \*\*\* $p < .001$ .

[표 9]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 자존감, 외로움, 우울감

	GLM 집단( $n=33$ )		일반수강 집단( $n=34$ )		사전점수 공변인 $F$	집단 $F$
	사전	사후	사전	사후		
SE	2.88(1.58)	6.36(1.60)	5.65(1.74)	6.06(1.33)	1.28	1.00
UCLA	46.40(4.18)	36.21(9.39)	33.44(10.21)	30.58(9.99)	50.68***	30.30***
BDI	15.33(7.92)	9.36(6.39)	10.15(8.54)	6.76(6.26)	101.07***	54.13***

주. SE=Short Self-Esteem Scale, UCLA=UCLA Loneliness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안은 표준편차. \*\*\* $p < .001$ .





## (2) 정서조절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정서조절 요인에는 정서조절곤란, 분노와 관련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에서 사전, 사후의 변인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곤란 척도에서 집단과 측정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고,  $F(1, 65) = 25.01, p < .001$ , 회기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1, 65) = 103.93, p < .001$ . 따라서 GLM 프로그램 이수 후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유의하게 경감되었음이 관찰되었다.

Novaco 분노 척도 part A와 part B 척도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F(1, 65) = 1.47, ns, F(1, 65) = .19, ns$ . part A 척도의 경우 집단 주효과와 회기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였고  $F(1, 65) = .70, p < .05, F(1, 65) = 119.28, p < .001$ , part B 척도에서 회기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65) = 7.82, p < .05$ . 두 집단 모두에서 분노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0]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 정서조절

	GLM 집단( $n=33$ )		일반수강 집단( $n=34$ )		집단 $F$	회기 $F$	집단× 회기 $F$	집단× 회기 $partial\ \eta^2$
	사전	사후	사전	사후				
DERS	76.09 (13.95)	56.21 (11.94)	73.65 (10.14)	66.85 (13.65)	2.20	103.93***	25.01***	.27
NAS-A	73.03 (14.46)	54.03 (12.12)	68.62 (15.22)	53.41 (13.35)	.70*	119.28***	1.47	.02
NAS-B	54.03 (12.12)	50.64 (10.34)	53.42 (13.35)	48.76 (15.16)	.20	7.82*	.19	.03

주. DERS=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NAS-A=Novasco Anger Scale-A,  
NAS-B=Novasco Anger Scale-B

( )안은 표준편차. \* $p < .05$ , \*\*\* $p < .001$ .



### (3) 인지적 왜곡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인지적 왜곡 요인에는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성을 매개로 한 대처방식과 관련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에서 사전, 사후의 인지적 왜곡 관련 변인 수준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GLM 집단과 일반수강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 인지적 왜곡

	GLM 집단(n=33)		일반수강 집단(n=34)		집단 F	회기 F	집단× 회기 F	집단× 회기 partial $\eta^2$
	사전	사후	사전	사후				
RMAS	54.09 (26.73)	29.52 (10.41)	53.74 (25.61)	41.44 (23.99)	1.61	34.11***	3.79	.06
PHAW	13.15 (5.09)	10.45 (4.39)	11.35 (4.94)	9.79 (4.55)	1.26	31.03***	2.22	.03
SSEI	118.88 (18.09)	129.79 (22.25)	127.88 (24.35)	131.32 (28.93)	.99	8.94**	2.42*	.04
CUSI	19.06 (3.82)	14.79 (2.41)	20.56 (4.77)	18.71 (3.61)	11.15**	51.01***	7.96*	.11

주. RMSA=Rape Myth Acceptance Scale, PHAW=Power and Hostil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SSEI=Social Self Esteem Inventory, CUSI=Coping Using Sex Inventory  
( )안은 표준편차. \* $p < .05$ , \*\* $p < .01$ , \*\*\* $p < .001$ .

강간통념 수용에 대한 주관적 평정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F(1, 65) = 3.79$ ,  $ns$ , 회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65) = 34.11$ ,  $p < .001$ .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에서도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F(1, 65) = 2.22$ ,  $ns$ , 회기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1, 65) = 31.03$ ,  $p < .001$ . 따라서 강간에 대한 수용적이고 왜곡된 사고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기술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자아존중감 변인의 경우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65) = 2.42, p < .05$ , 회기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65) = 8.94, p < .01$ . 이런 결과는 GLM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사회기술 수준 관련 변인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성을 매개로 한 강간 척도의 경우 집단과 측정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1, 65) = 7.96, p < .05$ , 집단 및 회기의 주효과도 각각 유의하였다,  $F(1, 65) = 51.10, p < .001$ . 따라서 GLM 치료가 성을 매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논의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치료에서 다루는 심리적 주제들, 즉 자존감, 인지적 왜곡, 대인관계, 공감, 사회기술, 문제해결, 정서조절, 정서적 안정성 등의 영역이 프로그램 개입 후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각 변인간의 사전-사후 점수 차를 계산한 후 차이 점수들 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자존감, 우울감, 외로움, 충동성, 공감 변인이 포함되어 부적응 요인으로, 두 번째 요인은 정서조절곤란, 분노 변인이 포함되어 정서조절 요인, 세 번째 요인은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성을 매개로 한 대처양식 등이 포함되어 인지적 왜곡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과 GLM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반복측정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부적응 요인 중 충동성, 외로움,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들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과민하고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제도, 취업제한 등으로 이웃으로부터 이사를 강요받거나 이혼·별거 등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며 직업을 변경해야만 하는 등 환경적 변화로 상



당한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한다. 성범죄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재범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주간동아, 2012; Ward et al.,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우울검사의 사전 검사 평균값이 임상적 임계치( $M=15.33$ ,  $SD=7.92$ )를 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사건 발생 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심적 부담감, 신상정보등록 등에 대한 걱정, 스스로에 대해 낙인찍기(프로그램 초반 대상자들이 ‘내 인생은 끝장났다’, ‘인간쓰레기 같다’는 언급을 자주 함) 등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본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들의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이 단계에서 치료자의 변인이 특히 중요한데,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09) 치료자가 대상자의 강점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 공감적이고 따뜻하며 보상을 주는 태도를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변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Marshall, Serran, Mulden, Mulloy, Fernandez, Mann, & Thornton, 2002; Marshall et al., 200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치료자의 강점기반적 접근 및 공감적 태도가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외로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고 사회적 단절감이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대처기술 등으로 성을 대처전략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Wolf, 1984; Cortoni, Heil, & Marshall, 1996),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연결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Gross & Hanson, 2000). 치료적 개입으로 외로움 수준이 경감되었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보고형 검사를 활용하여 성인의 애착유형에 따른 성범죄자의 친밀감, 외로움 수준을 연구한 결과(Ward, Hudson, & McCormack, 1997)에 의하면, 몰두형과 두려움형이 UCLA 외로움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두려움형과 무시형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분노표현, 그리고 분노 억압 변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다. 외로움의 감소가 애착유형 및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정서조절 영역 중 정서조절곤



란 수준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들은 성범죄 위험 요인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Hanson & Bussière, 1998; McKibben, Proulx, & Lusignan, 1994), Yates와 Ward(2008)의 경로모형에서도 설명하듯이 부정적 정서 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들이 성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성 가해 행위와 어울려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충동성, 우울감, 외로움 변인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점과 더불어 정서조절 변인이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셋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인지적 왜곡 영역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을 매개로 대처하는 경향은 유의하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 전반적인 정서조절 관련 변인이 향상된 점을 함께 감안할 때, 대상자들이 적응적인 방식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울림의 정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적응 요인 중 공감 변인, 정서조절 요인 중 분노 변인, 인지적 왜곡 요인 중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변인은 각각 회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집단과 측정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과 일반 수강 프로그램 이수 집단의 사후 평가에서 각 변인의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GLM 프로그램의 효과로 고려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서 인지적 왜곡 요인에 대해 진행자의 교육과 더불어 집단토론을 통해 성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을 점검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와 같은 접근이 인지적 왜곡들을 수정하는데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riestad(2012)는 대부분의 구조화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성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대상자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귀인 이론과 서사적 접근을 활용하여 개인의 총체적인 삶에서의 인지적 편향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간통념 및 여성에 대한 적대감 등은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성에 대한 관념을 학습하는 과정 뿐 아니라 대인 지각이나 귀인 편향 등을 총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 변인은 성폭력 재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Hanson &



Morton-Bourgon,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능력의 결핍은 전통적으로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져 왔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영역을 다루고 있다. Fernandez와 Marshall(2003)의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들보다 일반적인 공감수준이 더 높으며 다른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수준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집단 내 비교 분석에서 본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유의미하게 낮은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강간범들은 일반적으로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기보다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억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왜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피해자 특정 공감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경험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향상된다(Barnett & Mann, 2012). 그런데 긍정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특정 공감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재발이 아니라 처벌적 성격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Ward & Salmon, 2011). Maruna와 Mann(2006)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현상은 범죄자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수치심을 줄이기 위한 인지적 방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타인에게 해를 입은 것에 대해 축소화하는 현상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특정 공감에 초점을 맞춰 개입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처벌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Covell과 Scalora(2002)에 의하면 사회기술의 부족, 대인관계 친밀감,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과정,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장면에서 위와 같은 주제들을 다각도로 개입해야 공감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감 영역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Beech, Fisher와 Beckett(1998)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교도소 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단기형(80시간)과 장기형(160시간)으로 구분하여 공감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만 개입의 강도를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설계하였다. 단기형의 경우 피해자들의 후유증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고, 장기형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역할극을 시연하는 등 서사적인 개입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자기보고형 검사를 통해 피해자 특정 공감 수준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위험성이 중·하에 속하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치료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경우 장기형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를 축소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경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범죄유발요인들에 대한 개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공감 관련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토론하거나 강간통념 주제를 개입하면서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이었으며, 부과 받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거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의 경우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고, 개인별 역할시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우리나라의 여건은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존감 영역은 유의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좋은 삶 모형의 접근 및 GLM 접근 및 인지행동치료적 방식이 성범죄자의 자존감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Marshall et al., 1997; Webster et al., 2007)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공감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은 범죄유발요인은 아니지만 인지적 왜곡, 공감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기보다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강점을 확인하고 지지해주는 피드백을 주는 집단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식으로 개입된다. 낮은 자존감은 정서조절(Baumeister, 1993), 대처양상(Marshall et al., 1999)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존감과 관련된 주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한 요소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 변인과 우울감, 외로움 등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존감은 공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심리적 기제들의 복합체로,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인생 전반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개입으로 유의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려면 회기 수를 늘리고 장기간 개입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치료 개입의 사전-사후 자기 보고형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교정 심리 분야에서 범죄자의 자기 보고형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외국의 경우 처치 후 일정기간까지의 재범률을 근거로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방법론이 선호되고 있다. 이에 연구문제 2에서는 좋은 삶 모형의 치료를 이수한 대상자들의 재범률을 추적하여 치료의 장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VI. 연구 2. 치료의 장기 효과

사법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재범률이며 교정 분야에서 심리적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범 감소’에 있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살필 때 재범률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노일석, 2011). 따라서 연구 2에서는 프로그램 이수 후 일정기간 동안 재범 여부를 분석하여 GLM 치료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 1. 연구 대상

#### 1) GLM 집단

연구문제 2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128명에 대한 생존 분석을 통해 재범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 및 보조진행자 1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들의 총 범죄에 대한 평균 재범 추적 기간은 554.09일(48~949일)이었다.

#### 2) 일반수강 집단

일반 수강 집단은 법원에서 성폭력 수강명령을 부과 받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진행방식이나 주제 등이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로 구성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사설기관에 위탁되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 중 처지 집단의 처분 내용(벌금, 집행유예, 전자장치 부착) 비율을 고려하여 무선 할당 추출한 145명이 이에 해당된다. GLM 집단의 추적기간을 고려하여 900일까지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였다. 이들의 총 범죄에 대한 평균 재범 추적 기간은 667.93일





(1~900일)이었다.

기존 프로그램은 5일에서 약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집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진행자의 성향에 따라 양성평등 교육, 미술치료, 재발 방지 모형의 접근 등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다. 2010년 당시 보호관찰소의 의뢰를 받고 사설기관에서 운영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기존 프로그램의 예시

구 분	회 기	주 제
○○○ 성폭력 상담소	1회기	MBTI 검사, 자기소개, 몸 풀기 및 얼굴 익히기, 교육의 목표 세우기, 사건 분석하기
	2회기	성인식 테스트, 나의 성 역사 돌아보기,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 폭력에 대한 이해
	3회기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 성폭력 비디오 시청 및 토의, 성적 의사소통
	4회기	장벽 세우기, 재범방지 계획 세우기, 책임 인정하기, 법 제정의 취지
	5회기	미래 목표 세우기, 교육 이후를 계획하기
○○○ 상담센터	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라포관계 형성, 나는 누구인가? 분노 다루기
	2회기	부정적 감정 다루기, 성폭력 발생 상황 배경 이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3회기	양성평등교육, 사회 성 향상 프로그램
	4회기	공감훈련, 스트레스 대처하기, 원가족 이해 및 영향 이해하기
	5회기	감정코칭,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람, 재범방지 프로그램

### 3) 비 수강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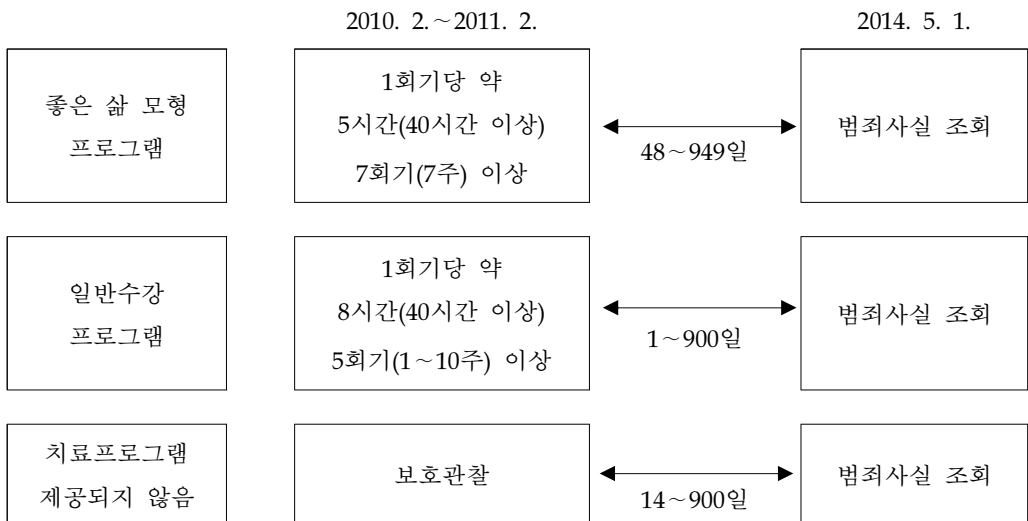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 없이 보호관찰을 부과 받고 2010년에 종료된 대상자들 중 처지 집단의 처분 내용(벌금, 집행유예, 전자장치 부착) 비율을 고려하여 무선 할당 추출한 146명을 비수강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평균 18.8개월) 월 1회 정도 보호관찰관의 면담 등을 통해 생활지도를 받아 왔다. GLM 집단과 추적기간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보호관찰 종료 후 900일까지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였다. 이들의 평균 재범 추적 기간은 610.78일(14~900일)이었다.



## 2. 자료 분석

연구문제 2는 생존분석을 통해 좋은 삶 모형의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과 다른 조건의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비교하여 치료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의학계에서 많이 쓰이는 통계 분석 방법으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자료가 주어진 경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박재빈, 2007). 이 분석 기법은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해 재범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재범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다.

생존분석에 사용되는 생존 자료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 간격이 대상자마다 다르고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대상자들에게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중도절단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도 절단(censoring, censored observation)이란 관찰 기간 도중에 추적 조사가 되지 않거나 연구 중간에 새로운 대상자가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연구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3] 프로그램 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생존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확률분포는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와 위험함수(hazard function)인데, 생존함수는 임의의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의 추정량이다. 이런 추정량들을 누적하여 계산한 것이 누적 생존 함수이며, 누적 생존율을 관찰시간에 대해 그린 그래프를 생존곡선이라고 한다. 위험 함수는 어떤 대상자가 어떤 특정한 시간 간격에서 원하는 시간이 발생할 기대치를 말하는 것으로, 위험 함수 값이 크면 재범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이수정 등, 2010).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생존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자들의 판결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를 조회하여 본 사건 이전의 범죄력과 수강 혹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 여부 및 횟수를 코딩하였다. 검사의 종국 처분일을 기준으로 재범을 계산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범 정의에서 제외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법 위반(등록 기간 위반, 주거지 이전 등 신상정보 허위등록 혹은 변경사항 미등록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 재범에 합산하지 않고 총 재범 횟수에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수강명령을 이수한 날, 비 수강 집단은 보호관찰이 끝난 날로부터 시작하여 재범 조사를 실시한 2014년 5월 1일까지를 연구의 전체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재범이 발생한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범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실'로 정의하였고, 재범을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 '성폭력 재범'으로 정의하였고, 성폭력을 포함한 폭행, 상해,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하나라도 범한 경우는 '폭력 재범'으로 정의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와 폭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하나라도 다시 범한 경우 '전체 재범'으로 정의하였다.

수집된 기초 자료들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결과변인인 재범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에 대해 3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GLM 집단, 일반수강 집단, 비 수강 집단별 재범, 비재범자의 분포를  $\chi^2$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세 번째, 재범의 횟수를 비교하였다. 한 사람이 2회 이상 재범을 한 경우 재범의 횟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GLM 집단, 일반수강 집단, 비 수강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Generalized Wilcoxon test를 통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별 생존기간의 길고 짧음을 지표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 관련 변인, 프로그램 참여 태도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GLM 프로그램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처분 결과, 및 프로그램 이행 태도 분석

다음에 제시하는 표 13은 GLM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7.25세( $SD=2.71$ )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40대 미만의 청·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자가 64.5%에 이르렀다. 기혼 상태인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으로 배우자와 사이가 악화되었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등으로 임시 거처에서 혼자 생활하는 등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하였다. 직업 상태는 무직이거나 일용직 등 근무 형태가 불안정한 대상자가 많았다(55.5%).

[표 13] GLM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 령	39세 미만	87(68.8%)
	40~59세	37(28.9%)
	60세 이상	4(2.3%)
최종 학력	초졸 이하	5(3.9%)
	중 졸	19(14.8%)
	고 졸	70(54.7%)
	대재 이상	34(26.6%)
혼인 상태	미 혼	76(59.4%)
	기혼(동거 포함)	46(35.9%)
	이 혼	6(4.7%)
직업 상태	무 직	43(33.6%)
	학 생	11(8.6%)
	회사원	14(10.9%)
	생산직	6(4.7%)
	일용직	28(21.9%)
	자영업 등 기타	26(20.3%)



해당 집단의 처분 내용 및 수강 집행 현황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보호관찰이 병과 되거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된 대상자가 54명(42.6%)에 이르렀으며, 부과시간은 40시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뤘으나(68.0%) 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약 9%에 해당되었다.<sup>3)</sup>

8회기 미만으로 참여한 비율이 46.9%에 그친 이유는 대상자가 지각이나 결석을 했을 경우 보충 회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2~5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프로그램을 불참하거나 참여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행정조치 후 재배치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16명(12.5%)이 프로그램에서 탈락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GLM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처분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처분 내용	단독 수강 부과	60(46.9%)
	수강 + 사회봉사 부과	14(10.9%)
	수강 + 보호관찰 부과	43(33.6%)
	전자장치 부착	11(8.6%)
부과 시간	40시간	87(68.0%)
	80시간	33(25.8%)
	90~200시간	8(6.2%)
총 회기 수	8회기 이하	60(46.9%)
	20회기 이하	59(46.1%)
	25회기 이하	9(7.0%)
탈락 횟수	0회	112(87.5%)
	1회	12(9.4%)
	2~3회	4(3.1%)

## 2) GLM 치료 집단과 비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경력 관련 변인 차이 검정

3) 2012년 당시 법률에서 정한 수강 혹은 치료이수 명령 부과 가능 시간은 최대 200시간이었다.



GLM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N=128)과 일반 수강명령을 이수한 성범죄자 집단(N=145), 수강명령을 받지 않은 집단(N=146)에 대해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15]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관련 변인			
	만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초범 연령	동종전과 여부	폭력전과 여부	총 범죄 여부
$\chi^2$	.17	.61	.16	.77	1.73	4.58	.86
근사 유의확률	.92	.74	.93	.69	.42	.10	.65

### 3) 성폭력 범죄의 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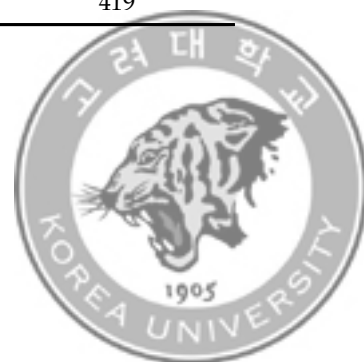
#### (1) 집단별 성폭력 재범 분석

성범죄에 대한 재범자의 숫자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GLM 집단에서는 124명 중 4명이 재범을 하여 3.1%가 성범죄 재범을 하였고, 일반수강 집단에서는 115명 중 30명이 재범을 하여 20.7%가 재범을 하였으며, 비 수강 집단에서는 122명 중 24명으로 16.4%가 동종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GLM 집단의 재범률이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chi^2 = 22.16$ ,  $p < .001$ .

[표 16] 집단별 성범죄 재범자의 수(N=419)

집단	재범(%)	비 재범	계
GLM 집단	4(3.1)	124(96.8)	128
일반수강 집단	30(20.7)	115(79.3)	145
비 수강 집단	24(16.4)	122(83.6)	146
합계	58(13.8)	303(86.2)	419

$\chi^2 = 22.16$ ,  $p < .001$ ,  $df = 2$ ,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함.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성범죄 재범의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GLM 집단은 .04회, 일반수강 집단은 .28회, 비 수강 집단은 .23회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7.91, p < .001$ .

[표 17] 집단별 성범죄 재범 횟수( $N=419$ )

구분	GLM 집단 <sup>a</sup> ( $n=128$ )	일반수강 집단 <sup>b</sup> ( $n=145$ )	비 수강 집단 <sup>c</sup> ( $n=419$ )	$F$	<i>Sheffe</i>
재범횟수	.04(.23)	.28(.62)	.23(.59)	7.91***	a, bc

\*\*\* $p < .001$

## (2) 재범자에 대한 사례 분석

2014년 5월 1일 기준,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 중 성폭력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4명(5.4%)이었다. 이들의 개인적 특성, 범죄력, 프로그램 이수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씨(38세)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 본 사건<sup>4)</sup>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한 건으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고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병식이 없고 보호자의 관리가 어려워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2012년 당시 120시간을 부과 받아 기본프로그램은 지적 제한자들과 별도 배치한 집단에서 이수하였고, 남은 시간은 확장프로그램(개방형)에 참여하여 2012년 12월에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시 관계망상 등으로 쉽게 흥분하는 등 감정통제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다른 구성원들과 어울리지 못하였다. 범죄경력조회 결과 2014년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23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40시간)을 부과 받고 2012년 4월 기본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데, 본 프로그램 전 다른 프로그램에 배치되었다가 2회 연속 무단 불참하여 탈락처리 된 기록이 있다. 2013

4) 2012년 당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 받은 사건을 ‘본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현재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회되었다.

C씨(25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40시간) 처분을 받고 2012년 10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그런데 이수한 당해 연도에 본 건과 유사한 패턴의 동종 재범(본 사건과 동일한 죄명)을 저질러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 수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태도에서 지각이나 무단불참 등의 행동 문제는 없었으나 프로그램 내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D씨(33세)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자로,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 매수가 병합되어 처분을 받았다. 2012년 12월 기본 프로그램(40시간)을 이수하였고, 이듬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사건으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 수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특성을 정리하여 표 18에 제시하였다. 동종재범자들의 평균 연령은 32.25세이며, 평균 생존일은 464.5일로 분석되었다. 결과 해석 시 재범자의 사례수가 적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8] 성폭력 재범자들의 범죄경력 및 프로그램 이행 태도

재범자 (연령)	초범 연령	동종 범죄력	폭력 범죄력	전체 범죄력	프로그램 이행태도	생존일	비고
A씨 (38세)	25세	1회	2회	6회	불량	893일	정신분열병, 편집형
B씨 (23세)	20세	없음	없음	없음	탈락 1회	381일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1회 입건
C씨 (35세)	26세	없음	1회	2회	소극적	268일	
D씨 (33세)	19세	1회	2회	2회	소극적	316일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1회 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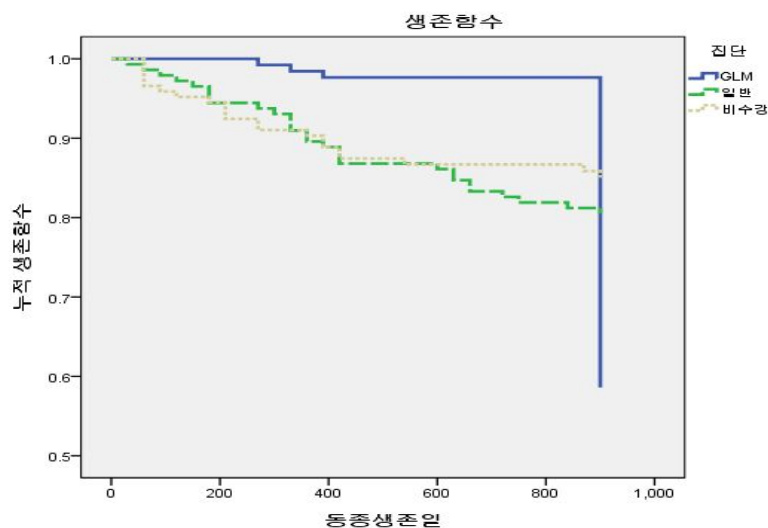


### (3) 생존함수 분석

성폭력 재범 변인과 관련하여 GLM 집단, 일반수강 집단 및 비수강 집단의 재범까지의 생존함수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Wilcoxon  $\hat{A} = 12.15$ ,  $p < .01$ . 재범까지의 생존분석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GLM 집단은 200일이 지날 때까지 재범이 발생하지 않았고, 400일 무렵까지 4건의 사건이 발생한 후 재범이 억제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일반수강 집단 및 비수강 집단은 처치 종료 시점부터 400일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범이 증가하였으며, 600일 이후에는 일반수강 집단이 비수강 집단보다 재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성폭력 재범 생존함수 분석 결과

		Wilcoxon $\hat{A}$	df	p
GLM 집단	일반수강 집단	11.79	1	.001
	비수강 집단	9.80	1	.002



[그림 4] 동종 재범에 대한 집단별 생존곡선



#### 4)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 (1) 집단별 폭력 재범 분석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자의 숫자는 표 20과 같다. GLM 집단에서는 124명 중 12명이 재범을 하여 9.3%가 폭력범죄 재범을 하였고, 일반수강 집단에서는 115명 중 46명으로 31.7%가 재범을 하였으며, 비 수강 집단에서는 122명 중 54명으로 37.0%가 폭력재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GLM 집단의 재범률이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chi^2 = 29.37, p < .001$ .

[표 20] 집단별 폭력범죄 재범자의 수(N=419)

집단	재범(%)	비 재범	계
GLM 집단	12(9.3)	116(90.7)	128
일반수강 집단	46(31.7)	99(68.3)	145
비 수강 집단	54(37.0)	92(63.0)	146
합계	112(26.7)	307(73.3)	419

$$\chi^2 = 29.37, p < .001, df = 2.$$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폭력범죄 재범의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GLM 집단은 .08회, 일반수강 집단은 .16회, 비 수강 집단은 .49회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11.94, p < .001$ .

[표 21] 집단별 폭력범죄 재범 횟수(N=419)

구분	GLM 집단 <sup>a</sup> (n=128)	일반수강 집단 <sup>b</sup> (n=145)	비 수강 집단 <sup>c</sup> (n=419)	F	Sheffe
재범횟수	.08(.35)	.16(.52)	.49(1.10)	11.94***	ab, c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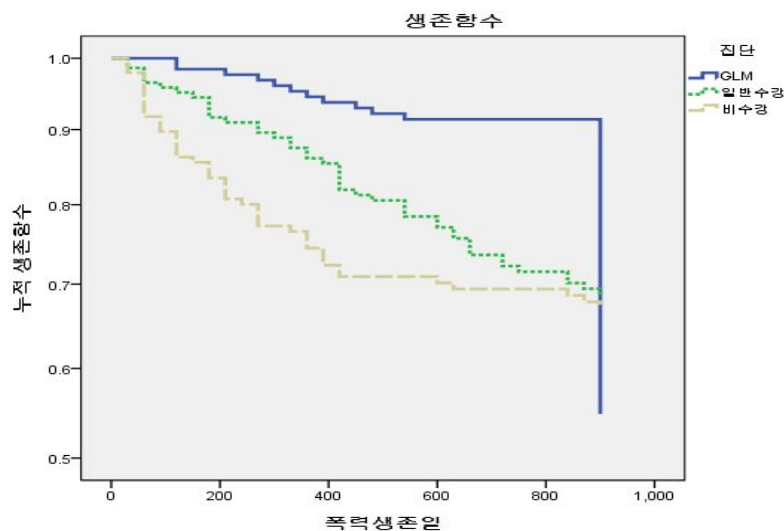


## (2) 생존함수 분석 결과

표 22에 제시한 것처럼 폭력 재범의 생존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Wilcoxon  $\hat{A} = 19.68$ ,  $p < .001$ . 집단 간 비교에서 GLM 집단은 일반 수강 집단 및 비수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재범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재범까지의 생존분석을 그림 5에 제시하였다. GLM 집단은 약 600일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재범이 발생하다가 억제된 모습을 보인 반면, 일반수강 집단과 비수강 집단은 처치 후부터 지속적으로 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수강 집단은 관찰 종료일까지 비슷한 속도로 재범이 발생하였으나 비수강 집단은 400일까지 빠르게 재범이 증가한 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2] 폭력 재범 생존함수 분석 결과

		Wilcoxon $\hat{A}$	df	p
GLM 집단	일반 수강 집단	11.15	1	.001**
	비 수강 집단	20.72	1	.000***



[그림 5] 폭력 재범에 대한 집단별 생존곡선



## 5) 전체 범죄에 대한 재범

### (1) 집단별 전체 범죄 재범 분석

전체 범죄에 대한 재범자의 수를 표 23에 제시하였다. GLM 집단에서는 124명 중 39명이 재범을 하여 30.4%가 전체 범죄 재범을 하였고, 일반수강 집단에서는 115명 중 64명으로 44.1%가 재범을 하였으며, 비 수강 집단에서는 122명 중 71명인 48.6%가 재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GLM 집단, 일반수강 집단, 비 수강 집단 순으로 재범 빈도가 낮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chi^2 = 9.89$ ,  $p < .05$ .

[표 23] 집단별 전체 범죄 재범자의 수(N=419)

집단	재범(%)	비 재범	계
GLM 집단	39(30.4)	89(69.6)	128
일반수강 집단	64(44.1)	81(55.9)	145
비 수강 집단	71(48.6)	75(51.4)	146
합계	174(41.5)	245(58.5)	419

$$\chi^2 = 9.89, p < .05, df = 2.$$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전체 범죄 재범의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GLM 집단은 .40회, 일반수강 집단은 .87회, 비 수강 집단은 1.40회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12.16$ ,  $p < .001$ .

[표 24] 집단별 전체 범죄 재범 횟수(N=419)

구분	GLM 집단 <sup>a</sup> (n=128)	일반수강 집단 <sup>b</sup> (n=145)	비 수강 집단 <sup>c</sup> (n=146)	F	Sheffe
재범횟수	.40(.69)	.87(1.24)	1.40(2.48)	12.16***	ab, c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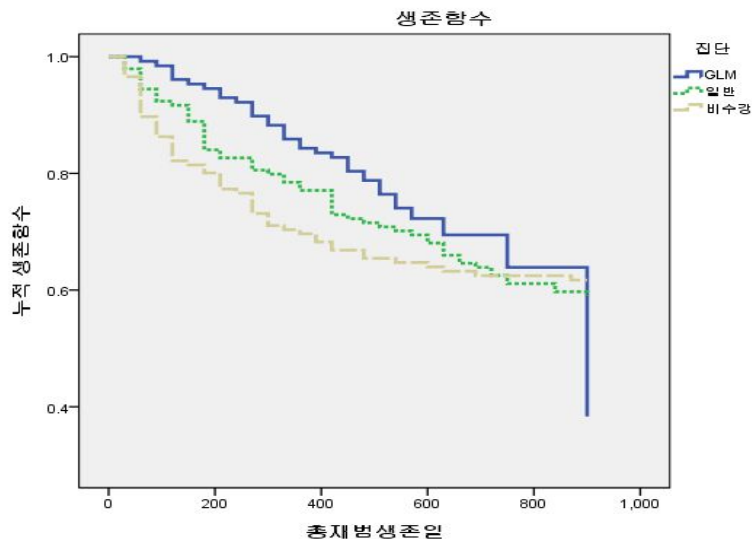


## (2) 생존함수 분석 결과

세 집단의 전체 재범에 대한 생존함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GLM 집단이 일반수강 집단과 비수강 집단에 비해 재범이 발생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전체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Wilcoxon  $\hat{A} = 3.79$ , *ns*. GLM 집단은 일반수강 집단과 전체 범죄 재범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수강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coxon  $\hat{A} = 4.67$ ,  $p < .05$ .

[표 25] 전체 범죄 재범 생존함수 분석 결과

		Wilcoxon $\hat{A}$	<i>df</i>	<i>p</i>
GLM 집단	기타 수강 집단	1.30	1	<i>ns</i> .
	비 수강 집단	4.67	1	.003



[그림 6] 전체 범죄 재범에 대한 집단별 생존곡선



## 6) GLM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 중 재범을 한 사람들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만 나이, 결혼여부, 학력 변인을 고려하였고, 범죄관련 변인 중 초범연령, 동종범죄력, 폭력범죄력, 전체범죄력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변인으로 회기 수, 탈락횟수, 경고를 받은 횟수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학력, 결혼 상태는 재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관련 변인들 중 초범연령이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ald(1) = 4.38$ ,  $e^B = .96$ ,  $p < .05$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범 빈도가 0.96배로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6] 범죄 관련 변인의 재범 예측치에 대한 Cox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B	SE	Wald	p	$e^B$	95% CI	
							하한	상한
단계1	초범연령	-.045	.022	4.377	.036	.956	.916	.997

표 27은 프로그램 관련 변인들에 대한 Cox 회귀모형 분석 결과이다. 프로그램 관련 변인들 중 탈락횟수 및 경고횟수가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횟수,  $Wald(3) = 11.94$ ,  $p < .05$ ; 경고횟수,  $Wald(3) = 6.20$ ,  $e^B = 1.32$ ,  $p < .05$ . 경고를 받은 대상자는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대상자보다 재범이 1.32배로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재범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27] 프로그램 관련 변인의 재범 예측치에 대한 Cox 회귀분석 결과

		<i>B</i>	<i>SE</i>	Wald	<i>p</i>	<i>e<sup>B</sup></i>	95% CI	
							하한	상한
단계1	탈락횟수			11.942	.008			
	탈락횟수(1)	-1.727	1.026	2.835	.092	.178	.024	1.327
	탈락횟수(2)	-.451	1.065	.180	.672	.637	.079	5.135
	탈락횟수(3)	-13.145	337.576	.002	.969	.000	.000	4.326
단계2	탈락횟수			6.279	.099			
	탈락횟수(1)	-.755	1.088	.482	.488	.470	.056	3.962
	탈락횟수(2)	.276	1.099	.063	.802	1.317	.153	11.347
	탈락횟수(3)	-13.836	483.669	.001	.977	.000	.000	.
	경고횟수	.563	.226	6.202	.013	1.756	1.127	2.735

#### 4. 논의

연구 2는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 후 재범률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 생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가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피해자 보호, 즉 성범죄자들의 재범감소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치료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치료적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재범률은 동종 재범, 폭력 재범, 총 재범으로 나눠 분석하였고, 여기서 동종 재범은 성폭력 재범만을 포함한 경우이고, 폭력 재범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사건들에 대한 재범을 말한다. 그리고 전체 재범은 성폭력, 폭력을 포함한 모든 재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에 대해 GLM 집단, 일반수강 집단, 비 수강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성폭력, 폭력, 전체범죄에서 세 집단의 재범과 비재범자의 분포를 비교하였고,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범죄 횟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Generalized Wilcoxon test를 통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세



집단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재범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재범과 비재범자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GLM 집단이 일반수강 및 비수강 집단에 비해 성폭력, 폭력, 전체범죄에서 재범자 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범죄 횟수에 대한 비교에서 성폭력, 폭력, 전체범죄에서 GLM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기록을 보였다. 이 경우 GLM 집단은 성폭력, 폭력, 전체재범 횟수의 각각 7.27%, 10.96%, 14.98%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향후 재범의 감소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폭력 재범의 경우 일반수강 집단이 재범자 수 및 재범 횟수가 비수강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치료적 개입 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교정심리치료의 특수성과 치료자의 변인 등을 고려해야 하며,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성폭력 재범 변인에 대한 생존함수 분석에서 GLM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GLM 집단 128명 중 성폭력 재범을 한 사람은 4명으로 3%의 재범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2010)에서 동종 재범률이 16%로 나타난 것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수치이다. 이수정 등(2010)은 형기 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을 종료한 성범죄자 151명에 대해 2년 후 재범을 추적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이하 KSORAS)의 타당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위험성 상인 집단(15점 이상)이 9%, 위험성 중 이하인 집단(14점 이하)이 7%의 재범률을 보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성 중 이하인 집단의 재범률보다 낮은 수치이다.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이 일반적인 성범죄 재범률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으며,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이 동종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동종재범자의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평균 초범 연령이 22.5세였고, 과거 동종재범 혹은 폭력재범력이 있는 대상자가 4명 중 3명에 이르렀으며, 프로그램 이행태도는 불량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의 평균 생존일은 464.5일(268~893일)로 관찰되었다. 빠른 초범 연령, 과거 동종재범여부 및 폭력재범력 등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예측 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이수정 등, 2008; Hanson & Thornton, 2000),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재범자들도 위의 재범 예측 변인들이 일부 관찰되었다. 재





범자 수가 적어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재범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폭력범죄에 대한 생존함수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GLM 집단은 일반 수감 집단 및 비수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추적한 이유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성폭력 재범과 관련된 정적 요인들(static factors) 중 과거 폭력전과가 유의미한 재범 예측인자로 밝혀진바 있으며, 성폭력도 광의의 개념인 폭력행위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수정 등(2010)의 KOSRAS 타당도 연구에서 위험성 중 이하인 집단 76%, 위험성 상인 집단 6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본 연구의 GLM 집단은 85%의 생존율을 보여 위험성 중 이하인 집단보다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폭력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전체 범죄에 대한 생존함수 분석 결과 GLM 집단, 일반 수감 집단, 비수감 집단이 비슷한 하강 곡선을 그렸으며 전체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GLM 집단과 비수감 집단 간의 생존율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이 심리치료적 개입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성폭력을 포함한 전체 범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GLM 집단의 전체 범죄 재범자들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총 39명 중 10명(25.6%)이 신상정보등록 의무사항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에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신상정보등록의 의무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10~20년으로 정해져 있다. 대상자들은 신상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매 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도 해야 하며, 위반 시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 관련 사항들은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삶 계획 세우기 등과 연결하여 좀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의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이수정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의 전체 재범률은 오히려 일반범죄 재범률보다 낮으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범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장치부착, 신상정보등록법 등을 오랫동안 시행해 온 미국의 경우 성범죄 고 위험군을 선별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주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성범죄 누범자들에 대한 징역형이 매우 길 뿐 아니라 The Community Protection Acts에 의해 지



역사회 등록하여 관리하며, 고 위험군에 해당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 종료 후에도 석방시키지 않고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Sexual Violent Predator(SVP) Law’를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구금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이수정, 2007).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범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성범죄자들이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탈적 성적 기호를 조절하고 친사회적인 심리사회적 자원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생존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좋은 삶 모형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재발방지모형이나 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기존의 치료 프로그램보다 동종 재범과 폭력 재범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이 심리치료적 개입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동종 재범, 폭력 재범, 전체 재범 영역에서 뚜렷하게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수강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치료자의 변인, 강점기반적 접근, 치료 구조화 등 좋은 삶 모형의 치료 관련 변인들이 개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 관련 변인, 프로그램 관련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죄관련 변인 중 초범연령과 프로그램 관련 변인 중 탈락횟수 및 경고횟수가 유의미한 재범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 초범연령이 어릴수록 재범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서 탈락되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재범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프로그램 이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탈락되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서면 경고를 주고 있다. 경고는 프로그램 탈락보다 심각한 제재조치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탈락 변인은 재범 예측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son et al., 2002; Marques et al., 2005; Olver, 2011).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좋은 삶 모형의 접근이 재발방지 모형의 접근보다 프로그램 탈락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Mann, 1998; Mann,



Webster, Schofield, & Marshall, 2004), 대상자의 참여 수준을 높이려면 치료자와 대상자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이수정 등, 2012; Barnett et al., 2014; Marshall, 2011),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VII.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전-사후 자기보고형 심리검사의 변화를 통해 치료의 단기 효과를 측정하고,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추적조사하여 장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 예측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성범죄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고 오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좋은 삶 모형은 범죄 개방이나 대상자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강점 기반적이고 접근 목표(approach goals), 즉 친사회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개인의 내적·외적 자원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Ward & Gannon, 2006; Ward & Marshall, 2004), 자발성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개입 방향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삶 모형의 적용이 미흡한 단계인데,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기 및 장기 치료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심리치료적 개입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유발과 관련된 심리적 영역들을 측정한 자기보고형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의 개입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우울감, 외로움, 정서조절곤란 관련 변인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Hanson 등(2000, 2001)과 Thornton(2002)이 구분한 성범죄의 역동적 위험 요인 중 사회·정서적 기능 및 친밀감 결핍 영역에 해당된다. 부정적 정서와 대처 행동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Catanzaro & Mearns, 1990).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고 이런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취약하여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신영철, 김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양난미, 최윤미와 이지연(2007)은 교도소 수용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비교하였더니, 수용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가 낮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개인적 통제력을 더 적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들이 우울감 및 외로움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들이 경감되었고, 이와 같은 변화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서조절곤란 수준의 *partial  $\eta^2$* 로 측정한 효과크기(effect size)가 .27로, 높은 수준의 치료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서조절은 사회적 판단(Forgas & Vargas, 2000), 일반적인 심리적 행복감(Diener & Lucas, 2000),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Booth & Pennebaker, 2000; Leventhal & Patrick-Miller, 2000)과 명백한 관계가 있으며, 정서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의 정도는 범죄(Hirsch, 2004), 성행동의 표현(Wiederman, 2004), 알코올과 기타 약물의 남용(Hull & Slone, 2004; Sayette, 2004), 그리고 효과적인 애착관계의 형성(Calkins, 2004)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정숙 등, 2012). 정서를 조절하고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경험하고 표현하게 된다(Watson & Greenberg, 1996).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정서조절방략을 확인하고 적절한 감정표현을 장려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훈련 과정을 가졌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대상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개입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기 이해를 향상시키고 자기 수용을 보다 잘 하게 만든다고 한다(Roemer & Borkovec, 1994). 따라서 성범죄자들이 정서를 자각하고 수용하는 능력, 부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사용하는 능력(Gratz & Roemer, 2004)이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보고형 사전-사후 심리검사의 비교에서 충동성, 사회적 자아 존중감, 성을 매개로 한 대처 관련 변인도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성을 매개로 한 대처 변인의 경우 *partial  $\eta^2$* 로 측정한 효과크기(effect size)가 .11로 중간 수준의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위 변인들은 Hanson 등(2000, 2001)과 Thornton(2002)이 구분한 성범죄의 역동적 위험 요인 중 자기 관리 및 자기 조절 영역에 해당된다. 성상희, 홍창희와 김귀애(2014)에 의하면, 자기조절은 정서, 행동, 주의 등 외적 행동을 통제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동들을 억제하고 만족지연, 순응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동조절의 측면(양옥승, 2006), 유혹 저항, 좌절에 대한 인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만족지연 등 정서조절의 측면(Sethi, Mischel, Aber, Shoda, & Rodriguez, 2000),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위인지조절 측면(이정란, 2003)을 포함한다. 자기통제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며(Muffit, 1993), 성상희 등(2014)이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더니 처지집단의 자기 통제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유의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Finkelher의 전제조건모형(1984), Wolf의 순환모형(1984), 중독 모형(Carnes, 2002)에서도 설명하듯이 성범죄자들은 낮은 자존감 등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단절감 등 부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성을 매개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관련 변인이 유의하게 개선된 점은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문제 해결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좀 더 유연하고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인지적 왜곡, 공감 관련 변인에서는 좋은 삶 모형의 개입으로 인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Webster와 Beech(2000)의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결핍은 일반적인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왜곡의 양과 강한 상관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인지적 왜곡은 성과 관련된 통념이나 인지적 오류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식으로, 공감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에 대한 이해와 자기 사건의 피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입이 이뤄졌다. 즉, 기존의 재발방지 모형의 접근과 유사하게 성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Ward와 Marshall(2007)은 성범죄자가 가해로부터 멀어지는 상태(desistance from sex offending), 즉 재활(rehabilitation)이 되려면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개인의 삶의 과거와 미래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과 맥락이 융합된 형태(예, 가치관, 태도, 신념, 사회적 고정관념 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기분변화는 재범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는데(Hanson & Harris, 2000), 재발방지 모형 등의 개입에서는 갑작스러운 기분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 성범죄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기분들은 낮은 자존감, 빈약한 정서조절능력(Kennedy-Moore & Watson, 1999), 혹은 부적절한 대처기술(Serran & Marshall, 2005)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역들을 폭넓게 다뤄줄 때 재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상자의 인지적 왜곡이나 공감 수준이 개선되려면, 심리치료적 개입이 범죄유발요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범죄유발요인들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보다 회기 수를 늘려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개인의 서사적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



도록 개입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존감 관련 변인도 프로그램 사전-사후 심리검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Marshall 등(2009)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개념으로 성범죄자의 낮은 자존감을 설명하였는데, 수치심(shame)은 전반적인 자기상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평가에 기인하며, 죄책감(guilty)은 어떤 특수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다. 즉, 죄책감은 타인-지향적 관점을, 수치심은 자기-초점적인 관점을 촉진시킨다.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수치심은 공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감의 문제는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해의 증거들을 왜곡하는 심리적 특징과 강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의 부족, 낮은 자존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대상자가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은 위반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비수용적인 행동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Frijda, 1986; Roseman, Wiest, & Swariz, 1994; Tangen, 1995), 치료에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존감과 관련된 주제는 공감 및 인지적 왜곡 수준과 연관되어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서사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과 기존의 일반수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추적(610.93일)하여 치료의 장기 효과를 살펴보았다. GLM 집단은 일반수강 및 비 수강 집단에 비해 성폭력, 폭력, 전체범죄에서 재범자 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범죄 횟수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존함수 분석 결과 좋은 삶 모형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기존의 수강프로그램보다 성폭력 재범과 폭력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치료적 개입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성폭력, 폭력, 전체범죄 재범 영역에서 재범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원영 등(2013)은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후 7년 동안의 재범을 추적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 억제의 효과를 높이려면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을 활용하되, 대상자들의 치료적 동기와 좋은 삶을 촉진시키는 모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며, 치료자의 융통성 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재범 추적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범 억제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치료의 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요소들이 재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범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관련 변인, 프로그램 관련 변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재범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범연령 변인과 프로그램 탈락 변인, 그리고 경고 변인이 유의미한 재범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다. 초범연령이 어릴수록 재범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프로그램 이행태도 불량, 프로그램 탈락 등으로 보호관찰관에게 경고를 받는 경우 재범을 더욱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연령은 성범죄자의 정적 위험성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탈락 변인도 재범 예측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Hanson et al., 2002; Marques et al., 2005; Olver, 2011).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탈락률을 낮추려면 대상자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치료자와 대상자의 협력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이수정 등, 2012; Barnett et al., 2014; Marshall, 2011),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의 단기 효과 검증 시 자기보고식 검사를 활용하였는데, 범죄 처우와 연관된 교정 장면에서 대상자가 솔직하게 검사에 응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자료와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자가 채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전 사후 평가 방법도 위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구의 경우 치료자가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식의 평가도구들이 개발·활용되고 있는데,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단계이다. 국립법무병원에서는 Marshall(2011)이 개발한 ‘치료자 평정 척도-개정판(Therapist Rating Scale-2, TRS-2)’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척도는 총 10문항에 대해 지적인 이해 측면과 수용/표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치료자가 관찰, 면담을 통해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제작되었다. 평가 문항은 (1) 인생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 (2) 일반적인 공감능력, (3) 친사회적 태도, (4) 대처기술, (5) 친밀감 형성 기술, (6) 긍정적인 자존감, (7) 일반적인 자기조절능력, (8) 성적 자기조절능력, (9) 자신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10) 양질의 미래생활 설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cGrath 등(2011)이 개발한 Sex Offender Treatment Intervention and Progress Scale(SOTIPS)도 16가지 역동적 위험요인으로 구





성하여 6개월 간격으로 변화의 정도를 치료진들이 평가하도록 제작되었다. 법원이 명령한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하는 보호관찰소의 사정을 고려한 치료자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평정자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도적 여건 등으로 추수 회기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추수 회기는 치료를 통해 획득한 변화나 기술들을 재설정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ennessy, Bolan, Hoxworth, Iatesta, Rhodes, & Zenilman, 1999).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는 필요한 개입이라 판단된다(Youssef, 2013). Hennessy 등(1999)은 경우에 따라 추수 회기의 기간 및 강도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Youssef(2013)은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는 추수 회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자들(McGurie, 2000, Mussack & Carich, 2001)은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은 치료 종료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추수 회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추수 회기를 통해 이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좌절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했던 인지적·행동적 기술들을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법원에서 부과된 시간의 일부를 추수 회기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확보하거나, 보호관찰이 병과된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추수 회기를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치료의 장기 효과를 살펴본 재범연구에서 무선통제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다. 비수강자의 경우 판결 시 수강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인데, 수강명령만 부과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죄질이 무거울 수 있으며 반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 받은 대상자보다 죄질이 가벼울 수도 있다. 즉, GLM 집단과 일반 수강집단은 비슷한 정도의 죄질을 가진 유사설계이나 비수강자들은 두 집단에 비해 죄질이 다를 수 있다는 오차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무선 할당을 통해 치료적 개입의 변화 기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재범 추적 기간이 약 2년으로 짧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교도소를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동종범죄 재범률을 추적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Hanson & Bussiere, 1998; Schram & Milloy, 1998;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 2007), 관찰기간 1년 3.2%, 3년 7.3%, 10년 11.3%의 재범률을 나타냈다. 전체범죄 재범률을 살펴보면 관찰기간 1년 24.6%, 3년 60.7%, 10년 9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찰기간이 늘어날수록 재범률은 높아진다(이수정 등, 2010).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정도의 관찰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노일석,



2011; 이수정과 김정옥, 2005), 외국의 경우 20년 이상의 걸친 추적조사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개입으로 인한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 이수 집단의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범연령 변인, 프로그램 탈락 변인, 경고 변인이 미래의 재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제한적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처치집단의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예측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좋은 삶 모형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통해 변화된 다양한 역동적 위험요인들이 재범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성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삶 모형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심리치료적 개입이 정서 및 사회적 기능 영역과 자기조절 영역의 개선 뿐 아니라 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교도소와 국립법무병원 등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보호관찰소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입 시기가 대상자의 입소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 각자의 형량만큼 수용생활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획득한 인지적·행동적 기술들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입으로 변화한 기제들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소홀히 다뤘던 자기조절 관련 변인들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치료의 단기 효과 분석에서 정서 및 사회적 기능 영역과 자기조절 영역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 정서들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의 장기 효과를 통해 처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의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개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성범죄 경로모형, 재범모형 등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우리나라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복미를 비롯한 서구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험요인, 범죄발생원인, 심리치료적 개입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



워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정시간 심리치료적 개입을 하도록 법률적인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범죄자의 심리학적 기제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성범죄자 치료 원칙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언급했듯이(송원영 등, 2013; 윤정숙 등, 2012), 성공적인 치료가 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즉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반영하여 치료를 구조화하고 고위험군, 사건을 부인하는 대상자 집단, 사고 장애 및 지적제한이 있는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상에 해당되는 전자발치 부착 대상자들이 소수인원이어서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 그들의 범죄 유발 요인이나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소급 적용이 합헌으로 확정되면서 이듬해부터 해당 인원 및 부과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인 재범 추적을 통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외국의 경우 연령별, 성별,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재범 추적 연구를 통해 각 유형의 재범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개입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연구 분야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와 관련 학계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 및 세분화된 프로그램 매뉴얼이 필요하다. 일명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공연음란(숙청 버버리맨)’ 등은 비접촉유형(hand-off type)으로 강간범들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의 동종재범빈도가 높은 편이다.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중독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모형,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개입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13). **경찰백서**.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35>.
-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문제**, **10**, 117-146.
- 국립법무병원 (2012).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핵심(Core) 프로그램**.
- 국립법무병원 (2012). **치료감호소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한 확장 심리치료 프로그램**, 법무부.
- 김덕일, 송원영 (2010). 성범죄자 심리치료 : 통합적 접근.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
- 김경섭, 이경재 (1998).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김영사.
- 김옥수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대한간호학회지**, **27**, 871-879.
- 노일석 (2011). 소년 성폭력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 평가. **보호관찰**, **11(1)**, 55-80.
-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http://www.spo.go.kr/spo/search.jsp>
- 민우회 (2003).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 박광배 (2011). **다변량분석**. 학지사.
- 박재빈 (2007).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 법무부 (2008). **성폭력 가해자의 가족통합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적 지원 프 로그램**.
- 법무부 (200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를 위한 성범죄자 프로그램 매뉴얼**.
- 법무부 (2011). **성범죄자치료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 법무부 (2014).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순환형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8(2)**, 157-175.
- 송경일, 최중수 (2011). **SPSS 15를 이용한 생존자료의 분석**. 한나래 출판사.
- 송원영 (2006).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 세대학교 대학원.



- 송원영 (2010). **국내외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William Marshall 박사 초청 성범죄자 심리치료 워크숍, 191-211.
-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2(3)**, 667-682.
-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2008). 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및 단기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7(2)**, 547-569.
- 신영철, 김혜정, 정재열, 신우승, 이영찬 (2005).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법무부.
- 안재익 (2010). **SPSS 18.0 의학·보건학 통계분석: 병원 전산화 자료 사용**. 한나래 출판사.
- 양난미, 최윤미, 이지연 (2007). 범죄자와 일반인의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비교. **상담학연구, 8(4)**, 1277-1290.
- 양옥승 (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여성가족부 (2005, 2010).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여성가족부 (2010). **성범죄 고위험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 연세대 정신의학교실 (2006).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 연세대 정신의학교실 (2010). **인간존중 프로그램, 지적제한자용**.
- 윤정숙 (2012).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교정담론 6(1)**, 215-242.
- 윤정숙, Marshall, W. L., Knight, R. A., Sims-Knight, J. E., & 이수정 (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 이수정 (201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47-875.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수정 (2006). **최신 범죄심리학(pp.248)**. 북까페.
- 이수정 (2007). **국내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법무부 :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연구, 4-139.



-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 309-345.
- 이수정, 고려진, 최혜림 (2010).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99-1016.
-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을 실태 및 치료적 대안 모색: 보안감시를 넘어서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83-99.
- 이영점, 김복희, 이수정 (2012).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심리치료의 기본 원리와 재범방지 대책.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3**, 127-152.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IP-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소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 대학교 대학원.
- 이현수 (1994). **충동성검사**. 서울: 한국 가이던스.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주간동아 (2012). 성범죄 이대론 안 된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상담치료보다 효과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
- 형사정책연구원 (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 형사정책연구원 (2012). **Training for the trainers: A strength-based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Dr. Marshall 초청 성범죄자 치료자 워크숍.

- Abel, G. G., Becker, J. V., Mittelman, M. S., Cunningham-Rathner, J.m Rouleau, J. L., & Murphy, W. D. (1987). Self-reported sex crimes of nonincarcerated paraphiliac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2*, 3-25.
- Abel, G. G., & Rouleau, J. L. (1986). Sexual disorders. In G. Winokur & P. Clayton (Eds.) *The Medical basis of psychiatry* (pp. 246-267). Philadelphia: W. B. Saunders.
- Anderson, D., & Dodgson, P. G. (2002). Empathy deficits, self-esteem, & cognitive



- distortions in sexual offenders. In Y. M. Fernandez(Ed.), *In their shoes: Examining the issue of empathy and its place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pp. 73-90). Oklahoma City, OK: Wood 'N' Barnes Publishing.
- Andrews, D. A., & Bonta L.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 Andrews, D. A., & Bonta, J., & Wormith, J. S. (2011). The risk-need-responsivity(RNR) model: Dose adding the good lives model contribute to effective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 735-755.
- Aos, W., M. Miller, & E. Drake (2006). *Evidence-based adult corrections programs: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Olympia, Wash: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Document No. 06-01-1201.
- Asu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 338-37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u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78). Reflections on self-efficacy.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 237-369.
- Barbaree, H. E., Marshall, W. L., Yates, E., & Lightfoot, L. O. (1983). Alcohol intoxication and deviant sexual arousal in male social drink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 365-373.
- Barnett, G., & Mann, R. E. (2012). Empathy deficits and sexual offending: A model of obstacles to empath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 Barnett, G. D., Manderville-Norden, R., & Rakestrow, J. (2014). The Good Lives Model or Relapse Prevention: What works better in facilitating change?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6(1), 3-33.
- Bartholomew, K., & Perlman, D.(Eds.) (1994).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London: Jessica Kingsley.
- Bates, A., Falshaw, L., Corbett, D., Patel, V., & Friendship, C. (2004). A follow-up



- study of sex offenders treated by Thames Valley Sex Offender Groupwork Programme, 1995-1999.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0(1), 29-38.
- Bates, A., & Metcalf, C. (2007). A psychometric comparison of internet and non-internet sex offenders from a community treatment sampl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3, 11-20.
- Batson, C. D. (1987). Prosocial motivation: Is it ever truly altruistic?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pp.65-122). New York: Academic Press.
-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Erlbaum.
- Baumeister, R. F. (1993).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Plenum Press.
- Baumeister, R. F. & Heatherton, T. F. (1996). Self-regulation failure: An overview. *Psychological Inquiry*, 7, 1-15.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4).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Guilford.
- Beckett, R., Beech, A., Fisher, D., & Fordham, A. (1994). *Community-based treatment for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seven treatment programmes*. London: Home Office.
- Beech, A., Erickson, M, Friendship, C., & Ditchfield, J. (2001). A six-year follow-up of men going through probation-base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s. *Home Office Research and Statistic Directorate, Research Findings*, 144.
- Beech, A. R., Fisher, D. (2002). The rehabilitation of child sex offenders. *Australian Psychologist*, 37, 206-214.
- Beech, A. R., Fisher, D., & Beckett, R. (1998). *STEP 3: An evaluation of the prison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London: Home Office.
- Beech, A. R., & Fordham, A. S. (1997). Therapeutic climate of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9(3), 219-237.
- Beech, A. R., Mandeville-Norden, R., & Goodwill, A. (2012). Comparing recidiv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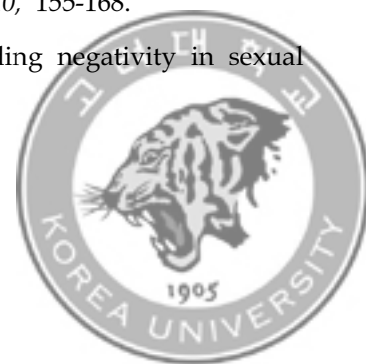
- rates of treatment responders/nonresponders in a sample of 413 child molesters who had completed community-based sex offender treatment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6(1), 29-49.
- Berlin, L. J., & Cassidy, J. (1999). Relations among relationships: Contributions form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688-712). New York: Guildford Press.
- Blader, J. C., & Marshall, W. L. (1989). Is assessment of sexual arousal un rapists worthwhile? A critique of response compatibility approach.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9, 569-587.
- Blaine, B., & Crocker, J. (1993). Self-esteem and self-serving biases in reac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55-85). New York: Plenum.
- Booth, R. J., & Pennebaker, J. W. (2000). Emotion and immunity. In M. Lewis and J.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ition*. New York: Guildford.
- Boss, M. (1949). *Meaning and content of sexual perversions*. New York: Grune & Stratton.
- Brittain, R. F. (1970). The sadistic murderer.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0, 198-207.
- Browne, K. D., Foreman, L., & Middleton, D. (1998). Predicting treatment drop-out in sex offenders. *Child Abuse Review. Special Issue: Working with sex offenders*, 7(6), 402-419.
- Burt, M. R. (1983).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lkins, S. D. (2004). Early attachment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Baumeister & Vohs. (Eds.). *The handbook of self-regul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arnes, P. (2002). In memoriam Richard Irons, M. D. (1948-2002).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9, 185-187.
- Carver, C. S., & Scheier, M. E.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NY: Springer-Verlag.
- Carver, C. S., & Scheier, M. E. (1998).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ver, C. S., & Scheier, M. E. (1990).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Action and emo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social behavior*(pp. 3-52). New York, NY : Guilford.
- Cassidy, J., & Shaver, P. R.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Check, J. V. P., Malamuth, N. M., Elias, B., & Barton, S. (1985, April). On hostile ground. *Psychology Today*, 56-61.
- Cochran, W., & Tesser, A. (1996). The "What the hell" effect: Some effects of goal proximity and goal framing on performance. In L. L. Martin & A. Tesser (Eds.),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pp. 99-120). New York, NY: Lawrence Erlbaum.
- Cortoni, F., & Marshall, W. L. (1995). *Childhood attachment, juvenile sexual history and adult coping skills in sex offenders*. Paper presented at the 14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s of Sexual Abusers. New Orleans, LA.
- Cortoni, F., Heil, P., & Marsahll, W. L. (1996). *Sex as a cop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Chicago, IL.
- Covell, C. N., & Scalora, M. J. (2002). Empathic deficits in sexual offenders: An integration of affective, social, and cognitive construct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251-270.
- Craig, L. A., Browne, K. D., & Stringer, I. (2003a). Risk scale and factors predictive



- of sexual offence recidivism. *Trauma, Violence & Abuse*, 4, 45-68.
- Craig, L. A., Browne, K. D., Stringer, I., & Beech, A. (2005). Sexual recidivism: A review of static, dynamic and actuarial predictor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 63-82.
- Craig, L. A., Thorenton, D., Beech, A., Browne, K. D. (2007). The relationship of statistical and psychological risk markers to Sexual reconviction in child molest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3), 314-329.
- Davis, M. H., & Kraus, L. A. (1997). Personality and empathic accuracy. In W. Ickes (Ed.), *Empathic accuracy* (pp. 144-168). New York: Guildford Press.
- Dean, D., Mann, R. E., Milner, R., & Maruna, S. (2007). Changing child abusers cognitions. In T. A. Gannon, T. Ward, A. R. Beech, & D. Fisher (Eds.), *Aggressive offender's cognition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17-134).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 Deitz, S. R., Blackwell, K. T., Daley, P. C., & Bentley, B. J. (1982). Measurement of empathy toward rape victims and rap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372-384.
- DiClemente, C. C. (1991).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the stages of change. In W. R. Miller & S. Rollnick (Eds.), *Motivational interviewing: Preparing people to change addictive behavior* (pp. 191-202). New York: Guilford Press.
- Diener, E., & Lucas, R. E. (2000). Explaining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41-78.
- Eisenberg, M., & Miller, P. A. (1987). Empathy, sympathy and altruism: Empirical and conceptual link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92-3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1999). *The psychology of ultimate concerns*. New York, NY: Free Press.
- Farr, C., Brown, J., & Beckett, R. (2004). Ability to empathise and masculinity levels: Comparing male adolescent sex offenders with a normative sample of nonoffending adolescents. *Psychology, Crime & Law*, 10, 155-168.
- Fernandez, Y. M. (2006). Focusing on the positive and avoiding negativity in sexual



- offender treatment. In W. L. Marshall, Y. M. Fernandez, L. E. Marshall, & G. A. Serran (Eds.), *Sexual offender treatment: Controversial issues* (pp.187-197).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 Fernandez, Y. M., & Marshall, W. L. (2003). Victim empathy, social self-esteem, and psychopathy in rapists.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1), 11-26.
- Fernandez, Y. M., Marshall, W. L., Lightbody, S., & O'Sullivan, C. (1999).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an examination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 17-31.
- Finkelhor, D. (1984). *Child sexual abuser: New theory and research*. Free Press, New York.
- Fisher, D. (1997). *Assessing sexual offenders' victim empathy*.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Birmingham, Birmingham, UK.
- Fisher, D., Beech, A., & Browne, K. (1999). Comparison of sex offenders to nonoffenders on selected psychological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3, 473-491.
- Forgas, J. P., & Vargas, P. T. (2000). The effects of mood on social judgement and reasoning.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Guildford Publishing: New York.
- Friendship, C., Mann, R. E., & Beech, A. R. (2003). Evaluation of a national prison-based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744-759.
- Friestad, C. (2012). Making sense, making good, or making meaning? Cognitive distortions as targets of change in offender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6(3), 465-482.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ltz, J., Schaller, M., & Cialdini, R. B. (1988). Empathy, sadness and distress: Three related but distinct vicarious affective responses to another's suffer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897-907.
- Gannon, T. A., King, T., Miles, H., Lockerbie, L., & Willis, G. M. (2014). Good lives



- sexual offender treatment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ritish Journal of Forensic Practice*, 13, 153-168.
- Grady, M. D., Brodersen, M., & Abramson, J. M. (2011). The state of psychological measures for adult sexual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227-240.
- Gross, C. A., & Hanson, N. E. (2000). Clarifying the experience of shame: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gender, and investment in related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897-907.
- Hall, G., & Barongan, C. (1997).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Sociocultur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Psychologist*, 52(1), 5-14.
- Hamilton, M. & Yee, J. (1990). Rape knowledge and propensity to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 111-112.
- Hanson, R. K. (1999). Working with sex offenders: A personal view.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4, 81-93.
- Hanson, R. K. & Bussiè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48-362.
- Hanson, R. K., Gordon, A., Harris, A. J., Marques, J. K., Murphy, W., Quinsy, V. L., & Seto, M. C. (2002). First report of the collaborative outcome data project on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Sex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4(2), 169-194.
- Hanson, R. K., & Harris, A. (2000). Where should we intervene? Dynamic predictors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6-35.
- Hanson, R. K., Harris, A. J. R., Scott, T., & Heimus, L. (2007). *Assessing the risk of sexual offenders on community supervision: The dynamic supervision project*. User report No. 2007-05. Ottawa" Public Safety Canada.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 An updated meta-analysis*.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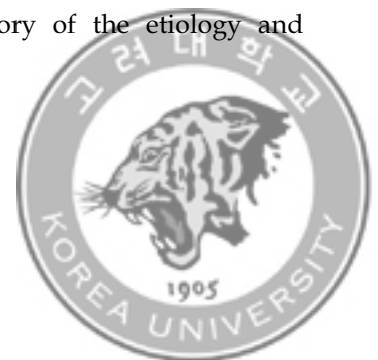


-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1154-1163.
- Hanson, R. K., & Thornton, D. (1999). *Static-99: Improving actuarial risk assessment for sex offenders*. User report 99-02. Ottaw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Hanson, R. K., & Yates, P. M. (2004). Sexual violence: Risk factors and treatment. In M. Eliasson (Ed.), *Anthology on interventions against violent men*, Uppsala, Sweden: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 Harkins, L., & Beech, A. (2007). A review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sexual offender treatment: Risk, need, responsivity, and process issu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615-627.
- Harkins, L., Flak, V. E., Beech, A. R., & Woodhams, J. (2012). Evaluation of a community-base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using a Good Lives Model approach.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4(6), 519-543.
- Heatherton, T. F., & Ambady, M. (1993). Self-esteem, self-prediction and living up to commitm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131-145). New York: Plenum.
- Hennessy, M, Bolan, G., Hoxworth, T., Iatesta, M., Rhodes, F., & Zenilman, J. (1999). Using growth curves to determine the timing of booster s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322-342.
- Hirschi, T. (2004). Self-control and crime.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47-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lund, C. L., & Nicholas, K. B. (1995). Shame, guilt, and anger in college students exposed to abusiv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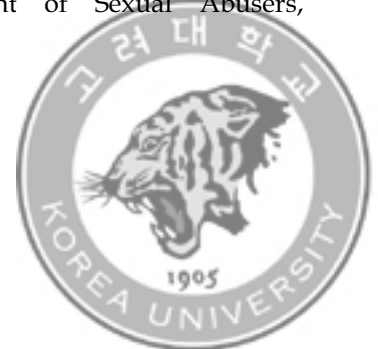


10, 141-157.

- Holmes, S. T., & Holmes, R. M. (2002). *Sex crimes, Patterns and behaviors* (pp.173), Sage Publications.
- Howitt, D. (1991a). Britain's substance abuse policy: Realities and regulation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 87-111.
- Hudson, S. M., & Ward, T. (1997). Intimacy, loneliness, and attachment style in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323-339.
- Hull, J. G., & Hirschman, R. (1991). Toward a theory of sexual aggression: A quadripartit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662-669.
- Hull, J. G., & Slone, L. B. (2004). Alcohol and self-regulation.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466-491). New York: Guildford Press.
- Ickes, W. (1997). *Empathic accuracy*. New York: Guildford Press.
- Johnston, L., Hudson, S. M., & Ward, T. (1997). The suppression of sexual thoughts by child moleste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34, 303-319.
- Johnston, L., & Ward, T. (1996). Social cognition and sexual offending: A theoretical framework. *Sexual Abuse: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 55-80.
- Kennedy-Moore, E., & Watson, J. C. (1999).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New York: Guildford.
- Kernis, M. F.,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1023.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M.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Laws, D. R., & Marshall, W. L. (1990). A conditioning theory of the etiology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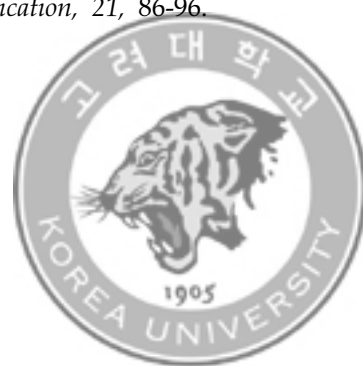
- maintenance of deviant sexual preference and behaviour. In W. L. Marshall, &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s: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offenders* (pp. 103-113). NY: Plenum.
- Laws, D. R., & Ward, T. (2011). *Desistance from Sex Offending : Alternatives to throwing away the keys*. The Guilford Press.
- Lawson, J. S., Marshall, W. L., & McGrath, P. (1979). The social self-esteem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9, 803-811.
- Leventhal, H., & Patrick-Miller, L. (2000). Emotions and physical illness: Causes and indicators of vulnerability.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 (pp. 523-537). New York: Guildford.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Press.
- Lindsay, W. R., Ward, T., Morgan, T., & Wilson, I. (2007). Self-regulation of sex offending, future pathway and the Good Lives Model: Applications and problem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3(1), 37-50.
- Lösel, F. (2010). *What works in offender rehabilitation: A glob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rrections and Prisons Association.
- Lösel, F., and Schmucker, M. (200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1), 117-146.
- MacCulloch, M. J., Snowden, P. R., Wood, P. J. W., & Mills, H. E. (1983). Sadistic fantasy, sadistic behavior and offending.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20-29.
- Malamuth, N. (1981). *Rape attitudes and sexual arousal as predictors of non-deviants' aggression against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Canadian Psychology Association, Toronto.
- Mann, R. E. (1998). *Relapse prevention? Is that the bit where they told me all of the things that I couldn't do anymore?* 17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Vancouver, BC, October 2003.

- Mann, R. E. (2000). Managing resistance and rebellion in relapse prevention intervention. In D. R. Laws, S. M. Hudson, & T. Ward (Eds.), *Remaking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A sourcebook* (pp.187-20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nn, R. E., Webster, S. D., Schofield, C., & Marshall, W. L.(2004). Approach versus avoidance goals in relapse prevention with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6, 65-75.
- Margues, J. K., Wiederanders, M., Day, D. M., Nelson, C., & van Ommeren, A. (2005). Effects a relapse prevention program on sexual recidivism: Final results from California's Sex Offender Treatment and Evaluation Project(SOTEP).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7(1), 79-107.
- Marques, J. K., Day D. M., & Nelson, C. (1992).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California's experimental treatment program*. Unpublished manuscript, Sex offender treatment and evaluation project. Atascadero State Hospital, California.
- Marques, J. K., Nelson, C., Alarcon, J. M., & Day, D. M. (2000). Preventing relapse in sex offenders: What we learned from SOTEP's experimental treatment program. In D. R. Laws, S. M. Hudson, & Word (Eds.). *Remaking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 A somebook* (pp. 321-340). Thousand Oaks, CA: Sage.
- Marshall, W. L. (1971). A combined treatment method for certain sexual devi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 293-294.
- Marshall, W. L. (1993). The role of attachment, intimacy, and loneliness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sexual offending. *Sexual and Marital Therapy*, 8, 109-121.
- Marshall, W. L.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viant sexual arousal in nonfamilial child molesters. *Behavior Modification*, 21, 86-96.



- Marshall, W. L. (2005). Therapist style in sexual offender treatment: Influence on indices of change.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7(2), 109-116.
- Marshall, W. L., Anderson, D., & Fernandez, Y. M. (1999). *Cognitive behaviou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Chichester, England : John Wiley & Sons.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88). The long-term evaluation of a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for child molest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499-511.
- Marshall, W. L., & Barbaree, H. E., & Fernandez, Y. M. (1995). Some aspects of social competence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113-127.
- Marshall, W. L., Campagne, F., Brown, C., & Miller, S. (1997). Empathy, intimacy, loneliness, and self-esteem in nonfamilial child molesters.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113-127.
- Marshall, W. L., Campagne, F., Sturgeon, Cl, & Bryce, O. (1997). Increasing the self-esteem of child molest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9, 321-333.
- Marshall, W. L., Cripps, E., Anderson, D., & Cortoni, F. A. (1999).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in child molester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14, 955-962.
- Marshall, W. L., & Darke, J. (1982). Inferring humiliation as motivation in sexual offenses. *Treatment for Sexual Aggressiveness*, 5, 1-3.
- Marshall, W. L., & Fernandez, Y. M. (2003). *Phallometric testing with sexual offender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Brandon, VT: Safer Society Press.
- Marshall, W. L. & Hambley, L. S. (1996). Intimacy and loneliness, and their relationship to rape with acceptance and hostility toward women among rapis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86-592.
-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99-113.



- Marshall, W. L., Marshall, L. E. (2012). Integrating strength-based models in psychologic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4(1), 53-58.
- Marshall, W. L., Marshall, L. E., Serran, G. A., & Fernandez, Y. M. (2006). *Treating sexual offenders : An integrated approach*. Taylor & Francis Group.
- Marshall, W. L., Marshall, L. E., Serran, G. A, & O'Brien, M. D. (2009). Self-esteem, shame,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in sexual offenders: their integra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 *Psychology, Crime & Law*, 15(2 & 3), 217-234.
- Marshall, W. L., Marshall, L. E., Serran, G. A., & O'Brien, M. D. (2011). *Rehabilitating sexual offenders: A strength-based approa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shall, W. L., & Mazzucco, A. (1995). Self-esteem and parntental attachments in child molest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279-285.
- Marshall, W. L., Serran, G. A., Fernandez, Y. M., Mulloy, R., Mann, R. E., & Thornton, D. (2003). Therapist characteristics in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Tentative data on their relationship with indices of behaviour chang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9(1), 25-30.
- Marshall, W. L., Serran, G. A., Moulden, H., Mulloy, R., Fernadez, Y. M., Mann, R. E., & Thornton, D. (2002). Therapist features in sexual offender treatment: Their reliable identification and influence on behaviour chang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 395-405.
- Marshall, W. L., Thornton, D., Marshall, L. E., Fernandez, Y. M., & Mann, R. (2001).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who are categorical denial: A pilot project. *Sexual Abuse: A Journal of Abuse and Treatment*, 13, 205-215.
- Maruna, S., & Mann, R. E. (2006). A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Rethinking cognitive distorti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1, 155-177.
- McGrath, R. J., Cumming, G. F., & Burchard, B. L., Zeoli, S., & Ellerby, L. (2010). *Current practices and emerging trends in sexual abuser management*. Bra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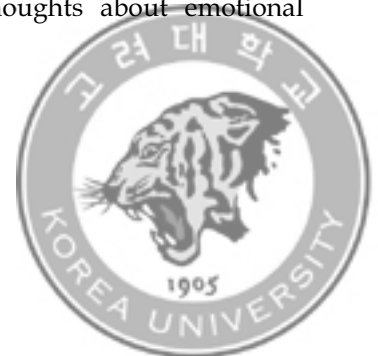


VT: Safer Society Press.

- McGuire, T. (2000). Correctional institution based sex offender treatment: A lapse behavior stud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8, 57-71.
- McKibben, A., Proulx, J., & Lusignan, R. (1994). Relationships between conflict, affect, and deviant sexual behaviours in rapists and paedophil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571-575.
- Miller, W. R., & Rollnick, S. (2002). *Motivational Interviewing: Preparing people for change* (2nd ed.). New York: Guildford Press.
- Mills, J. F., Kroner, D. G., & Forth, A. E. (1998). Novaco Anger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in and adult criminal sample. *Assessment*, 5(3), 237-242.
- Miner, M. H., Day, D. M., & Nafpaktitis, M. K. (1989). Assessment of coping skills: Development of a situational competency test. In D. R. Laws (Ed.),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pp. 127-136). New York: Guildford.
- 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s (2007). *Sex offender recidivism in Minnesota*. from [www.doc.state.mn.us](http://www.doc.state.mn.us).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474-505.
- Moore, D. L., Bergman, B. A., & Knox, P. L. (1999). Predictors of sex offender treatment comple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7(3), 73-88.
- Morgan, R. W., Luborsky, L., Crits-Christoph, P., Curtis, H., & Solomon, J. (1982). Predicting the outcomes of psychotherapy using the Penn Helping Alliance Rating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397-402.
- Mussack, S., & Carich, M. (2001). Aftercare programming. In M. Carich & Mussack (Eds.), *Handbook for sexual abuse,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25-236). Brandon, VT: Safer Society Press.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Steadman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pp. 21-5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lver, M. E., Stockdale, K. C., & Wormith, J. S. (2011).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offender treatment attr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recidiv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9, No.1*, 6-21.
- Olver, M. E., Nicholaichuk, T. P., Gu, D., & Wong, S. C. P. (2012). Sex offender treatment outcome, actuarial risk, and the aging sex offender in Canadian corrections: A long-term follow-up.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5*(4), 296-422.
- Pelham, B. W. (1993). On the highly positive thought of the highly depressed.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183-199). New York: Pleunm.
- Pithers, W. D. (1990). Relapse prevention with sexual aggressions: A method for maintaining therapeutic gain and enhancing external supervision. In W. L. Marshall (Ed.),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pp. 343-361). New York: Plenum Press.
- Pithers, W. D., Beal, L. S., Armstrong, J., & Petty, J. (1989).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s through clinical interviews and analysis of records. In R. D. Laws (Ed.),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pp. 77-87). New York: Guildford Press.
- Polaschek, D. L. L. (2012). An appraisal of the Risk-Need-Responsivity(RNR) Model of offender rehabilitation and its application in correctional treatment.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7*, 1-17.
- Proulx, J., McKibben, A., & Lusignan, R. (1996). Relationships between affective components and sexual behaviors in sexual aggression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 279-289.
- Rich, P. (2003). *Juvenile sexual offenders*. New Jersey: Wiley.
- Rich, P. (2006). *Attachment and sexual offending: Understanding and applying attachment theory to the treatment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 Roemer, L., & Borkovec, T. (1994). Effects of expressing thoughts about emotional



- materia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467-474.
- Roseman, I. J., Wiest, C., & Swartz, T. S. (1994). Phenomenology, behaviors, and goals differentiate discrete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06-221.
- Russe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chram, D., & Milloy, C. D. (1998). *Sexually violent predators and civil commitmen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of sex offenders considered for civil commitment but for whom proceedings were declined*.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Seligman, M. E. P. (2003). *Authentic happiness* (2nd ed.). London, England: Nicholas Brealey.
- Serran, G., Fernandez, Y., and Marshall, W. L. (2003). Process issues in treatment: Application to sexual offender program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368-374.
- Serran, G. A., & Marshall, L. E. (2005). Coping and mood in sexual offending. In W. L. Marshall, Y. M. Fernandez, L. E. Marshall, & G. A. Serran (Eds.), *Sexual offender treatment: Controversial issues* (pp. 109-124). Chichester, UK: Wiley.
- Sethi, A., Aber, J. L., Shoda, Y., Rodriguez, M. L., & Mischel, W. (2000). The role of 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 in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edicting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from mother-toddl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767-777.
- Shaver, & Hazan (1989). Being lonely, falling in love: Perspectives from attachment theory. In M. Hogat, & R. Crandall (Eds.), *Loneliness: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105-124). Newbury, Park, CA: Sage.
- Simons, D. A., McCullar, B., & Tyler, C. (2006). *Evaluation of the good lives model approach to treatment planning*. Paper presented at the 25th annual



-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Chicago, IL.
- Simons, D., Tyler, C., and Lins, R. (2006). *The influence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on treatment progress*. Poster session at the annual conference for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Chicago.
- Spencer, S. J., Josephs, R. A., & Steele, C. M. (1993). Low self-esteem: The uphill struggle for self-integrity.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21-36). New York: Plenum.
- Strayer, J. (1993). Children's concordant emotions and cognitions in response to observed emotions. *Child Development*, 64, 188-201.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and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114-139).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0). Self-esteem, self-handicapping, and self-presentation: The strategy of inadequate practice. *Journal of Personality*, 58, 443-464.
- Tierney, D. W., & McCabe, M. P. (2002). Motivation for behavior change among sex offen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113-129.
- Thornton, D. (2002). Constructing and testing a framework for dynamic risk assessment.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4, 137-151.
- Thornton, D., Beech, A., & Marshall, W. L. (2004). Pretreatment self-esteem and posttreatment sexual recid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8, 587-599.
- U. S. Department of Justice. (2003). *Recidivism of sex offenders released from prison in 199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 S. Department of Justice.
- Wakeling, H. C., Freedmantel, N., Beech, A. R., & Elliott, I. A. (2011). Identifying predictors of recidivism in a large sample of United Kingdom sexual offenders: A prognostic model. *Psychological Services*, 8(4), 307-318.



- Ward, T. (2002). Good lives and the rehabilitation of sexual offenders: Promises and problem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513-528.
- Ward, T. (2010). The Good Lives Model of offender rehabilitation: Basic assumptions, aetiological commitments, and practice implications. In F. McNeill, P. Raynor, & C. Trotter (Eds.), *Offender supervision: New direction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41-64). Oxon, UK: Willan Publishing.
- Ward, T., & Beech, A. (2006). An integrated theory of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 44-63.
- Ward, T., & Gannon, T. A. (2006). Rehabilitation, etiology, and self-regulation: The comprehensive good lives model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 77-94.
- Ward, T., & Hudson, S. M. (1998). A model of the relapse process in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700-725.
- Ward, T., Hudson, S. M., & Marshall, W. L. (1996). Attachment style in the sex offender: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Sex Research*, 33, 17-26.
- Ward, T., Hudson, S. M., Marshall, W. L., & Siegert, R. (1995). Attachment style and intimacy deficits in sex offenders: A theoretical framework. *Sexual Abuse*, 7, 317-315.
- Ward, T., Hudson, S. M., & McCormack, J. (1997). Attachment style, intimacy deficits, and sexual offending. In B. K. Swartz & H. R. Cellini (Eds.), *The sex offender: New insights, treatment innovations, and legal developments* (pp. 1-14). Kingston, NJ: Civic Research Institute.
- Ward, T., & Laws, D. R. (2010). Desistance from sex offending: Motivating change, enriching pract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9(1), 11-23.
- Ward, T., Loudon, K., Hudson, S. M., & Marshall, W. L. (1995). A descriptive model of the offence proc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453-473.
- Ward, T., & Mann, R. (2004). Good lives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 positive approach to treatment. In A. Linley & S. Joseph (Eds.), *Positive psychology in*





- practice* (pp. 598-616). New York, NY: John Wiley.
- Ward, T., & Marshall, W. L. (2004). Good lives, etiology, and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A bridging theory.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0*, 153-169.
- Ward, T., & Marshall, W. L. (2007). Narrative identity and offender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1*(3), 279-297.
- Ward, T., & Maruna, S. (2007). *Rehabilitation: Beyond the risk assessment paradigm*. London, UK: Routledge.
- Ward, T., McCormack, J., & Hudson, S. M. (1997). Sexual offenders' perceptions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167-175.
- Ward, T., Nelser, J., & Yates, P. M. (2007). Reconstructing the risk need responsivity model: A theoretical elaboration and evalu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208-228.
- Ward, T., & Salmon, K. (2011). The ethics of care and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3*, 397-413.
- Ward, T., & Stewart, C. A. (2003).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Risk management and good liv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353-360.
- Ward, T., & Syversen, K. (2009). Human dignity and vulnerable agency: An ethical framework for forensic practi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94-105.
- Ward, T., Yates, P. M., & Long C. A. (2006). *The self-regulation model of the offense and relapse process: Vol. 2. Treatment*.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Pacific Psychological Assessment Corporation. Retrieved from <http://www.pacific-psych.com>.
- Ward, T., Yates, P. M., & Willis, G. M. (2012). The good lives model and the risk need responsivity model: A critical response to Andrews, Bonta, and Wormith (2011).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9*, 94-110.
- Ware, J., & Bright, D. A. (2008). Evolution of a treatment programme for sex offenders: Changes to the NSW Custody Based Intensive Treatment(CUBIT).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5(2), 340-349.

- Watson, J., & Greenberg, L. (1996). Emotion and cognition in experiential therapy: A dialectical-constructive position. In H. Rosen, & K. Kuelwein (Eds.), *Constructing realities: Meaning-making perspectives for psychotherapist*. San Francisco: Jossey-Bass.
- Webster, S. D., & Beech, A. (2000). The nature of sexual offender's affective pathway: A grounded theory analysi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249-261.
- Webster, S. D., Mann, R. E., Thornton, D., & Wakeling, C. (2007). Further validation of the short self-esteem scale with sexual offender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 207-216.
- Wegner, D. M. (1994). Ironic processes of mental control. *Psychological Bulletin*, 101, 43-52.
- Whittaker, M. K., Brown, J., Beckett, R., & Gerhold, C. (2006). Sexual knowledge and empath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 molesters and non-offending adolescent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 143-154.
- Wiederman, M. W. (2004). Self-control and sexual behavior.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525-536). New York: Guildford Press.
- Willis, G. M., Prescott, D. S., & Yates, P. M. (2013). The Good Lives Model(GLM) in theory and practice. *Sexual Abus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5(1), 3-9.
- Willis, G. M., & Ward, T. (2011). Striving for a good life: The good lives model applied to release child molester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7(3), 290-303.
- Willis, G. M., Ward, T., & Levenson, J. S. (2014). The Good Lives Model(GLM): An evaluation of GLM operationalization in North American Treatment Program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6(1), 58-81.
- Wilson, R. J., & Yates, P. M. (2005). Sex offender risk management: Assessment, treatment, and supervision. In M. Bosworth (Ed), *Encyclopedia of prison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pp. 891-89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Wilson, R. J., & Yates, P. M. (2009). Effective interventions and the Good Lives Model: Maximizing treatment gains for sexual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 157-161.
- Wolf, S. (1984). *A Multifactor model of deviant sexuality*, paper presented at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ctimology, Lisbon.
- Woodrow, A. C., & Bright, D. A. (2011). Effectiveness of a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 A risk ban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1), 43-55.
- Yates, P. M. (2002). What works: Effective intervention with sex offenders. In H. E. Allen (Ed.), *What works: Risk reduction: Interventions for special needs offenders*. Lanham,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Yates, P. M. (2003). Treatment of adult sexual offenders: A therapeutic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interven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2*, 195-232.
- Yates, P. M. (2005). Pathway to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Rethinking intervention. *Forum, Summer*, 1-9. Beaverton, OR: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 Yates, P. M. (2007). Taking the leap: A abandoning relapse prevention and applying the self-regulation model to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In D. S. Prescott (Ed.), *Applying knowledge to practice: The treatment and supervision of sexual abusers* (pp. 143-174). Oklahoma City, OK: Wood N Barnes.
- Yates, P. M. (2009). Using the Good Lives Model to motivate sexual offenders to participate in treatment. In D. S. Prescott (Ed.), *Building motivation to change in sexual offenders*. Brandon, VT: Safer Society Press.
- Yates, P. M., Goguen, B. C., Nicholaichuk, T. P., Williams, S. M., Long, C. A., & Martin, G. (2000). *National sex offender programs*. Ottawa, ON: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Yates, P. M., & Kingston, D. A. (2005). Pathways to sexual offending. In B. K. Schwartz & H. R. Cellini (Eds.), *The sex offender, 3* (pp. 1-15), Kingston, NJ:



Civic Research Institute.

- Yates, P. M., Prescott, D., Ward T. (2010). *Applying the Good Lives and Self-Regulation Model to sex offender treatment : A practical guide for clinicians.* the Safer Society Press.
- Yates, P. M., Prescott, D., Ward T. (2011). *Preventing sexual re-offending: A workbook for building a better life.* Brandon, VT: Safer Society Press.
- Yates, P. M., & Ward, T. (2007).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Relapse prevention and beyond. In K. Witkiewitz, & G. A. Marlatt (Eds.), *Therapists' guide to evidence-based relapse prevention* (pp. 215-234). Burlington, MA: Elsevier Press.
- Yates, P. M., & Ward, T. (2008). Good lives, self-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An integrated model of sexual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Sexual Abus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 3-20.
- Youssef, C. (2013). Community maintenance programs for sexual offend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2, 217-232.



## **Abstract.**

### **The effect of therapy applying to Good Lives Model for adult sex offenders**

**Jeong, Yu 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sexual offender is necessary to prevention of recidivism.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in the country based on relapse prevention model or feminist theory, empirical research is little about treatment effectiveness of adult sex offend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rogram applying to Good Lives Model(GLM) for adult sex offender in community based and test its efficacy.

Two aspects of the program's efficacy were considered. To test its short-term effects, pre- and post-treatment assessment data from 33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GLM program compared with 34 usual care group. It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depression, loneliness, impulsivity, emotion dysregulation, social self esteem, and coping using sex, but not in victim empathy, self-esteem, rape myth acceptance, power and hostile attitudes toward women was observed at post-treatment. It is predicted the GLM program for sex offender will improve emotion regulation, stress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skills.

To test its long-term effects, the recidivism rate of the GLM group(n=128), usual care group(n=145), and no treatment group(n=146) were compared at average 610.93 days follow-up. the GLM group was superior to the other two group in the



survival rate, suggesting long-term effects of the GLM program.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GLM intervention is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approach, such as the relapse prevention improving the ability to control negative mood and solve problems and help to going on self-regulation better. And the GLM program is useful to reduce recidivism. further implication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

*Key words : sex offending, sex offender, attendance(treatment) order, Good Lives Model, treatment effect, recidivism*



## 부록 목차

- [부록 1] Beck Depression Inventory
- [부록 2] 정서조절곤란척도
- [부록 3] 사회적 자아-존중감 척도
- [부록 4] 피해자 공감 척도
- [부록 5] 단축형 자존감 척도
- [부록 6] UCLA 외로움 척도
- [부록 7] 성을 매개로 한 대처 척도
- [부록 8] Barratt 충동성 척도
- [부록 9] Novaco 분노 척도
- [부록 10] 강간통념 척도
- [부록 11]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
- [부록 12] CLA 외로움 척도
- [부록 13]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프로그램 치료자용 매뉴얼 축약본



□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4개의 문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항에 표시하세요.

1. 0) 나는 슬프지 않다.
  - 1) 나는 슬프다.
  - 2)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1) 나는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 3) 나의 앞날은 매우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 뿐이다.
  -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 않다.
  -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2)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 3) 나는 항상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아마 벌을 받을 것 같다.
  -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 3) 나의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2)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 2) 내가 한 일일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0) 나는 자살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스럽다.
  -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렸다고 느낀다.
  -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다.
  -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 3) 나의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 1) 나는 요즘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 2)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 3) 요즘에는 식욕이 전혀 없다.
19. 0) 요즘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1)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 2)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 3)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 예 / 아니오 )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로 걱정하고 있다.



- 2)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0) 나는 요즘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략 반쯤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략 반쯤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전혀 아니다 / 보 통 / 정말 그렇다					
1. 나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	1	2	3	4	5	6
2. 나는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한다	1	2	3	4	5	6
3. 나는 사교적인 편이다	1	2	3	4	5	6
4.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능감을 느낀다	1	2	3	4	5	6
5. 나는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다	1	2	3	4	5	6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6
7.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5	6
8.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활달하고 위트가 있는 편이다	1	2	3	4	5	6
9.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없어진다	1	2	3	4	5	6
10.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11. 나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1	2	3	4	5	6
12. 나는 상당히 말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3. 나는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1	2	3	4	5	6
14. 나는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6
15. 나는 사교 모임을 매우 즐긴다	1	2	3	4	5	6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엉뚱한 말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7. 나는 사교 모임에서 자신만만하다	1	2	3	4	5	6
18.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흥미있는 주제를 생각해 내기가 어렵다	1	2	3	4	5	6
19.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지루함을 자주 느낀다	1	2	3	4	5	6
20. 사람들은 나에게서 재미를 찾지 못한다	1	2	3	4	5	6
21.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민해진다	1	2	3	4	5	6



전혀 아니다 / 보 통 / 정말 그렇다						
22.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다	1	2	3	4	5	6
23.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수줍음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6
24. 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1	2	3	4	5	6
25. 나는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편이다	1	2	3	4	5	6
26. 나는 '개성(personality)'이 많지 않다	1	2	3	4	5	6
27. 나는 재미있게 노는 편이다	1	2	3	4	5	6
28. 나는 자신에게 매우 만족스럽다	1	2	3	4	5	6
2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어색하다	1	2	3	4	5	6
3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 다음 이야기를 자세히 읽은 후,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철수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영희를 몇 번 만났고 영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철수는 영희와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공원 벤치에서 키스와 포옹을 하였으며, 영희는 철수가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있었다. 그 다음 주말, 철수와 영희는 친구 집에 초대받고 놀러 가게 되었다. 친구들이 파티준비를 하기위해 마트에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되었고, 철수와 영희는 그 집 안방에서 분위기 있게 둘만 있게 되었다. 철수는 영희에게 키스를 하였고, 철수는 영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영희는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철수는 너무 흥분되어, 안방 문을 잠근 후 영희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영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매우 적발시켰다	상당히 적발시켰다	조금 적발시켰다	전혀 적발시키지 않았다	모르겠다
1. 내 생각에 영희는 철수를 성(sex)적으로 흥분시켰다.					
2. 영희도 철수와의 성관계를 즐겼을 것이다	전혀 즐기 않았다	다소 싫어했다	다소 즐겼다	매우 즐겼다	모르겠다
3. 영희는 철수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매우 매력을 느꼈다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	조금 매력을 느꼈다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모르겠다
4. 내 생각에 영희는 이전부터 철수에게 성관계를 원한다고 표현해 왔을 것이다.	매우 분명히 표현했다	꽤 분명히 표현했다	넉넉히 표현 해왔다	전혀 표현한 적이 없다	모르겠다
5. 영희가 원하기만 했다면 철수와의 성관계를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혀 중단할 수 없었다	아쉽지만 중단할 수 있었다	꽤 쉽게 중단할 수 있었다	매우 쉽게 중단할 수 있었다	모르겠다
6. 내 생각에 영희도 마음속으로는 철수와의 성관계를 원했을 것이다	전혀 원하지 않았다	조금 원했다	꽤 원했다	많이 원했다	모르겠다
7. 영희는 철수에 의해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것이다	매우 흥분했다	꽤 흥분했다	조금 흥분했다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8. 내 생각에 영희도 성관계까지 진행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9. 영희가 철수를 성관계까지 가도록 만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10.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를 스스로 그만둘 수 있었다	전혀 그토록 수 없었다	가끔 그토록 수 없었다	대체로 그토록 수 있었다	충분히 그토록 수 있었다	모르겠다
11. 내 생각에 영희는 위의 상황을 당할 만 했다	매우 그랬다	대체로 그랬다	조금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12. 내 생각에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매우 좋지 않았다	대체로 좋지 않았다	대체로 좋았다	매우 좋았다	모르겠다
13. 영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철수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매우 안심했다	대체로 안심했다	대체로 불안했다	매우 불안했다	모르겠다
14. 영희는 철수와 벌어진 일을 과장해서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꽤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15. 내 생각에 영희도 은근히 철수와의 성관계로 흥분했었 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꽤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16. 내 생각에 영희는 철수와 성관계 후, 그 성관계에 대 한 즐거운 환상을 가졌을 것이다	중증 그랬다	매우 그랬다	가끔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17. 영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꽤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18. 내 생각에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매우 그랬다	꽤 그랬다	조금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19. 영희는 철수와 성관계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했을 것이 다	매우 그랬다	꽤 그랬다	조금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20.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 이후, 그 상황을 후회하며 곰곰 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매우 아무런 그랬을 것이다	중증 그랬을 것이다	가끔 그랬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겠다
21. 내 생각에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 이후,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 주기를 은근히 바랐을 것이다	매우 그랬다	꽤 그랬다	조금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22. 영희는 철수의 행동을 좋아하고 즐겼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꽤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23. 내 생각에 영희가 철수를 흥분시켜 위와 같은 상황까 지 가도록 만들었다	확실히 그랬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24. 영희는 이전에도 성관계한 상대방을 비난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꽤 그렇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25.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로 화가 났을 것이다	매우 화났을 것이다	꽤 화났을 것이다	조금 화났을 것이다	전혀 화가 없을 것이다	모르겠다
26. 내 생각에 영희는 예전에도 위와 비슷한 상황을 만든 적 이 있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꽤 그렇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27. 영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꼈을 것이다	매우 그랬다	대체로 그랬다	조금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28. 영희는 철수와와 성관계를 남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꽤 그랬다	매우 그랬다	모르겠다
29. 영희는 기회만 되면 위와 비슷한 경험을 그 후에도 계속 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매우 그랬다	꽤 그랬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30. 모든 게 철수 때문에 영희가 위 상황에 말려들었다	매우 그랬다	대체로 그랬다	조금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르겠다
31. 내 생각에 영희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꽤 그렇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32. 영희는 철수와와 성관계 이후 심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꽤 그랬을 것이다	매우 그랬을 것이다	모르겠다
33. 영희는 철수와와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전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꽤 쉬었을 것이다	매우 쉬었을 것이다	모르겠다
34. 내 생각에 영희는 철수와와 성관계로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꽤 그랬을 것이다	매우 그랬을 것이다	모르겠다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예	아니오
1.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적이 있다		
2. 나와 같은(비슷한) 타입이나 종류의 사람을 좋아한다		
3. 나는 선거에서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를 찍을 수도 있다		
4. 나 자신에 대해 자주 부끄러움을 느낀다		
5.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6. 나는 대수롭지 않은(별거 아닌) 사람이다		
7. 돈을 내지 않고도 영화관에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8.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내 삶은 꼬여있고 뒤죽박죽이다		
10.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어,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 한다		
11.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2.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가끔 짜증이 난다		



□ 다음 각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과 교제가 부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떤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가지고 있는 흥미나 생각들을 내 주위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진실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친구와 사귀기를 원할 때 진실하게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진실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8.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19. 내 불평을 들어 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 조금 그렇다 / 아주 그렇다			
1. 몸을 허락하기로 한(애인, 부인 등) 여자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과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3. (성인) 여자와 강제로 섹스하는 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4. 고정적인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5. 아동과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6. 낯선 여자를 꼬셔서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7. 몸을 허락하기로 한(애인, 부인 등) 성인 여성과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8. 강간을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9. 아동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10.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11. 남자에게 스스로 몸을 허락하는 여자가 나오는 포르노 야동을 본다	①	②	③	④
12. 폭력적인 포르노 야동을 본다	①	②	③	④
13. 아이들이 나오는 포르노 야동을 본다	①	②	③	④
14. 포르노 야동을 보며 자위를 한다	①	②	③	④
15.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강간한다	①	②	③	④
16. 고정적인 파트너와 강압적인 섹스를 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않 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어떤 일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①	②	③	④
7. 한 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이 든다	①	②	③	④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9.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깊이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①	②	③	④
13.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15.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8.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않 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20.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②	③	④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NAQ)

□ Part A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에 자주 신경이 쓰인다			
2. 무엇인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3.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매주 마주치곤 한다			
4.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몇몇 사람들은 내가 다혈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6. 나는 화가 나면 몇 시간동안이나 화가 지속 된다			
7. 내 근육이 긴장되어 있음을 느낀다			
8.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9. 난 성격이 급하고 불같다			
10. 누군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나도 따라서 소리 지른다			
11.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주어야 한다			
12. 나는 뭔가를 부수고 싶다			
13. 누군가 나에게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나는 듣지 않으려 한다			
14.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면, 나는 잠이 잘 안온다			
15.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해도 상관없다			
16.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한다			
17. 나는 화나면 진짜로 물불 안가린다			
18. 나를 화나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화가 치민다			
19. 나는 긴장되어 진정할 수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 남들이 나를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21. 누군가 나를 방해하면, 그에 대해 행동으로 먼저 대응하고 생각은 나중에 해본다			
22. 나는 맘에 안드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할거다			
23. 나는 화나면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4. 나는 화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다			
25.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잊혀지지 않게 않는다			
26.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되갚아 줄 생각을 한다			
27. 누군가 나를 속이면, 그 속인 사람이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28. 사람들은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을 때, 진실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29. 나는 화나면 뭔가를 부수고 싶다			
30. 남들은 화나면 곧 잘 풀리기도 한다지만, 난 좀 오래 간다			
31. 나는 잠이 잘 안오고 깊은 잠을 자지도 못한다			
32. 나를 성가시게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다			
33. 나는 불같이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다			
34. ‘꺼져’ 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35. 누군가 나를 먼저 때리면, 나도 반격할 거다			
36.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화풀이를 한다			
37. 나는 일단 화나면 집중하기 힘들다			
38. 나는 사기당하고 사는 것 같은 억울함을 느낀다			
39. 싫은 사람에게 굳이 잘 해줄 필요가 없다			
40. 누군가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에게 무언가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41. 누군가 나를 놀리면 나는 피가 끓어 오른다			
42. 누군가에게 화나 있으면 나는 그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			
43. 누군가 나를 성가시게 하면 나는 머리가 아프다			
44. 누군가 일을 그릇되게 하면 나는 짜증이 난다			
45. 나는 화나면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			
46. 누군가와 다투거나 논쟁을 할 때, 나는 그들이 멈출 때까지 계속한다			
47.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			
48.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거다			





□ Part B 다음 문항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하세요

	전혀 화나지 않는다	조금 화난다	꽤 화난다	매우 화난다
1.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비판 받을 때	①	②	③	④
2. 누군가가 약하고 작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①	②	③	④
3.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시끄럽게 할 때	①	②	③	④
4.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행동할 때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일이 늦어지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6.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할 때	①	②	③	④
7. 내가 잘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①	②	③	④
8. TV프로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채널을 돌릴 때	①	②	③	④
9.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잘 경청하지 않을 때	①	②	③	④
10. 다 식어버린 국이나 음식을 먹을 때	①	②	③	④
11. 나는 일하고 있는데 친구는 도와주지 않고 땀전을 피우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12. 누군가 나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할 때(바가지 씌울 때)	①	②	③	④
13. 바쁘는데 교통체증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14.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①	②	③	④
15. 커피를 들고 가는데 누군가 달려들어 커피를 엮질렀을 때	①	②	③	④
16.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누군가 놀릴 때	①	②	③	④
17. 다 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혼날 때	①	②	③	④
18. 내가 세운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누군가 발뻘하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19.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①	②	③	④
20. 하기 싫고 힘든 일을 아침부터 시킬 때	①	②	③	④
21.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들춰 보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22.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비난할 때	①	②	③	④
23. 내가 빌려준 물건을 누군가 돌려주지 않을 때	①	②	③	④
24. 내가 항상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	①	②	③	④
25. 배고파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쓸데없는 장난을 걸어 올 때	①	②	③	④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매우 부정			보 통			매우 긍정		
1.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1	2	3	4	5	6	7	8	9
2.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1	2	3	4	5	6	7	8	9
3.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1	2	3	4	5	6	7	8	9
4.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1	2	3	4	5	6	7	8	9
5. 여자가 친근감이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	2	3	4	5	6	7	8	9
6.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1	2	3	4	5	6	7	8	9
7.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9.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 한다.	1	2	3	4	5	6	7	8	9
11.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검잡할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	1	2	3	4	5	6	7	8	9
12.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뽕’이다.	1	2	3	4	5	6	7	8	9
13.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안돼’ 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14.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5. 끼 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1	2	3	4	5	6	7	8	9
16. 보고된 대부분의 강간 사례는 임신 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날조한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7.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8.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	1	2	3	4	5	6	7	8	9
19.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1	2	3	4	5	6	7	8	9
20.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6	7	8	9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하세요.

	예	아니오
1. 여자들이 대체로 남자들에게 장난삼아 혹은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 시시덕거린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여자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기분이 상한다.		
3. 여자들이 내 결점을 갖고 나를 놀려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4. 나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5. 내가 여자와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여자들이 나를 멋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내가 여들과 의견이 다른 것을 자주 발견한다		
7. 나는 여자들에게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여자들에게 별로 하지 않는다.		
8. 나는 내게 기대 이상으로 친절할 여자들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9. 나를 매우 싫어하는 듯한 여자들이 있다.		
10. 나는 사람들이 항상 여자 쪽 편의를 봐 준다고는 생각한다.		
11. 나는 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아야 할 걸 못 받는 것 같다.		
12. 나는 여자들이 나를 놀려도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		
13. 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짜증나게 한다.		
14. 여자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면 아마도 나를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15. 나는 여자들에게 종종 기분이 언짢았다.		
16. 나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앞서가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17. 여자들을 믿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18.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많은 여자들이 사람들을 속인다		
19. 나는 여자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잘 없다.		
20. 나는 여자들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21.	나는 나중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적대심을 품는 일이 절대 없다.		
22.	많은 경우에 여자들은 나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나를 이용하려 한다.		
23.	나는 내 삶의 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확신한다.		
24.	나는 여자들이 내게 잘 해줄 때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대개 궁금해 하지 않는다.		
25.	여자들이 나를 해하려 하지만 않았다면 나는 여들과의 개인적 관계가 더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26.	나는 여자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다.		
27.	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다.		
28.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볼 때, 나는 내 삶의 여자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29.	나는 여자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라도 뚱하게 있는 적이 절대 없다.		
30.	나는 삶에서 너무 많은 여자들에게 거부당하였다.		
31.	여자가 당신이 키스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행위’ 들을 다른 남자와 비교한다는 생각에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2.	여자들은 때때로 당신의 어머니처럼 행동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3.	여자들이 당신을 방어하기 곤란한 교묘한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놀려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까?		
34.	여자가 당신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지배하려 하므로 나는 좀더 주도적으로 여자를 대해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5.	때때로 여자들이 당신을 마치 어린 소년처럼 보잘것없이 느끼도록 만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36.	여자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남자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한다느니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프로그램 치료자용 매뉴얼 요약본  
: 기본 프로그램(폐쇄형)

[ 1회기 ]

<b>주 제</b>	○ 교육등록 및 개시교육, 오리엔테이션, 초기면접 및 검사
<b>목 표</b>	○ 대상자 등록 및 교육 진행과정 등에 대한 사전교육 ○ 초기면접을 통한 진행자와 라포 형성 ○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갖기, 친밀감 형성
<b>준비물</b>	○ 개시교육 PPT자료, 사전 심리검사 Battery, 다면적 인성검사 등
<b>진 행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 등록, 사전검사</li> <li>○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 소개</li> <li>○ 수강명령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li> <li>○ 프로그램의 개략적 소개</li> <li>○ 집단규칙 및 목표안내</li> <li>○ MMPI검사, BDI, IRI, 강간통념수용도 등 사전평가 실시</li> <li>○ 초기면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개요, 가족 및 직업사항, 사건 이후 힘든 점 등에 대해 간략하게 개별면담 실시, 향후 프로그램에서 본 건이나 개인적인 얘기들이 집단 내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본 건을 비롯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함</li> </ul> </li> </ul>



[ 2학기 ]

<b>주 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구성원들간 자기 소개하기</li> <li>○ 사건 이후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li> <li>○ 인생그래프 작성 및 행복한 인생 계획하기</li> </ul>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의 감정을 나누고, 집단구성원 동질감을 확인하기</li> <li>○ 현 상황을 초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인식하기</li> <li>○ 나의 꿈을 생각해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구상하기</li> </ul>
<b>준비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찰, Worksheets : '나의 20문 20답', '인생그래프', '나의 꿈' 등</li> </ul>
<b>진 행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를 통해 대상자들 간의 긴장된 분위기가 다소 해소됨</li> <li>○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수사기관, 현행법 등에 대해 느낀 분노감,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미안함, 수치심, 죄책감, 주위의 시선 등에 대한 불안감 등을 털어놓고 집단구성원 간의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건과 연관된 부정적 경험들을 털어놓는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증진시킴</li> <li>- 앞으로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함</li> </ul> </li> <li>○ 인생그래프 작성으로 구성원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그래프를 발표하면서 과거 부정적 경험들(예,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 부모 사망, 군 생활, 사업실패 등)을 탐색</li> <li>- 사건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li> <li>-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희망을 고취함</li> </ul> </li> <li>○ 인생그래프를 근간으로 현실을 감안하여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생각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려면 과거 및 현재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개입</li> </ul> </li> </ul>



[ 3학기 ]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관련 법 교육</li> <li>○ 성 관련 OX퀴즈</li> <li>○ 성폭력 바로 알기</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관련된 법률사항 인지로 재범 방지</li> <li>○ 성폭력 관련 지식 점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의 학습</li> </ul>
준비물	PPT자료(성폭력 관련 법률 교육), Worksheets : '성에 대한 OX퀴즈' 등
진 행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관련된 법률사항을 습득하여 재범 및 법적 불이익을 예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의 실효',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에 대해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업을 찾아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사항들을 숙지하는 등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입</li> </ul> </li> </ul> </li> <li>○ 성에 대한 지식을 OX퀴즈 형식으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완화시키는 역할</li> <li>- 개인이 성을 습득해 온 과정을 탐색하고, 집단 토론 형식으로 포르노그래피의 영향 등을 검토함</li> </ul> </li> <li>○ 성폭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li> <li>- 자발적 동의의 개념을 교육하고,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의'의 개념 명료화하기</li> <li>- 자발적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관계(성인≠미성년자, 정상지능≠지적장애인, 교사, 부모, 상사≠학생, 자녀, 부하직원 등), 성폭력의 정의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구 성원 개별 사건이 '자발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li> </ul> </li> </ul>



[ 4학기 ]

<b>주 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행동모형을 통해 생각의 중요성 이해하기</li> <li>○ 강간통념 수용도 확인 및 수정하기</li> </ul>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행동모형 : 생각, 감정, 행동의 관계 이해하기</li> <li>○ 인지적 오류들을 점검하고 생각의 중요성 이해하기</li> <li>○ 강간통념 수용도를 확인,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점검하고 수정하기</li> </ul>
<b>준비물</b>	PPT자료, Worksheets : ‘소중한 나를 위한 생각바꾸기’ 등
<b>진 행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행동모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 생각 → 감정 → 행동 → 결과’ 연결고리 이해하기</li> <li>- Worksheet 작성 (‘소중한 나를 위한 생각 바꾸기’)</li> </ul> </li> <li>○ 생각바꾸기, 인지적 오류 등을 점검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에 인식하지 않고 지냈던 인지적 오류들을 점검, ‘긍정적이고 합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짐</li> </ul> </li> <li>○ 강간통념 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용도를 확인, 토론 과정을 통해 강간통념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행 당하기 쉬운 여자 vs. 성폭행 당하기 어려운 여자’에 대한 입장 토론하기</li> <li>- 강간통념 수용도의 주어를 ‘여자’에서 ‘나에게 소중한 여성(엄마, 여동생 등)’으로 변경하여 채점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확인, 수정</li> </ul> </li> <li>○ 영화 ‘분노’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사건의 촉발 요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li> </ul> </li> </ul>





[ 5회기 ]

<b>주 제</b>	○ 성폭력이 발생하는 과정 이해하기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kelhor의 성폭력 발생모형, Wolf의 순환모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li> <li>- 성폭력 행위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가 있었음을 인식하기</li> <li>-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요인(생활스트레스, 감정적 변화, 성에 대한 생각 등)을 찾아보기</li> <li>○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과정을 대리 학습하기</li> </ul>
<b>준비물</b>	PPT자료, Worksheets : '나의 선택과 결정' 등
<b>진 행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kelhor의 성폭력 발생모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외부장벽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행 동기(정서적 일치 + 성적 각성 + 차단) → 내적장벽 → 외적장벽 → 피해자의 저항 → 성폭행'의 연결고리 설명</li> <li>- 자기 사건에서 왜곡된 기대를 살펴보고 성폭력 사건과 연관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등을 연결하여 생각해보고 발표, 진행자 및 집단구성원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짐</li> </ul> </li> </ul>



[ 6회기 ]

<b>주 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한 이해</li> <li>○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바라보기</li> </ul>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에 대해 생각해보기</li> <li>○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조망해 보고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작성하기</li> </ul>
<b>준비물</b>	○ 성폭력 피해사례 관련 영상, PPT 자료(피해자 후유증) Worksheets : 편지지
<b>진 내 행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시절 부모, 친구, 형제들에게 맞거나 놀림을 당한 기억을 회상하며, 당시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함</li> <li>○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인지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li> <li>○ 피해자사례 관련 동영상(예, ‘나는 짐승을 죽였다’, ‘소원’ 등)을 시청한 후, 피해자 본인, 가족,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감정-행동의 연결고리를 파악해 봄</li> <li>○ 피해자가 자신에게 쓰는 편지, 그에 대한 답장을 작성하고,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쓰는 편지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등을 기록하고, 답장에는 그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 들어가도록 개입</li> </ul> </li> </ul>



[ 7회기 ]

<b>주 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범 방지요인 확인하기 및 향후 생활 설계하기</li> <li>○ 사후검사 및 종료</li> </ul>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범에 빠질 수 있는 요인 등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계획 세우기</li> <li>○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 자축하고, 친사회적인 생활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채우기</li> </ul>
<b>준비물</b>	PPT자료, Worksheets : '나의 동료에게' 등, 사후 심리검사지
<b>진 내 행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범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차단(소외감 외로움, 무로함 등의 감정)을 느꼈을 때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취미생활 등 친사회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입</li> </ul> </li> <li>○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을 마치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해주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짐</li> <li>○ 소감문 및 사후 설문서 작성</li> </ul>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프로그램 치료자용 매뉴얼 요약본  
: 확장 프로그램(개방형)

[ 요인 1 : 변화에 대한 동기강화 및 자신감 키우기 ]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에 대한 동기 강화하기</li> <li>○ 자신의 강점 발견하기</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집단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간략한 자기소개와 환영의 시간 갖기</li> <li>○ 생의 일차적 목표를 이해하고, 각자의 생의 수레바퀴를 확인하기</li> <li>○ 자서전 작성을 통해 서사적 맥락에서 인생 살펴보기</li> <li>○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찾아보기</li> </ul>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의 수레바퀴’, ‘SMART 계획 세워보기’, ‘자존감 활동지’ 등</li> </ul>
진 행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좋은 삶을 위해 추구하는 일차적 덕목을 이해하고, 생의 수레바퀴 작성을 통해 현 상태를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ART 원칙을 설명하고, 생의 수레바퀴에서 성취 정도가 낮은 덕목들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봄</li> </ul> </li> <li>○ 자서전 작성 후 발표, 집단구성원의 피드백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입</li> <li>- 범죄와 연관 있는 생각, 생활양식 등을 확인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li> </ul> </li> <li>○ ‘자존감 활동지’ 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대인관계, 휴식, 지식, 일, 외모 영역에서 장점을 찾아보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드에 기록함</li> <li>- 일상에서 기록한 카드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개입</li> </ul> </li> </ul>



[ 요인 2 : 자기조절 - 재범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하기 ]

<b>주 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사에서 위험요인 찾아보기</li> <li>○ 위험요인들이 사건 직전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하기</li> <li>○ 위험요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찾아보기</li> </ul>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부터 현재까지 환경적 요인, 기질적 요인, 생활양식 등에서 위험요인 탐색하기</li> <li>○ 재범을 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봄으로써, 위험요인들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li> <li>○ 위험요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찾아보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기</li> </ul>
<b>준비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찰, Worksheets : ‘생활사에서 위험요인 찾아보기’, ‘sexual abuse cycle’ 등</li> </ul>
<b>진 행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사에서 위험요인을 스스로 탐색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감 부족,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부모가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자,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함, 자기-개념(self-concept) 부족, 권위적인 대상(부모, 교사 등)들과의 갈등,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제들,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들, 친구관계에서의 문제들, 학교생활(학업 성적 등)에서의 문제들, 성기능(예: 불감증, 발기부전 등)과 관련된 문제들,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주로 혼자 지내는 생활양식(외톨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립됨), 사회적 기술 부족, 대화기술 부족, 자기-주장성 부족, 청소년기 비행, 성인기 범죄력, 가족 문제, 결혼가정, 부모의 별거 및 이혼, 문제 회피, 문제 해결 하는 것을 두려워함, 분노, 조급한 기질, 혹은 갑작스럽게 화내기, 정서적 차단, 낮은 자존감, 부적응(부적당감)을 경험, 행동적 문제들, 공격성, 성 정체성 문제 혹은 성적 혼란감 등에 대해 살펴봄</li> </ul> </li> <li>○ 위에서 밝혀진 위험요인들을 적용하여 Sexual abuse cycle 작성해 보기</li> <li>○ 위험요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요인들을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 활동리스트를 제공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찾아서 Sexual abuse cycle에 적용해 봄</li> <li>-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활동을 체험해보도록 권유하고, 이후 회기마다 점검</li> </ul> </li> </ul>



[ 요인 3 : 자기조절 - 감정조절, 문제대처기술 ]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으로 부정적 감정들을 조절하는 방략 세우기</li> <li>○ 단계별 문제대처방법 배우기</li> <li>○ 타인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능력 키우기</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키우기</li> <li>○ 문제중심적 대처기술 키우기</li> </ul>
준비물	Worksheets : ‘정서조절사용 테스트’, ‘정서조절방략프로파일’ 등, 공감, 나 전달법 관련 영상매체 활용
진 행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조절방략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고, 정서조절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방략을 긍정적인 방략으로 대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인 정서조절 : 반추, 걱정, 파국화, 자기비난, 타인비난 /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표출하기 / 폭식하기, 탐닉 활동하기</li> </ul> </li> <li>○ 효과적인 정서조절 방법 학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아차리기 → 주의분산적 방법 도입하기 →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 도입하기 → 접근적인 행동적 방법 도입하기</li> </ul> </li> <li>○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에 대한 이해 전달 → 어떤 이유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전달(I-message 전달법) →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li> </ul> </li> <li>○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적 대처 / 회피적 대처 / 문제중심적 대처의 장·단점 찾아보기</li> <li>- 문제해결 5단계 시연해 보기</li> <li>-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긴장이완, 명상 활용하기</li> </ul> </li> <li>○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의 4단계를 배우고(영상매체 활용), 피해자의 입장 살펴보기</li> <li>- 공감의 4단계 : 정서적 인식 → 조망수용 → 동정 →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li> </ul> </li> </ul>



[ 요인 4 : 자기조절 - 대인관계 영역 ]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기</li> <li>○ 대화, 경청에 대한 기술 배우기</li> <li>○ 데이트 결혼 신화에 대해 확인, 수정하기</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감과 외로움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기</li> <li>○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연습하기</li> </ul>
준비물	대화기술 관련 영상매체
진 행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밀감’과 ‘고립감’에 대한 질적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감정적 지지, 편안함, 안정감을 제공하며 특히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기</li> <li>-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충실함, 정직,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기-개방이 필요함을 인식하기</li> </ul> </li> <li>○ 애착유형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기 애착유형을 설명하고, 각자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점검함</li> <li>- 애착유형은 변화가능하며,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이성교제나 결혼생활을 더욱 성공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li> </ul> </li> <li>○ 좋은 대화기술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 경청의 기술, 사랑과 감사를 주고받는 방법을 학습하고, 역할시연 등을 통해 연습해 보기</li> </ul> </li> <li>○ 데이트,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신화) 점검하고 수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에 대한 신화 : 긍정주의는 현실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 주변사람들과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는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다</li> <li>- 결혼에 대한 신화 : 결혼은 기적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치유해 준다, 결혼은 영혼하다, 자녀가 생기면 부부관계는 더욱 돈독해 질 것이다, 연애를 하면 자동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한다, 아내는 나의 연장선이다</li> </ul> </li> </ul>



[ 요인 5 : 건강한 성 ]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개념 다지기</li> <li>○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학습하기</li> <li>○ 파트너가 동등한 입장이고,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성적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배우기</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하고 충실한 성적 의식을 키우기 위해 ‘동의(consent)’의 개념을 굳건하게 인식하기</li> <li>○ 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성적 집착(sexual preoccupation)’에 대해 살펴보기</li> <li>○ 성적 만족을 최대화하거나 만족을 줄여주는 성행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성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기</li> <li>○ 일탈된 성적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된 성적 환상이나 생각들을 파악하기</li> <li>○ 성적 일탈을 하는 상상이나 사고를 학습 이론적 접근을 통해 수정하기</li> </ul>
준비물	Worksheets : ‘동의와 강요’ 등
진 행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와 ‘강요’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어떤 관계, 상황에서 진정한 동의가 이뤄지는지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통념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성행위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높이려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자발적 동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이해함</li> </ul> </li> <li>○ ‘성적 집착’에 대해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중독 / 성적 강박 / 과도한 성적 욕망 등</li> <li>- 성적 집착은 ‘건강한 성’과 ‘좋은 삶’에 득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활동들을 늘리고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개입</li> </ul> </li> <li>○ 일탈된 성적 환상이나 성행위를 지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손익분석 해보기</li> <li>○ 성적 일탈을 하는 상상이나 사고를 학습 이론적 접근을 통해 수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오기법, 성적포만기법 등</li> </ul> </li> </ul>





[ 요인 6 : 좋은 삶을 위한 계획세우기 ]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종료 후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좋은 삶 계획하기’ 설정하기</li> <li>○ 좋은 삶 계획하기를 위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태도 점검하기</li> <li>○ ‘Kohlberg의 도덕관 발달이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성숙한 도덕관에 근거하여 상황을 판단내릴 수 있는 능력 키우기</li> <li>○ ‘지금-현재(here and now)’의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낙관적인 태도를 강화하기</li> <li>○ 성폭력을 유발하는 분노,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기분을 다룰 수 있는 대안적 행동인 유머에 대해 이해하고, 유머 사용을 통해 이전에 통제하기 힘들었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경험 늘리기</li> <li>○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 효율적인 대처전략 다지기</li> <li>○ 미래의 고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집단 점검하기</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점검하기</li> <li>○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지지집단 확인하기</li> </ul>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관 이론 관련 영상매체, Worksheets : ‘생의 수레바퀴’, ‘나의 멘토는?’ 등</li> </ul>
진 행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삶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회복(spontaneous recovery)’을 이해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기</li> <li>- 처음 그렸던 생의 수레바퀴에서 현재 위치 점검, SMART 세부계획 조정하기</li> </ul> </li> <li>○ 시간 조망능력(Time perspective)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간의 시간 조망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하기</li> <li>- 효율적으로 시간을 설계하는 방법 찾아보기</li> </ul> </li> <li>○ Kohlberg의 도덕관 발달단계를 확인하기(영상매체, 사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높은 단계의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우기</li> </ul> </li> <li>○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이론을 활용하여 과거, 미래에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지금-현재’에 충실해야 함을 이해하기</li> </ul>



-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강점들을 발견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 경험을 증가시켜나가는 것이 결국 재범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기
- 재범방지를 위한 유머의 사용
  -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혹은 혼자서 웃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기
-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위험 상황들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찾아보기
  - 아동성학대범 : 아동과 단둘이 있는 상황 / 강간범 - 피해자가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 / 노출증 : 거리를 배회, 혼자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
-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집단(멘토) 점검하기
-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대해 치료자와 나머지 구성원들이 충분한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